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당신의 비즈니스를 위한 솔루션 - FDIC
뱅크 오브 호프
초이스 & 프리미어 체킹
Bank of Hope

중일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3 제 6774호

Tuesday, October 10, 2023 A

이스라엘군, 가자 장벽 집결... 팔 주민 12만명 공포의 탈출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면봉쇄 지시
하마스, 외국인 등 130여명 인질로
미국·태국인 등 수십명 사망·실종



■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9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탱크와 군용차량들이 가자지구 장벽 근처로 집결하고 있다.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번 충돌에서 양측 사망자는 1200명에 육박하고 있다. ■ 이스라엘군이 폭격한 가자지구 목표물이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고 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이슬람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양측 간 무력 충돌이 사흘째인 9일 격화되고 있다.

양측 누적 사망자가 1200여 명에 달한 가운데 ‘전쟁’을 선언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군 투입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IDF) 대변인은 지난 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우리의 임무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위협할 군사적 능력을 갖추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하마스가 더 이상 가자지구를 통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한 번에 이처럼 많은 이스라엘 국민이 살해된 적은 없었고, 9·11 테러와 진주만 공습을 하나로 합친 것과 같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

리는 8일 “악의 도시에서 하마스가 있는 모든 곳, 하마스가 숨어 있는 모든 곳, 활동하는 모든 곳을 폐허로 만들 것”이라며 강력한 보복 공격을 경고했다.

8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당국자들은 이스라엘군이 24~48시간 안에 가자지구에서 지상 작전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했다. 요이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9일 “가자지구 전면 봉쇄를 지시했다”며 “전기도, 식량도, 연료도 없을 것이며 모든 것이 닫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 CNN은 이날 이스라엘 무장병력의 이동 사실을 전하면서 가자지구 내 ‘대학살(carnage)’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선 1993년 미국 등의 중재로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자치권을 인정할 오슬로 협정 이전으로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변수는 하마스나 이슬라믹 지하드 등 무장단체들이 납치해 가자지구에 억류하고 있는 최소 130여 명이 넘는 민간인(외국인 포함)과 군인들이다. 이스라엘이 공세를 본격화할 경우

하마스는 이들을 ‘인간 방패’로 내세울 수 있다.

양측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면서 인명 피해는 급증했다. 9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하마스의 로켓 및 침투 공격으로 이스라엘 사망자는 700명을 넘었다. 외신 등을 종합하면 태국(12명 사망, 11명 인질), 미국(9명 사망, 7명 실종), 네팔(11명 실종), 우크라이나(2명 사망), 프랑스(1명 사망, 수명 실종) 등의 외국인도 수십 명이 포함됐다. 미국 인 인질 보도도 나왔다.

남부 레임 키부츠의 음악축제 행사장 주변에서는 무려 260구의 민간인 시신이 무더기로 발견돼 이스라엘을 충격에 빠뜨렸다. 스푸트니크통신에 따르면 하마스 군사조직인 알 카삼 여단은 8일 밤늦게 수도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과 남부 도시 아슈켈론에 로켓을 발사했다. 이에 맞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내 1000개 목표를 보복 공격했고, 팔레스타인 보건부에 따르면 560명이 사망했다. > 관계기사 2·8면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김상진·서유진 기자 > 2면 ‘이스라엘’로 이어집니다

유가 4%대 급등... “중동 전쟁 번지면 제3의 인플레이 파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여파로 국제유가가 4%가량 급등했다. 전쟁이 길어지거나 확산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유가 급등과 주식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지난 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오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유(WTI) 선물은 전 거래일보다 4%가량 상승한 배럴당 86달러에 거래됐다. 북해산 브렌트유의 경우 한때 전 거래일보다 5% 넘게

오른 89달러를 찍기도 했다.

석유·가스 시장 전문가인 반다나 하리는 “유가가 조건반사적으로 오를 수 있지만, 사태가 더 번지지 않고 중동 지역의 석유·가스 공급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 인식되면 가격이 가라앉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전쟁이 장기화하거나 다른 중동 지역으로 확산할 때다. 이란이 하마스의 공격을 지원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충돌이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



가 커졌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여파 등으로 치솟았던 WTI와 브렌트유 가격은 ‘고금리 장기화’로 세계경제가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에 이달 들어 10달러 넘게 내렸다.

각국 중앙은행은 국제유가가 급등해 새로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글로벌 회계 컨설팅 기업 마자스의 조지 라가리아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세계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제3의 인플레이션 파고(wave)’가 일어날 가능성”이라며 “중동 정세에 긴장이 높아지면 에너지 가격이 상승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려

는 중앙은행의 노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물가 상승 억제와 연착륙을 동시에 이루려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선택이 복잡해졌다. 유가 상승에 따라 물가가 오르면 기준금리를 ‘더 높게, 더 오래(higher for longer)’ 유지할 필요성이 커지지만, 동시에 고금리에 경기 경착륙 우려 가능성도 덩달아 커진 상황이다.

서지원·강광우 기자, 세종=이우림 기자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 김홍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센터빌
703-830-4422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해입
순금 여기 물만지못피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미용사 초빙합니다.
경력자 우대
410-988-5523

종업원 상해보험 / 비즈니스 보험

치솟는 보험료를 저희가
확 잡아 드리겠습니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업무상 발생한 종업원의 병원비 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재정적 책임까지 커버해 드립니다.

비즈니스 보험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예상치 못한 손실과 위험으로부터 사업체를 지켜드립니다.

똑똑한 보험! 스마트 보험!
703-639-0882
smartbiz@solomonus.com

SCAN ME

견적문의는 휴대폰으로 왼쪽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보내주시면 신속한 견적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전기·식량 중단” ... CNN “지상작전 맨 대학살 우려”

가자지구, 레바논 국경서 계속 교전 미, 항모전단 급파 ... F-35 증강배치

▶ 1면 ‘이스라엘’에서 이어집니다
부상자도 속출해 양측 보건부에 따르면 5200여 명(이스라엘 2300여 명, 가자지구 2900여 명)이 다쳤다.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대거 피란길에 올랐고,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OCHA)은 “(8일) 오후 9시 기준 12만3538명이 이동했다”고 밝혔다. 가자지구엔 세종시보다 조금 넓은 면적(360여㎢)에 237만 명이 밀집 거주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양측은 9일 가자지구 주변 7~8곳에서 교전을 벌였다. 하마스 측 대변인은 “대원들은 아직도 이스라엘에서 싸우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가자지구 장

벽 주변 지역의 통제권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레바논 남부에 근거지를 둔 무장세력 헤즈볼라도 이날 레바논 및 시리아 접경지역인 골란고원의 이스라엘 점령지 세바 팜스에 로켓과 박격포를 쏘고 이스라엘도 포격으로 맞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8일에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하고 지원을 재차 약속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2017년 취임한 ‘수퍼 핵 항모’ 제럴드 포드 항모 전단의 동지중해 이동을 명령했다. 또 이 지역에 F-35 등 전투기 편대를 증강 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 하마스과 헤즈볼라 소속 역병의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란 안보 당국자들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9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된 건물 모습(왼쪽). 같은 날 생존자 구조를 위해 사티 피난민촌에서 무너진 모스크 잔해를 조사하고 있다.



을 계획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보도했다. 또 2일엔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열

린 한 회의에서 하마스의 대규모 공격 작전을 이란이 승인했다고도 전했다.

하지만 9일 AFP통신에 따르면 나세르 카냐니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란의 역할과 관련된 의혹 제기는 정치적 이유에 바탕을 두고 있다”며 “팔레스타인은 이란 정부의 도움 없이도 자국을 지키고 스스로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과 의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주도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슬람 수니파 국가간의 이른바 ‘중동 데탕트’가 추진 중인 가운데 시아파 맹주인 이란이 이를 막기 위해 하마스를 지원했다는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앞서 가자지 하마스 대변인은 8일 “이란은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이 해방될 때까지 우리 전사들과 함께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김상진·서유진 기자

“싸울 의지 없다” 하마스 2년간 교란전

이스라엘 방심하게 만든 뒤 허필러 암살 7번 모면한 데이프, 공격 주도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막후에는 2년간 치밀하게 설계한 교란 작전이 있었다고 이스라엘 정보 당국자가 밝혔다.

하마스가 대규모 군사작전을 철저히 숨기고,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생계 등 경제가 중요하다는 인상을 심어주면서 이스라엘이 방심한 틈을 타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는 것이다.

9일 로이터통신은 역병을 요청한 세 명의 이스라엘 정보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하마스가 전례 없는 정보전으로 이스라엘에 싸울 의지가 없다는 인상을 줬고, 거기에 이스라엘이 속아 넘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자지구에 기반을 둔 또 다른 이슬람 무장단체인 이슬라믹 지하드가 이스라엘을 공격해도 하마스는 자제했다. 이스라엘 정부가 이 같은 교란 작전에 안심할 때 하마스가 허를 찌른 셈이다.

한편 지난 7일 기습 공격을 주도

한 배후에는 알 카삼 여단 최고지도자 무함마드 데이프(58)가 있다는 게 이스라엘 정보 당국자의 설명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데이프는 이번 ‘알아크사 폭풍 작전’을 선포하면서 육성 메시지를 통해 “더는 안 된다. 오늘 우리 인민은 그들의 혁명을 되찾아올 것”이라고 선언했다.

1965년 가자지구에서 태어난 데이프는 1980년대 후반 하마스에 합류했다. 2002년 이스라엘 공습으로 살라 세하데가 사망하자 후임자로서 조직을 이끌었다. 2014년 이스라엘군 공습 때 아내와 생후 7개월 된 아들과 딸을 잃었다. 당시 “지옥의 문을 열고 이스라엘인들을 보내버리겠다”고 맹세했다고 한다.

데이프는 지금까지 암살 시도를 최소 7번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20년 넘게 숨어 지냈으며 한 곳에 정착하지 않는 생활 방식과 이해하기 어려운 성격으로 인해 ‘손님(the guest)’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린다.

김민정 기자

“전기도 식량도 안돼” 이스라엘 국방, 가자지구 ‘완벽봉쇄’ 지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마스 통치하의 가자지구를 완벽하게 봉쇄하겠다고 선언했다.

요아브 갈란트(사진)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하마스와의 교전 사흘째인 9일(현지시간) 남부 베르세베에 있는 남부 군사령부를 방문해 “가자지구에 대한 전면 봉쇄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기도 식량도, 연료도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닫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갈란트 장관은 이어 “우리는 인

간의 탈을 쓴 짐승(human animal)과 싸우고 있다. 따라서 그것에 맞게 행동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오랜 봉쇄 정책으로 빈곤에 허덕여온 230만명의 가자지구 주민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하마스는 지난 2006년 치러진 팔레스타인 선거에서 압승했으나, 선거 결

과를 둘러싼 논란 속에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주도하는 파타당을 밀어내고 가자 지구를 통치하기 시작했다.

이후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봉쇄했고, 가자 지구의 경제 상황은 악화 일로를 걸었다.

소규모 농업과 관광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활동이 중단되면서 높은 실업률과 빈곤 속에 가자 지구의 국제사회의 자금 지원 의존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 하마스 공격 비난

가자지구 봉쇄엔 깊은 우려

안토니우 구테흐스(사진) 유엔 사무총장은 9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행위를 강력히 비난하면서도 민간인 희생을 초래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면봉쇄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민간인은 언제나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가자지구에 대한 유엔의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을 지속한다

는 방침을 밝혔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날 낸 성명에서 “먼저 가자지구 접경 이스라엘 마을을 향해 이뤄진 하마스의 끔찍한 공격에 대해 나의 절대적인 비난을 반복하는 것으로 말을 시작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느끼는 정당한 슬픔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도 “그러나 어떤 것도 이 같은 민간인을 향한 테러와 살인, 납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즉각 공격을 중단하고 인질들을 석방하라고 하마스에게 촉구했다.

한편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반격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팔레스타인에서 여성과 아동을 포함해 500여명이 죽고 3천여명이 다쳤다는 보도에 깊은 충격을 받았으면서 “이스라엘의 정당한 안보 우려를 이해하지만 군사작전은 국제인도법에 따라 엄격하게 수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날씨 (°F)

| | | | |
|--------|-------|--------|-------|
| 11일(수) | 71-47 | 14일(토) | 67-52 |
| 12일(목) | 76-54 | 15일(일) | 60-49 |
| 13일(금) | 73-56 | 16일(월) | 59-45 |

10월 10일(화) 69~44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 | | |
|----------------------------------------------------------------------------------------|------------------------------------------------------------------------------------|-------------------------------------------------------------------|
| 벤돈 메트로 옆 타운홈 특정 RENT \$2,850/m 방3, 화장실2, 차고2, 새 부엌, 그리나잇, 새 냉장고, 전체 새 페인트 | 헤이마켓 콘도 특정 \$440,000 방2, 화장실2, 차고1, Under Contract, 유닛 마감 End Unit!!! | 그레이트폴스 싱글홈 \$1,500,000 방4, 화장실3, 차고3, 10에커, 멋진 플로터일! |
|----------------------------------------------------------------------------------------|------------------------------------------------------------------------------------|-------------------------------------------------------------------|

완벽한 전문인 구성 및 워싱턴 지역 최고 공격 마케팅 전략 부동산 팀

부동산 명품 브랜드, REALTYONEGROUP 슈나이더팀 부동산을 찾으십시오!

워싱턴 지역 주택, 상가, 사업체 매매 및 구입 상담 환영

압도적인 규모, 선도적인 마케팅 혁신적인 교육, 보편적인 원칙

주 택
상가/사무실/아파트/공장/창고
공장/사무실/창고 설립
사업체
주재원 렌딩 서비스
투자 컨설팅

승경호 703.928.5990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THE SCHNEIDER TEAM www.dwellwashington.com

내 집 장만 부동산 전문 서비스

“건강한 학교·가정 위해 공화당 선택을”

공화당 소속 선거 출마자들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방문

오는 11월 중선거에 출마하는 북버지니아 지역 공화당 후보들이 지난 8일 워싱턴중앙장로교회(담임 류응렬 목사)를 찾아 한인들의 투표를 호소했다.

이 날 방문한 공화당 소속 후보들은 총 11명으로 중앙장로교회의 규모와 출석한 한인 신도들의 숫자에 “놀랐다”는 후문이다. 이들은 민주당이 장악한 북버지니아 지역에 “구태적인 정치현장에 새로운 변화와 주민들의 실질적 이익을 위한 신선한 정책”을 약속하며 한인들의 관심과 선거참여를 당부했다.

특히 “건강한 학교와 가정을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공화당을 지지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류응렬 목사는 “후보들께서 지역 사회를 위해 드리는 수고와 헌신이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일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화당 후보들이 지난 8일 워싱턴중앙장로교회를 방문했다.

이와 함께, 이들의 방문을 주선한 해롤드 변 버지니아주 법무부장관실 선임보좌관은 “정당에 관계없이 친한과 정치인으로 오랫동안 한인사회를 위해 일했던 주요 후보들이 당내 경선에 나마하며 (한인 정치력 신장에) 위기를 맞고있다”고 진단하며 “이번 선거에서 앞으로 친한과 정치인으로 성장 할 인재들에게 투표해 한인들의 선거역량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후보 명단은 다음과 같다. 푸닛 아루왈리아(드레인스빌

지구 수퍼바이저 후보), 브라이언 머피(프로비던스 지구 수퍼바이저 후보), 키스 엘리엇(설리 지구 수퍼바이저 후보), 맥스 피셔(18선거구 주하원의원 후보), 마커스 에반스(15선거구 주하원의원 후보), 제임스 토마스(10선거구 주하원의원 후보), 후엔 난(9선거구 주하원의원 후보), 사운드라 데이비스·해리 잭슨·카산드라 오코인(페어팩스 교육청 광역위원 후보), 신디아 왈시(페어팩스 교육청 설리지구 교육위원 후보)

김윤미 기자

한국 해군 훈련전단 볼티모어 입항 “한미동맹 70주년 기린다”

한국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을 태운 해군 순항훈련함이 지난 9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항구에 입항해 태극기를 휘날리며 해군 함정의 위용을 드러냈다.

지난 8월28일 진해 군항에서 출발한 해군 순항훈련전단은 14일간 13개국 14개 항구를 도는 원양 항해훈련 일환으로, 미국은 하와이를 시작해 콜롬비아를 거쳐 볼티모어를 방문했다.

순항훈련전단은 오는 13일(금)까지 미국에 머무르면서 6·25 정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참전용사에 감사를 표하고 한미동맹의 가치를 재강화하는 활동을 할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입항 환영행사가 열린 훈련

함 한산도함에는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 17개국의 국기와 “한국의 현재와 미래 세대는 당신들의 숭고한 헌신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메세지가 쓰인 영문 현수막이 설치돼 현장을 숙연하게 했다.

김인철(대한민국재향군인회 미동부지회) 회장은 “해군사관학교생도들을 보니 흐뭇하고 뿌듯한 기분이었다”며 “후대들이 이어받아 한미동맹이 더욱 더 강해질것이란 기대감에 든든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순항훈련전단은 13일 이후 볼티모어에서 출항해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방글라데시, 필리핀, 일본을 끝으로 내년 1월15일 진해로 복항한다.

김윤미 기자



해군 순항훈련함이 지난 9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항구에 입항했다.

보조교사가 총기반입

메릴랜드의 한 공립고교에서 총기를 반입한 보조교사가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앤 아른펠 카운티 경찰국 발표에 의하면, 지난 6일(금) 오후 글렌버니 고교에서 한 보조교사가 가방에 총기를 반입한 사실이 확인돼 체포됐다.

이날 오후 2시10분경 3교시 수업이 끝난 후 4교시 수업이 시작됐으나 교단 한쪽 구석에 가방이 방치돼 있었다.

학교 당국은 가방 주인을 찾기 위해

가방을 열고 조사를 벌이던 중 권총이 발견됐으며 즉각 학교 전체를 폐쇄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보조교사로 일하던 데릭 안드레 심스(45세)가 총기를 반입한 것으로 드러나 즉각 체포됐다.

경찰당국은 불법무기 소지, 학교 시설물 내 무기 반입 등 모두 7가지 중범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불법무기 소지 혐의 한가지 만으로 최소 징역5년형에서 최대 15년형을 선고받게 된다. 용의자는 보석금 재판없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김옥제 기자

“한글야! 고마워!”

맥클린 한국학교 한글날 기념행사

맥클린 한국학교(교장 이은애)는 지난 7일 한글날을 맞아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훈민정음과 세종대왕을 기념하는 미술활동 시간과 훈민정음 28개의 글자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우리말과 글의 소중함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전교생이 모여 유치반은 자음을 오려 색칠해 “한글야 고마워!”라는 글자를 꾸몄으며, 초등반은 훈민정음이 들어간 바람개비를 만들었다. 중등반은 훈민정음을 서예로 쓰며 한글의 미와 위대함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한글날 맞이 ‘가나다’ 노래를 부르며 한글을 왜 소중한 여기고 지켜야 하는지를 되새겼다. 이은애 교장은 “올해도 훈민정음 반포 577돌을 맞아 학생들이 세종대왕의 애



한글날 기념 수업이 열린 맥클린한국학교.

민정신과 한글의 우수성을 배우고 체험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져 기쁘다”면서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한글이 절대적이므로 학생들이 자긍심을 갖고 아름다운 우리말과 글을 바로 사용하고 지키는 데 앞장서는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571-235-8997

메트로 실버라인 2차 구간 이용객 300만명 돌파

메트로 전철 실버라인 2차 구간 이용 승객이 300만명을 넘어섰다. 워싱턴지역 공항공사(MWAA)는 실버라인 메트로 선로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1마일, 메트로역을 모두 12개 신설했다.

이중 델레스공항역을 포함한 2차 구간 6개역은 작년 11월 15일 개통했다. 주정부는 실버라인 완공시 일일 1만 7900명에서 5만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5435명에 불과했다.

델레스 공항은 연간 2300만명이 이

용하지만 메트로 흡수율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델레스 공항 메트로역 일일 평균 이용자수는 1316명이었다.

주정부 측은 펜데믹으로 인한 대중교통 기피 현상과 메트로 전철역 주변 개발계획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이용실적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오미!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오미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1 최신행 의료시설 완비
- 2 최신행 X-Ray 완비
- 3 교정 및 물리치료
- 4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케어피플 홈헬스
한국인 간병사 서비스 (VA & MD) 간병사 교육

간병사 서비스 신청과 간병 교육 및 일자리를 당신의 셀폰 인터넷 CarePeople.net 으로 간편히 신청 가능합니다.

10/9 ~ 10/13 월-금 (매달 교육 수시 접수 중)
CarePeople.net으로 신청 또는 전화 주세요.
(571-297-4747)

VA& MD - 한인 간병사 서비스 신청 및 간병사 교육 및 취업 문의 가능합니다.

14631 센터빌 #401
애난데일 사랑방 4306 #104
애난데일 베트남 4312 #D 2층
게이더스버그 901 #150

센터빌 본사 571-297-4747
14631 Lee Highway, Suite #401 Centreville, VA 20121

애난데일 사랑방 571-297-4747
4306 Evergreen Lane, Unit #104 Annandale, VA 22003

애난데일 베트남 사무실 703-506-3333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메릴랜드 사무실 301-966-7000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월-금(M-F) 9am~5pm
24hrs on call
571-297-4747

“신천지, 한인 2세 집중 공략”

바이블백신센터 양형주 목사
애틀랜타 한인 교회서 강연

‘기독교 이단’ 예방에 앞장서는 바이블 백신센터의 원장 양형주 목사가 지난 5일 애틀랜타를 찾아 미주에 퍼진 한국발 이단 종교단체들의 활동을 경고하며 한인 교회가 지역 사회와 함께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애틀랜타교회협의회(회장 이문규 목사)는 복음화대회 3차 준비기도회를 개최하며 양형주 원장을 초청, ‘교묘한 미혹을 분별하라’라는 주제의 강연회를 열었다.

양 원장은 팬데믹 초기 당시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신천지가) 미국으로, 전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 사례를 들어 이들 단체가 미국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의 교회’ 정

식 명칭으로 세워진 교회를 구글에서 검색한 결과, 미 전국에 61곳이 있으며, 전국 신천지 신도는 2008년에 388명이었으나, 2019년도에는 4264명으로 집계되며 10년 사이 신도 수가 1100% 이상 증가했다.

신천지의 주요 선교 타깃은 한인 2세와 비한인들로, 이민 1세대들은 ‘이단’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공략하지 않는다. 이민 2세대들이 대학 캠퍼스 등지에서 서서히 포섭될 수 있다는 것이 양 원장의 설명이다.

양 원장은 ‘잘 모르는 단체’에 교회 장소를 제공하지 말고 정치권, 미국 교회 등과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주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양 원장은 “신천지임을 숨기고 가주의 모든 상원의원, 시장 등에 행사 초청 이메일을 보냈더라. 행사에 오면 사진을 찍고 언론에 홍보해 새로운 신도를 포섭한다”고 설명했다.

윤지아 기자

한국어 LA 주요 언어 됐다

LA한인타운 코헝가 초등학교
한국어 이중언어 교육 20년째

“송편을 제일 좋아해요.” “한국의 가장 큰 명절이에요.”

LA한인타운에 있는 2가와 호바트의 코헝가 초등학교 3층 복도. 교실 문을 스프르 열자 한국어로 발표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룹을 지어 책상에 앉아 추석에 대한 리서치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있는 학생들은 박원희 교사가 가르치고 있는 4학년 한국어 이중언어반 소속이다. 절반은 한인 2세대이지만 나머지는 라틴계, 필리핀계 등 타인종들이다.

한글 창제 577돌을 맞는 한글날을 맞아 지난 4일 방문한 코헝가 초등학교는 1992년 처음 한국어 이중언어반을 개설했다.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배우는 이중언어반의 수업 형식에 학부모들은 반신반의했지만 20년이 흐른 지금은 킨더가든부터 5학년까지 학년별로 한국어 이중언어반을 운영할 만큼 성장했다.

무엇보다 초창기엔 한인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타인종 학생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한국어의 위상은 높아졌다.

킨더가든부터 한국어를 배웠다는 매디 허난테즈(10)양은 3개 국어를 구사해야 한다는 엄마의 교육열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허난테즈 양은 “엄마가 LA에서 살면 한국어는 꼭 배



코헝가 초등학교 박원희(오른쪽 서 있는 이) 교사가 4학년 한국어 이중언어반 소속 학생들에게 한국어 동화책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워야 한다고 하면서 한국어 이중언어반에 등록했는데 너무 재미있고 좋다”고 말했다.

한인 2세 아빠와 일본계 엄마를 둔 리나 김(10)양은 “한국어를 배우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한국어로 말할 수 있어서 좋다”며 장점을 전했다.

박원희 교사는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려는 영어권 2세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 이들이 중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한국어를 계속 배울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코헝가 초교 졸업생으로, 4년 전 모교에 부임한 캐롤 박 교감은 “초창기 한국어 이중언어반을 시작한 학교로 지금의 변화가 자랑스럽다. 한류로 인해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걸 실감한다”고 전했다.

LA통합교육구(LAUSD)에 따르면

현재 11개 학교에서 한국어 이중언어반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은 1400명이다.

외국어 과목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중·고등학교를 포함하면 현재 남가주 지역에서 한국어 반이 운영되는 학교는 80개교이며, 332개 학급에서 8510명의 학생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이는 10년 전보다 150% 성장한 규모다.

LA한국교육원의 강전훈 원장은 “최근 정규학교의 한국어반 개설은 한류 열풍 속에 학생들의 강력한 희망과 요청, 학부모들의 지지 속에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한국어반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도록 교사 양성고 연수, 교재 개발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연화 기자

김효주 어센던트 대회 우승

LPGA 통산 6승 수확

김효주(사진)가 미 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시즌 첫 우승이자 통산 6승을 와이어투와이어 우승으로 장식했다.



으로 통산 5승 고지에 올랐지만 이후 준우승 두 번, 3위 네 번 등 좁체 통산 6번째 우승을 손에 넣지 못했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그린 적중률 1위를 앞세워 평균타수 1위를 달리면서도 우승 문턱을 넘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 하지만 이번 시즌 17번째 출전 대회에서 최정상급 기량을 마음껏 펼치면서 압도적인 경기를 이어간 김효주는 1라운드부터 마지막 날까지 선두를 지킨 끝에 우승했다.

김효주는 8일 텍사스주 더플로니의 월드 아메리칸 골프클럽(파71)에서 열린 LPGA투어 어센던트 LPGA(총상금 180만 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2언더파 69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3언더파 271타로 정상에 올랐다. 작년 4월 롯데 챔피언십 이후 1년 5개월 만에 LPGA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작년 롯데 챔피언십 우승

설탕값 13년 만에 최고치

세계 설탕 가격이 두 달 연속 상승하며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6일 AFP 통신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 9월 세계 설탕 가격지수가 162.7로 전월보다 9.8% 상승했다고 밝혔다. 가격지수는 2014~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두고 비교해 나타낸 수치다.

설탕 가격지수는 두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며 2010년 11월 이후 약 1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FAO는 설탕 가격 상승세가 향후 9~12개월 동안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 설탕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 설탕을 원료로 쓰는 빵, 과자, 아이스크림, 음료 등 가격이 따라 오르는 ‘슈거플레이션(설탕+인플레이션)’이 촉발될 수 있다.

설탕 가격이 뛰는 것은 엘니뇨에 따

른 가뭄으로 세계 최대 설탕 생산국인 태국과 인도 등의 생산량이 줄어 국제 설탕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FAO는 “엘니뇨에 따른 평년보다 건조한 기상 조건으로 인해 주요 설탕 생산국인 태국과 인도의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격에 반영됐다”며 “국제 원유 가격 상승도 세계 설탕 가격 상승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정혜정 기자

중앙일보 광고 및 구독 신청 : 703-281-9660

DARCARS

LEXUS OF SILVER SPRING




실버스프링 렉서스에서 최고의 딜을 만나십시오.

Huge Selection of New and Certified Pre-Owned Vehicles

SALES | 301-234-8525 SERVICE | 301-234-8583 PARTS | 301-235-1016

2505 Prosperity Terrace, Silver Spring, MD 20904

DARCARS.com



카운티 군수가 노바백스 홍보 논란

마크 얼릭 몽고메리 카운티 군수가 최근 공식적인 기자회견 자리에서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변이 백신을 홍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얼릭 군수는 “노바백스 백신은 모더나와 화이자의 mRNA 백신과 달리 전통적인 단백질 기반의 백신”이라며 “화이자 등의 백신이 공급 차질 현상을 빚고 있는데, 노바백스에게는 기회가 된다”고 밝혔다.

얼릭 군수는 이 자리에서 노바백스의 실비아 테일러 부회장을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노바백스는 최근 연방식품의약품(FDA)의 긴급사용승인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가승인 조치를 얻

노바백스 변이 백신
FDA-CDC 승인 얻어



어 조만간 일반 접종이 가능하다.

얼릭 군수가 공정성 훼손 염려에도 불구하고 노바백스 백신에 대해 언급한 이유는 노바백스 본사가 몽고메리 카운티 게이더스버그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노바백스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특

수를 누렸으나 백신 판매부진을 이유로 주가가 급락하며 존폐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코로나 종식으로 노바백스의 주가는 2021년 최고가와 비교하면 98%나 폭락하기도 했다.

노바백스 백신은 mRNA 백신에 불신을 가진 사람들의 대안으로 여겨졌으나 승인이 늦어지면서 주요 시장을 모더나와 화이자에게 빼앗겼으며 승인 후에는 백신 수요가 급감하면서 매출 부진에 시달려왔다.

노바백스 측은 변이백신의 경우 화이나나 모더나와 거의 같은 시기에 백신을 출시하면서 본격적인 경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대대적인 홍보전을 개시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한인 작가 영문 그림책 화제

진 류씨 '파워 온' 한국서 번역
빌게이츠재단 선정 필독 도서

좋아하는 사람에게 받은 '러브레터' 속 달콤한 구절이 인공지능(AI) 컴퓨터가 쓴 것이라면 어떤 기분일까.

한인 2세 교육자이자 작가가 AI 시대를 맞아 불공정한 컴퓨터 과학 기술로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 이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쓴 영문 그림책이 한국에서 번역해 출판되는 길을 걷는다.

한길사에서 발간한 그래픽노블 '파워 온: 평등하고 공정한 AI 시대를 위하여·사진'은 인공지능과 컴퓨터 과학에 녹아든 차별과 혐오에서 세상을 구하려는 청소년 네 명의 이야기다.

이 책의 공동저자인 진 J 류씨와 제인 마굴리스씨는 백인, 흑인, 아시안, 라틴계로 구성된 4명의 주인공 공 고등학생들의 학교생활과 우정을 통해 미국에 만연하고 있는 인종 및 성소수계 차별이나 이민자 차별과 역사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현대인의 삶을 바꾸고 있는 컴퓨터 과학과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고 지켜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책 곳곳에는 주요 이슈에 등장하는 미국의 역사적 인물이나 기념일 등을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해 미국 역사를 배우는 데 도움을 준다.

교육 연구자이자 작가인 저자인 류씨와 마굴리스씨는 실제로 만난 고등학생들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구성했다고 소개했다. 류씨는 현재 UCLA 컴퓨터 과학 형평성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있다.

마굴리스씨는 컴퓨터 과학 교육에 있어서 불평등과 인종차별을 끝내기 위해 오래전부터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백악관이 선정하는 '변화의 챔피언(Champion of Change)'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 책은 지난해 미국에서 영문으로 출판되자 미국의 대표적인 교육 재단 빌&멜린다게이츠재단의 멀린 다 게이츠 의장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라고 극찬했을 만큼 우수 도서로 인정받았다. 영문책은 아마존에서 한국어판은 에스24 또는 교보문고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한편 류씨는 모니카 류 한국어진흥재단 이사장의 둘째 딸이다.



정원하 기자

풀무원, 스타트업 '블루날루'와 업무협약

세포배양 해산물 사업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풀무원(오른쪽)과 블루날루 관계자들. (풀무원 제공)

풀무원은 세포배양 해산물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지난 5일 샌디에이고의 스타트업 '블루날루'와 파트너십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블루날루는 2018년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어류 세포를 배양해 해산물을 생산하는 연구를 지속해 왔다.

현재 참다랑어 등 여러 어종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고, 미국 시장에 상품을 출시하기 위한 인증을 준

비 중이다.

풀무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블루날루와 세포배양 해산물 시장 트렌드를 연구한다. 또 한국 시장에서 세포배양 해산물을 출시·판매하기 위한 전략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상윤 풀무원 기술원장은 "세포배양 해산물은 세계적인 해산물 공급 부족과 지구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푸드테크"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세포배양 해산물 혁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마존, 10·11일 '프라임 데이' 세일



아마존의 연례 할인 행사인 아마존 프라임 데이가 내일(10일) 시작된다.

아마존은 지난 7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대규모 할인 행사인 '아마존 프라임 빅 딜 데이'를 10~11일 양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지난해부터 구독형 멤버십인 아마존 프라임 고객을 대상으로 한 프라임 데이 이벤트를 각각 7월과 10월, 1년에 두 차례씩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 기간에는 아마존 자사 브랜드인 파이어 50인치 TV 최대 60% 할인 등 큰 폭의 할인을 예고하고 있다.

프라임 멤버는 업체 웹사이트에 접속해 카테고리별 알림을 설정하면 새로 공개되는 할인 및 가격 변동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소매업계에선 일반적으로 소비가 급증하는 할리데이 시즌인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기간보다 이르게 쇼핑 대목 시기를 앞당기는 추세다.

고물가 및 고금리 영향으로 할리데이 기간 소비자들의 소비가 줄어들 것

을 대비해 업체들이 이른 할인 전략을 내세운 것으로 분석된다.

다른 소매업체들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베스트바이는 아마존과 동일한 10~11일 세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월마트도 오늘(9일)부터 대규모 할인 행사인 '할리데이 킥오프'를 진행 중이다. 오는 12일까지 고객들은 가전, 가구, 의류 등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할리데이에 앞서 미리 구매할 목록을 작성하고 판매 업체에서의 가격 변동을 지속해서 확인하면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우훈식 기자

테슬라 모델 3·Y 가격 인하

모델 3는 1250달러 인하

Y는 2000달러 낮춰 판매



가격 인하가 발표된 테슬라 모델 Y와 3. (테슬라 제공)

테슬라가 3분기 판매 실적 저하로 모델 3 및 모델 Y의 가격을 인하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차량 납품량이 지난 2분기 대비 7% 감소한 43만5059대를 기록한 후 지난 6일 차량 가격 인하를 발표했다.

중형 세단 모델 3의 시작 가격은 기존 4만240달러에서 1250달러 낮아진 3만890달러로 인하됐다. 모델 3 롱레인지는 4만5990달러, 모델 3 퍼포먼스

는 5만990달러로 가격을 낮췄다.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모델 Y 퍼포먼스는 5만4490달러에서 2000달러 하락한 5만2490달러로 책정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소비자 지출 둔화로 인한 우려와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를 촉진하려는 노력이라 분석했다.

정하은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용자의 풀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라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책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Neuro Control **SC** **혜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냉·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AWARDED

Porcht, HomeAdvisor, BBB

LENNOX, Carrier, TRANE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before after

에어덕트 속 지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미, 러시아산 원유 제재 집행 강화”

위반 의혹 업체 조사중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출 제재의 집행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미 법무부는 대(對) 러시아 제재 준수와 관련해 주요 원유 거래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닛 옐런(사진) 재무장관은 9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산 원유 수출에 부과한 배럴당 60달러 가격 상한제의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우리가 가격 상한을 매우 진지하게 여기고 있음을 시장 참가자들에게 주시시키고 싶다”며 “서방(의 보합) 서비스를 적용받는 범위에서 가격 상한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다만, 옐런 장관은 구체적인 집행 강화 방식에 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미 당국은 이미 러시아산 원유 수출 제재의 준수와 관련



를 시작했다.

조사 대상에는 바레인과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원유 트레이딩 및 해운업체 ‘머천타일&매리타임 그룹’의 무르타자 라카니 최고경영자(CEO)가 포함된다고 WSJ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법무부는 라카니가 가격상한제를 어겨 러시아산 원유를 거래했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주요 7개국(G7), 유럽연합(EU), 호주 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액을 배럴당 60달러로 억제하는 제도를 지난해 12월부터 가동했다.

한 조사에 착수했다.

WSJ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주요 원유 거래업체에 대한 제재 준수 여부 조사를 시작했다.

노동시장 ‘여성 유리천장’ 규명 노벨경제학상에 클로디아 골딘

하버드 경제학과 첫 여성 종신교수 “남녀 간 임금격차 문제 여전” 소감 한국 저출산 문제에도 관심 깊어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미국의 여성 노동경제학자 클로디아 골딘(77·사진) 하버드대 교수가 선정됐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골딘 교수를 올 수상자로 발표하며 “여성의 노동시장 결과와 관련한 우리 이해를 진전시킨 공로”를 들었다. “골딘 교수가 노동 시장에서 성별 차이의 핵심 동인을 발견했다”며 “수 세기에 걸친 여성 소득과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포괄적 설명을 사상 처음으로 제공했다”면서다.

2009년 엘리노 오스토롬, 2019년 에스테르 뒤플로에 이어 세 번째 여성 경제학상 수상자다.

골딘 교수는 이후 AFP통신과의 통화에서 “나 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많은 것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남녀간 임금) 격차가 왜 큰지 이해하기 위해 애

쓰는 많은 이들을 위해 중요한 상”이라며 끈질긴 성별 격차가 여전히 문제라는 취지의 소감을 밝혔다.

골딘 교수는 1946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 코넬대에서 미생물학을 전공하고 시카고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 하버드대 경제학과 최초의 여성 종신 교수가 됐다. 2013년 전미경제학회장을 역임했다. 여성 경력과 가정의 역사를 비롯해 경구피임약이 여성 커리어와 결혼에 미친 영향, 여성 대학 진학률이 남성보다 높아진 이유 등을 연구했다.

지난 2021년 국내에 소개된 저서 『커리어 그리고 가정(Career and Family)』에서 그는 “더 많이 일한 사람이 더 많은 소득을 갖는 구조에서 여성은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 책임을, 남성은 경제적 부양을 택하면서 승진·임금 등에서 남녀 격차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골딘 교수는 성별 격차 등 여성노동 관련 문제에 대한 경제사학적·사회학적·제도적 의미를 반영해 깊이 있는 분석을 내놨다”며 “여성 노동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 해당 분야를 본격적으로 다룬 학자를 수상자로 선정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골딘 교수의 제자인 황지수 서울대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많은 학자가 여성의 노동 공급과 남녀 격차에 대해 말하지만 몇십년 전에는 골딘 교수가 개척자였다”며 “최근에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여성의 일과 가정 균형에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했다.

노벨상 시상식은 노벨 기일인 12월 10일이 낀 ‘노벨 주간’에 스웨덴 스톡홀름(생리학·물리·화학·문학·경제상)과 노르웨이 오슬로(평화상)에서 열린다. 수상자는 금메달과 상금 11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3억5000만원)를 받는다.

하남현·서지원 기자

쫓겨난 전 하원의장 권토중래?

“당이 원하면 뭐든 할 것”

하원에서 해임결의안이 통과되면서 하원의장직에서 물러난 케빈 매카시 의원(공화·사진)이 후임자 결정 과정이 파행할 경우 ‘재등판’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9일 정치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매카시 의원은 보수 성향 라디오 호스트 휴 휴이트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공화당이 신임 하원의장 선출에 어려움을 겪으면 다시 나설 것이냐는 질문을 받아 손사래를 치지 않았다.

매카시 의원은 “하원 공화당은 그 결정(후임 하원의장 선출)을 내려야 한다”며 “나는 여전히 의원이고 나는 계속 싸우고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해임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8명의 공화당 초강경파 의원들이 입장을 바꿀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후속 질문에는 “하원 공화당이 무엇을 원하든 나는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강해지고 우리는 단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해임을 주도한) 8명은 내 생각에 개인적인 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맷 게이츠 의원 등 8명의 당내 초강경파가 자신에 대한 사적 감정 때문에 해임에 찬성했다는 주장이었다.

하원은 오는 11일 신임 의장선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인데 의장 출마 의사를 밝힌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와 짐 조던 법사위원장 중 누구도 당선을 위한 과반표(218)를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적지 않은 미국 매체들의 예상이다.

“맨손으로 구조”...국제사회 관심 못받는 아프간 강진 피해

지난 7일(현지시간) 규모 6.3 강진이 발생한 아프가니스탄 서부 헤라트주 지진 발생 다음날인 8일 주도 헤라트 인근 지역의 남자 주민들은 건물 잔해에 파묻힌 사람들을 끄집어 내려고 맨손과 삽으로 파헤치고 있었다.

이번 지진으로 최소 2천명이 숨진 것으로 보이는 이 지역에는 마을들이 모두 파괴됐고 돌과 진흙 벽돌로 지은 주택들이 모두 붕괴해 사람들이 깔렸다.

작업중인 이들 주민 외에 다른 주민들은 삽조차 없어 그저 기다리고 있었다. 세 차례의 강한 여진이 이어진 이번 지진에 사망자 외에 1천여명이 다치고 주택 1천300여채가 무너졌다.

피해 마을 네 곳을 방문한 사진작가 오미드 하크주는 8일 AP통신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일부 사람들은 (충격에) 말을 할 수 없었고 일부 주민들은 통곡을 멈추지 못했다”고 전했다.

탈레반 정부 대변인은 이날 최소 2천명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사망자 수가 확인되면 이번 지진은 최근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최악의 지진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구호작업은 국제사회의 관심이 거의 없는 가운데 진행되는 실정이다.

최근 발생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전쟁’에 국제사회 관심이 집중돼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여기에다 2021년 8월 권력을 재장악한 탈레반 정부에 대한 원조에 국제사회가 그동안 거리를 뒀은 탓도 있다.

첫 지진 발생 후 약 36시간이 지났음에도 구호품을 싣고 아프가니스탄으로 날아든 비행기는 전무했다고 AP는 전했다. 아프간 원조기관이나 비정부기구들은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했다. 하지만 중국과 파키스탄 등 극소수 나라들



아프간 헤라트주 강진 사망자를 위한 무덤 파는 사람들

만 지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자오싱 아프간 주제 중국 대사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자국 정부와 구호기관들이 모든 종류의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오카다 다카시 아프간 주제 일본 대사는도 엑스 글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유니세프는 피해지역 기온이 밤에는 영상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점은 감안해 생수와 옷, 담요, 방수포 등 구호품 수천 점을 아프가니스탄에 보냈다.

아프간 크리켓 스타인 라시드 칸은 190만명의 엑스 팔로워에게 지진 생존자들을 돕기 위해 크리켓 월드컵대회 수익금을 기부하고 조만간 모금 캠페인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국제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지진의 피해규모가 엄청나다면서 국제사회의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부상자들도 열악한 의료 인프라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고 생존자들도 음식과 피신처, 식수 등이 부족해 위험에 처해있다고 구호단체들은 말했다.

메디케어 가입 및 플랜 변경

2023년 10월 15일 ~ 12월 7일 까지

- 만 65세가 되시는 분들
- 파트 A & B, C, D
-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 메디케어 (A & B) + 메디케이드



로리 문

703.895.7648

* 치과보험, 안과보험 등 받으실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받으세요.

무료 상담 & 신청



린다 리

443.515.8522

버지니아 (VA) 3949 Pender Dr. Suite 250 Fairfax, VA 22030

703.865.8788

메릴랜드 (MD)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410.995.8074

콜럼비아 칼리지

2023 Winter Session

OPEN HOUSE

개강 : 2023년 10월 30일

2023년 10월 12일 (목) ~ 10월 13일 (금)



● 전 학과 연방학비지원

- 치기공학과** VA, MD 주 지역 유일의 학교, 전문 치기공사 양성
- 요리학과** 일반 요리 + 베이킹 & 페스트리 아트, 최고의 교수진과 최상의 시설
- 미용학과** 미용사 자격증, 미용 교사 자격증 과정
- 치료마사지학과** 라이선스 시험 준비 반, 고소득 전문 마사지 치료사 양성
- 경영학과** **컴퓨터과** **조기영어교육과** **비즈니스영어과**
- 직업영어 VESL** FAFSA 학비 무상 지원 가능 / In- Person (대면수업) / Placement test 결과에 따라 반 편성 (6 Levels)
- Online VESL** FAFSA 학비 무상지원 가능 / 학습용 LAPTOP 제공 / 실시간 화상 영어 수업 포함

'현재 졸업생 100% 취업'
STUDENT SERVICE



- 본교 ESL 프로그램 CEA (연방 ESL인증기관) 승인
- 본교 ESL 프로그램 I-20 (F1비자) 발행
- 본교 ESL 프로그램 1999년 부터 운영

www.ccdc.edu
f Instagram YouTube

- ✓ **Financial Aid (FAFSA)** is available for those who qualify
- ✓ 장학금 프로모션 : Vocational ESL, 미용학과 대상
- ✓ 유학생(F1) & 인턴십(J1) 상담 환영
- ✓ **오픈 하우스 방문 시 스쿨투어 및 기념품 제공**

* **Open House RSVP**
Scan to Join Us!

FINANCIAL AID IS AVAILABLE TO THOSE WHO QUALIFY
FAFSA - 소득에 따른 연방 교육부 학비 무상 제공
GI Bill [Veterans], TA[국방성 프로그램] 학비 무상 제공

연방 교육법에 따라 Council on Occupational Education(COE)로 부터 승인
Commission on English Language Program Accreditation(CEA)로 부터 승인
State Council of Higher Education for Virginia(SCHEV)로 부터 승인
NC-SARA, VA-SARA Online강의 승인

유학생(F-1), 인턴십(J-1) 환영
본교는 연방 법률에 따라 외국인 학생을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전력 열세인 하마스, 인질 '인간방패'로 장기전 노린다

외신·전문가들이 보는 향후 전망

친이단 성향의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미국은 8일(현지시간) 항공모함 전단을 동지중해에 급파했다.

이스라엘은 같은 날 전쟁을 선포하면서 '중동의 화약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가 주변국으로 확대될 조짐마저 보인다.

①미국·이란 대리전 확대 가능성=중동 전문가인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는 9일 중앙일보에 "미국의 항모 파견은 하마스가 아닌 배후의 이란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오히려 확전을 막고 상황 관리를 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고 해석했다. 박 교수는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선 공화당 대선 주자들의 비판을 의식하는 등 자국민을 겨냥한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쟁의 향후 전망과 관련해 성일광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은 "이스라엘이 워낙 압도적 화력을 갖고 있어 군사적 충돌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지만, 하마스가 민간인 인질을 잡고 있어 상황을 오래 끌고 갈 수 있다"고 짚었다.

하마스는 현재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한 민간인, 군 장교 등 100명이 넘는 인질을 억류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하마스가 2006년 단 한 명의 이스라엘 군인을 포로로 잡아 5년 넘게 협상한 끝에 1000명 넘는 팔레스타인 포로와 맞교환한 전례가 있다"고 전했다.



1 이스라엘 군인들이 9일 남부 가자지구 장벽 인근에서 팔레스타인 미사일을 피해 엎드리고 있다.



2 동지중해로 향하는 미국 핵항모 제럴드 포드함.



3 7일 네게브사막에서 열린 노바 음악축제에서 총격을 피해 뛰는 참가자들.

②이스라엘 '피의 보복' 수위=역대 가장 '우클릭'한 베냐민 네타냐후 연립 정부는 분기점에 섰다. 극우파가 목소리를 얻으면 팔레스타인 정책이 더욱 강경해질 수 있다. 이번 기회를 군과 모사드 내 반(反)네타냐후 세력을 제거하는 기회로 여길 수도 있다. 반면에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와 베니 간츠 전 국방부 장관 등 온건 성향의 야당 지도자들은 네타냐후를 향해 "비상정부 구성에 동참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만약 네타냐후 총리가 이 제안을 수락하면 정책이 극단으로 치닫는 걸 막을 수 있다.

인남식 국립외교원 중동센터장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팔레스타인 대중의 지지가 자치정부에서 무장 정파인 하마스 로 옮겨가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극우로 치달아 '두 국가 해법'(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공존 해법)은 없다고 선언하면서 양 극단이 적대적으로 공존하는 사태"라고 우려했다.

박현도 교수는 "네타냐후 총리가 극우 연정이 무너졌을 때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한다면 온건 야당과 협력하기도 쉽지 않다"면서 "결국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네타냐후 총리가 있다. 사욕을 앞세운 지도자가 국가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꼬집었다.

③손 묶인 사우디의 행보=미국의 중재하에 이스라엘과 수교 협상을 진행 중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등을 종합하면 사우디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아버지 살만 국왕과 달리 팔레스타인 문제를 실리적으로 접근한다. 성 위원은 "이슬람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가 갖는 입지가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사우디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을 지지할 수는 없다"면서 "당분간 시간을 두고 이스라엘에 접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 교수는 "하마스나 전쟁하는 와

중에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수교를 강행하면 사우디 대중들은 1979년 이스라엘과 수교한 이집트의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떠올릴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집트는 미국의 중재로 아랍 국가들 가운데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수교했지만, 이집트 강경파들은 이를 '굴욕 외교'로 치부했다. 협정을 주도했던 안와르 사다트 전 이집트 대통령은 결국 피살됐다.

④개입설 부인한 이란=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일 이란이 하마스의 기습작전을 사전에 승인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반면에 이란은 즉각 유엔 대표부를 통해 관여설을 공식 부인했다. 실제 이란이 이번 일을 배후에서 지휘했다면 핵합의(JCPOA) 위반과 관련한 미국의 고강도 제재를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불사했다는 얘기가 된다. 박 교수는 "가시적으로 얻을 게 없는 상황에서 이란이 먼저 계획했

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란은 하마스에 의해 이스라엘의 국내 방어선이 뚫렸다는 것만으로도 흡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⑤스텝 꼬인 바이든의 대중동 외교=바이든 정부의 이스라엘-사우디 중재 외교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NYT는 디 체니 전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 존 해나를 인용해 "개가 짊어도 캐러벤은 간다"며 대세에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반면에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현실적으로 휴면 상태가 됐고, 언제 재개될지도 모른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도 '일시 멈춤'에 대해선 대체로 동의했다. 성 위원은 "잠시 멈출 수는 있어도 빈살만은 사우디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만큼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 교수는 "진전 여부는 전적으로 이스라엘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두 딸 납치 장면이 절규한 모정”...SNS 영상 봇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민간인을 잔혹하게 살상하고 납치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

고 있다. 하마스 무장단체 이슬라믹지하드 등에 의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끌려간 사람의 수도 13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질에는 민간인 여성은 물론 노인과 어린이까지 다수 포함됐다. 사태 발발 후 사랑하는 이들과 연락이 끊겨 발을 구르던 사람 중 일부는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납치 영상에서 가족의 모습을 발견하는 악몽 같은 상황을 겪기도 했다.

8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가자지구와 인접한 이스라엘 남부 나할

오즈키부츠에 전 남편과 두 딸이 있었던 여성 마이안 진은 인터넷에 올려진 동영상으로 이들이 하마스에 붙들린 사실을 확인했다.

이 영상에는 하마스 무장대원이 다리에서 피를 흘리는 전 남편과 흐느끼는 15살 딸 딸 다프나, 8살 막내 엘라에게 말을 거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후 찾아낸 또다른 영상에는 이들이 국경을 넘어 가자지구로 끌려가는 장면이 있었다. 진은 "그저 내 딸들을 집으로, 가족들에게 보내달라"고 애원했다.

이스라엘 주민 모세 오르 역시 현지 매체인 채널12 방송 인터뷰에서 소셜미디어로 공유된 사진에서 울부짖는 여자 친구와 함께 가자지구로 끌려가는 형제의 모습을 봤다면서 분노를 토했다.



이스라엘 남부 음악축제장 인근에서 납치되는 이스라엘 여성

이 밖에도 거리에 널린 시신과 곳곳에 붉은색으로 그려진 하마스의 슬로건이 찍힌 사진과 동영상 등 당시 주민들이 목도했을 참상을 보여주는 수많은 자료가 소셜미디어를 메우고 있다. 흐릿하게 처리된 한 영상은 어린이가

가 포함된 이스라엘인 일가족을 인질로 삼은 뒤 거실에 모아놓고 "당신들을 죽이지 않겠다"며 서툰 영어로 소리치는 모습을 담았다.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나이가 지긋한 여성 노인을 골프카트에 태운 채 환호를 받으며 가자지구를 행진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있었다. 손이 묶인 민간인 다수가 픽업트럭 뒤편에 뺨뺨이 태워진 채 끌려가는 모습이나, 미라처럼 전신이 하얀 천으로 감싸져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누군가가 차량으로 운반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스라엘 주요 언론도 관련 자료로 도배된 모양새다.

채널12는 하마스 무장대원들의 습격을 받은 이스라엘 남부지역 주민들의 신고전화 녹음본을 그대로 방송했다.

인질로 삼은 민간인을 찾으려는 무장대원들이 집집을 뒤지며 다가오는

가운데 전화를 건 한 신고자는 "그들이 내는 소리가 들린다. 그들은 창문으로 침입하고 있고 우릴 도울 사람은 누구도 없다"고 말했다.

두 살 아이와 함께 안전실에 숨은 채 무장대원과 대치하던 한 여성은 "제발 도움을 보내달라"고 애원했다. 친척에게 전화를 건 또 다른 주민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널 사랑한다. 널 사랑해"라며 되뇌었다.

하마스의 공격 이후 실종된 독일 여성 사니 룩(22)으로 추정되는 나체의 여성을 집간에 실은 하마스 트럭이 가자지구를 행진하는 충격적 모습이 담긴 영상도 나왔다.

주변에 모여든 하마스 관계자들과 일부 주민은 축제라도 열린 양 환호성을 울렸다. 어린 소녀에게 자동소총을 들려 목발을 태우는 모습을 보인 이들도 있었다.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과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어 치과의사상 수상

“**염증없는 잇몸,** 건강한 치아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www.naturadent.net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김원근 변호사

유언상속·이혼

- Probate·상속재산 정리절차·한국의 유산상속분쟁
- 트러스트·유언·위임장 Power of Appointment·취소 가능 트러스트·취소 불가능 트러스트
- 합의 이혼·재판 이혼·한국관련 국제이혼 재산분할·자녀 양육권·양육비 생활비 청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996년부터 27년간 원칙있는 진료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허리 통증
- 목이 뻣뻣한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Office Hours by Appointment

다시 한번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선 21세기의 한국

개인과 조직, 국가의 생멸 알아
과학도 아직 다 못 풀 생사 문제

자세 교정 전문가가 나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선생님이 누워 있는 건 누워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누워 있는 게 아니라 몸을 널어놓은 거예요.” 제대로 누는 자세는 힘을 뺀 대로 빼서 온몸을 내팽개쳐버리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였다.

그렇군. 나는 침대에 널브러져 있기를 좋아할 뿐 누워 있기를 좋아하는 건 아니었군. 하긴, 눈 감는다고 다 자는 게 아니고, 입에 넣는다고 다 먹는 게 아니고, 말한다고 다 대화 아니고, 비난이 곧 비판인 것도 아니고, 아침이 곧 존경인 것도 아니고,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니고, 죽는다고 다 죽는 게 아니겠지.

“사는 것처럼 살고 싶다” 소망

산다는 건 무엇인가. 숨을 쉬고 있으면 다 사는 것인가. 어디까지가 살아 있는 상태인가.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다. 심장이 뛰고 있으면 사는 것인가. 뇌가 작동하면 사는 것인가. 생존하고 있으면 사는 것인가.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있지 않은가. 많은 사람이 열악한 요양 시설에서 누워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들은 생명을 경시하는 게 아니다. 한갓 생존에 불과한 삶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살면서 다들 한 번씩은 중얼거려보았을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사는 것처럼 살고 싶다”라는 말에서, 인간은 단순한 생명 유지 이상을 바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깃덩이 이상의 삶, 의지대로 사는 삶, 보람 있는 삶, 충만한 삶, 그리하여 살만한 삶을 원한다.

“죽는다”는 건 무엇인가. 숨을 쉬지 않으면 다 죽는 것인가. 어디부터가 죽은 상태인가. 과학자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다. 심장이 멈추면 죽은 것인가. 뇌가 작동을 멈추면 죽은 것인가. 생체반응만이 죽음을 결정하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심장만 뛰고 있으면 그것은 정령 죽은 게 아닌가. 누군가는 말짱히 살아 있는데도 죽은 것과 다름없다는 판정을 받기도 한다.

그의 ‘정치 생명’은 죽었다는 판정을 받기도 한다. 아직도 아름다운 어떤 이는 자신의 젊고 아름답던 사진을 보여주며 쓸쓸하게 말했다. “이 사람은 죽었어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 건가. 꼭 그런 것도 아니다. 생명복제 기술을 통해 거듭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

다. 자기 육신은 죽어도 자기 유전자는 자식을 통해 계속 살아간다고 믿는 사람도 있다. 개체로서 죽지만 그것은 인간이라는 종(種)의 연속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육신은 죽었지만 정신은 살아 있다고 외치는 사람도 있다.

“겉쟁이는 여러 번 죽는다”

육신은 살아 있지만 영혼은 죽었다고 믿는 사람도 있다. 셰익스피어는 『줄리어스 시저』에서 말한다. “겉쟁이는 여러 번 죽지만, 용기 있는 사람은 단 한 번 죽는다.” 비굴해질 때 죽는다. 신조를 꺾을 때 죽는다. 정체성을 배반할 때 죽는다. 인간 이하의 짓을 저지를 때 죽는다. 영혼은 시시각각으로 죽는다. 웹툰 『겨울의 글쓰기』에서 주인공은 나직하게 중얼거린다. “죽지 않아도 죽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어. 삶은 죽음 이외의 방식으로 끝장날 수 있거든.”

그렇다. 죽음 이외의 방식으로 삶이 끝장나는 경우가 있다. 지켜온 가치가 사라졌을 때, 그리하여 그가 더 이상 ‘그’가 아닐 때, 사람들은 말한다. 내가 아는 그는 죽었다고, 자신이 지켜온 가치를 버리고자 할 때 자신을 믿어주던 이들에게 말할 수 있다. “당신이 아는 아무개는 죽었습니다.” 누군가 태연히 당신의 죽음을 선언하기도 한다. “내가 아는 아무개는 이제 이 세상에 없어요”라며 애인이 당신을 떠난다.

“당신이 알던 나라는 죽었습니다”

이것이 어디 인간만의 일이겠는가. 조직이나 공동체에 대해서도 생멸을

말할 수 있다. 이름만 학교일 뿐 우리가 알던 그 학교이기를 멈추었을 때 말할 수 있다. “당신이 아는 그 학교는 죽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변화와 성장을 도모하던 곳이 그저 졸업장을 주고받는 곳, 돈만 소비하는 곳, 소외를 일삼는 곳, 혐오를 일삼는 곳, 존재를 부정하는 곳, 장소 아닌 ‘비(非)장소’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여전히 학교라고 부를 수 있을까. 아무리 돈이 넘쳐나고 경쟁률이 높아도 그곳을 살아 있는 학교라고 부를 수 있을까. “당신이 알던 학교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것이 어디 학교만의 일이겠는가. 나라에 대해서도 죽음을 말할 수 있다. 이름만 나라일 뿐, 사람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곳, 비참이 창궐하는 곳, 장애인을 무시하는 곳, 동료 시민을 악마화하는 곳, 사람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곳. 나라의 탈을 썼을 뿐 나라 같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여전히 나라라고 부를 수 있을까. 아무리 경제 성장을 하고 주가가 올라도 그곳을 살만한 나라 혹은 살아 있는 나라라고 부를 수 있을까. “당신이 알던 나라는 이미 죽었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오랑캐’가 조선을 침략했을 때 척화(斥和)논쟁이 벌어졌다. 충신이 읍소한다. 폐하, 저토록 강한 오랑캐에게 저항하다가가는 나라가 망해 없어질 것입니다! 다른 충신이 읍소한다. 오랑캐에게 투항하는 것이야말로 나라가 망하는 일입니다! 상국(上國)으로 모시던 명나라를 버리고 오랑캐를 받드는 일이야말로 나라가 망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이는 조선이 물리적 승패를 떠나 지켜야 할 목적이 있는 공동체라고 믿었던 것이다. 물리적 생존이 위협받는 시점에서 그들은 딜레마에 봉착한다. 영혼을 죽이고 물리적 생존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물리적으로 죽더라도 영혼을 살릴 것인가.

죽더라도 영혼을 살리겠다고, 그 무슨 사치스러운 말인가. 그러나 영혼이 살아 있어야 부활을 꿈꿀 수 있다고 본 사람들도 있다. 그래야 죽어도 죽지 않을 수 있다고, 망해도 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믿었던 이들이 있다. 독립운동가 한용운은 노래한다. ‘아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시다.’

“마음의 죽음보다 슬픈 것 없다”

독립운동가 신규식은 1912년 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한다. “마음의 죽음보다 더 큰 슬픈 것은 없다. 망국(亡國)의 원인은 마음이 죽은 데 있다. (...) 우리 마음이 곧 대한의 혼이다. 모두 함께 대한의 혼을 보배로 삼아 소멸되지 않게 해야 한다. 각자 마음을 구해 죽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규식에 따르면, 진정한 죽음은 물리적인 죽음이 아니라 마음의 죽음이다. 마음을 잃어버린 자, 그는 과연 살아 있는 건가. 추구하던 가치를 잃어버린 자, 그는 과연 살아 있는 건가. 그런 사람은 초인이거나 짐승일 것이다. 기억을 잃어버린 자, 그는 살아 있는 건가. 과거의 기억을 모두 잃은 사람은 살아 있어도 과거의 ‘그’가 살아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과거가 지워진 사람이 어

떻게 같은 사람이겠는가.

정치 공동체도 마찬가지다. 수호할 만한 공적 가치를 잃어버린 공동체, 문명의 기록이 다 사라진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 있을 수 있겠는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수장고가 파괴될 때, 시인 팔라다스는 이렇게 노래했다. ‘삶은 그저 꿈. 우리가 목숨을 부지해도, 우리가 수호해 온 삶의 방식은 죽어버리겠지.’

21세기 한국은 살아 있는가, 죽어 있는가. 신규식이 다시 살아온다면 깜짝 놀랄 정도로 한국은 살아 있다. 그냥 살아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잘 살아 있다. 한때 이곳을 식민지로 삼았던 일본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경제가 발전했다. 21세기 초는 한국이 역사상 가장 잘 ‘살게’ 된 시대다. 그뿐이라. 한국 문화가 역사상 가장 빨리 그리고 널리 퍼져나간 시대다. 세계 곳곳에서 많은 젊은이가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배우겠다고 선택하는 시대다.

인구감소와 기후위기 경고장

동시에 한국이 죽어가는 시대이기도 하다. 과감하게 선진국을 선언하는 바로 그 시대에 파국의 서사들이 함께한다.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다.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을 정도로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다. 인구 감소를 막고자 하는 정책은 모두 실패하고 있다.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나라의 경제가 성장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에서는 학교도 줄어든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어디 국내 사정뿐이라. 지구의 기후 위기가 임계점을 돌파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냄비 속에서 천천히 삶아지는 개구리 처럼 말하곤 한다. 점점 따뜻해지는군.

그렇다면 한국은 기후 위기로 인해 바다에 잠기거나, 인구 감소로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거란 말인가. 꼭 그렇지 않다. 파국의 아이러니는 파국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온다는 데 있다. 아포칼립스 장르물에서, 파국이 체이르기도 전에 사람들은 앞다투어 먼저 죽는다.

파국을 예감하면 사람들은 공포에 질리기 시작하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인간성을 버리기 시작한다. 인간보다 인간성이 먼저 죽는다. 친절을 버리고, 위선을 버리고, 염치를 버리고, 돌봄을 버리고, 연민을 버리고, 관용을 버리고, 예의를 버리고, 인권을 버리고, 끝내 지켜야 할 가치를 쓰레기처럼 버린다. 바로 그렇게 삶은 죽음 이외의 방식으로 끝장날 수 있다.

김영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좌골 신경통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어깨, 무릎 통증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가)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약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10월 HOT 리스팅

임대주택관리/Top Property Management

세입자와 분쟁
이제 골치아픈 주택관리는 전문 매니지먼트회사에 맡겨주세요! 귀한 자산을 확실하게 관리해 드립니다!!

꼭, 약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과 상의해 주십시오!!

전화 문자 703-231-5572

비키리 브로커

페어팩스 타운홈
방 4 + 화장실 3.5
2020년
코스모 부근 새 타운홈
\$890,000

센터빌 타운홈
방 3 + 화 3.5, 차고1
1640sqft
넓은 타운홈, 울수리
\$600,000

센터빌 싱글홈
방 5 + 화장실 2.5
2575sqft, 1983년
차고 2, 울수리된 집
\$675,000

싸우스라이딩 타운홈
방 4 + 화장실 3.5
2283sqft, 2004년
차고 3
\$665,000

스프링필드 타운홈
방 3 + 화장실 2.2
1522sqft, 1989년
집 전체 마루
\$630,000

스프링필드 타운홈
방 4 + 화장실 3.1
1702sqft, 1986년
넓은 엔드 유닛
\$650,000

버지니아 / 703-863-0321

11350 Random Hills Rd., #870
Fairfax, VA 22030

베를린 / 301-399-0140

6701 Democracy Blvd, #300
Bethesda, MD 20817

D.C. / 301-399-0140

13001 I St, NW #400E
Washington DC 20005

“탄핵 직전 김종인이 면담 요청” 왜 만났을까

‘박근혜 회고록’ 더중플 연재 4화부터 본격 정치비화 공개

2011년 서울시장 보선 패배 등 위기의 당 구하는 얘기도 밝혀

2012년 12월 4일 18대 대통령선거를 보름 앞두고 TV로 생중계된 대선 후보 토론회. 당시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바라보며 “(출마 이유는)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라고 쏘아붙였다. 당시 미소를 지으며 대꾸하지 않았던 박근혜 후보는 어떤 생각이었을까. 지난 4일부터 ‘더중앙플러스(The



2012년 10월 29일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타운홀 미팅 간담회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왼쪽)이 대화하고 있다. [중앙포토]

JoongAng Plus)에서 연재 중인 박근혜 회고록이 대일 외교 분야를 마치고, 9일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정치 분

야를 다루기 시작했다. 이번 주엔 박 전 대통령이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와 디도스 사건

등으로 위기에 빠진 새누리당을 구하기 위해 당 비대위원장으로 나서게 된 순간부터 이준석·김종인 비대위원 영입,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까지의 얘기가 다뤄진다. 대선 때 경쟁상대였던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 대해 느꼈던 인상, 최대 변수였던 ‘안철수 돌풍’에 대한 평가 등도 피력했다.

특히 2012년 대선에서 최대 화두 중 하나였던 경제민주화 공약을 주도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의 만남과 결별에 대해서도 상세히 구술했다. 경제민주화는 당시 박근혜 후보 측의 간판 공약으로 평가되며 주목을 받았으나 정작 김 전 위원장과 박 전 대통령은 대선 승리 후 정치적으로 결별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탄핵되기 직전 김 전 위원장이 만남을 요청해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당시 김 전 위원장이 면담을 원한 이유가 뭐였을까.

한편 2004년 8월 박 전 대통령이 “아버지 대신 사과드린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예방했던 일화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전했다. ‘더중앙플러스’에서 연재 중인 김대중 회고록에서도 김 전 대통령이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았다”고 회고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사과의 배경이 됐던 1973년 김대중 납치사건 보도 당일 청와대에서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에 대해 나눴던 대화도 생생히 회고했다. **유성운 기자**

국감장 기업인 증인 100명 육박... ‘9시간 대기 3분 발언’ 또 나오나

오늘부터 내달 8일까지 국정감사 ‘센 사람 불러놓고 보자’ 채택 많아

2023년 국회 국정감사가 10일부터 막을 올린다. 17개 국회 상임위원회는 11월 8일까지 30일간 대통령실(11월 7일)을 포함한 791개 부처·공공기관·공기업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예산·입법과 관련된 산업·경제·문화·과학·방송 등 민간 영역도 함께 감사한다. 이를 위해 여야는 9일 현재까지 일반증인·참고인 285명에 대해 출석을 통보했다.

중앙일보가 이날까지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된 10개 상임위를 분석한 결과, 일반증인 171명 가운데 현직 총수나 임원급 기업인이 95명으로 전체 증인의 55.6%에 달했다. 아직 증인을 확정하지 않은 나머지 7개 상임위를 고려하면 기업인 증인은 지난해 144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감장에 불러 나오는 기업인은 2020년 63명, 2021년 92명, 2022년 144명으로 증가 추세다. 증인 채택은 각 상임위에서 개별 의원이 신청한다.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하지만 “일단 센 사람을 불러놓고 보자”는 심리가 강해 기업 총수나 대표를 무작정 증인으로 채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노동·환경 이슈를 다루는 상임위일수록 기업인 증인이 많았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30명을 소환한다. 중대재해 방지책을 묻기 위해 이강섭 사니 대표, 조민수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 등을 12일 고용노동부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노위는 26일엔 구창근 CJ ENM 대표를 불러 대규모 구조조정과 퇴직 중용 의혹을 캐묻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엔 19명의 기업인 증인이 나온다. 정몽규 HDC 회장에게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을, 김준기 DB하이텍 회장에게는 지주사의 규제 회피 의혹을 질의한다.

정무위는 당초 주요 5대 금융지주 회장, 4대 그룹(삼성·SK·현대차·LG) 총수도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지만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

건설사 대표이사(CEO)를 단골로 불러왔던 국토교통위는 현재까지 인천 김 단신도시 아파트 부실 시공 의혹과 관련해 임병용 GS건설 부회장 1명만 증인으로 소환했다.

신 야당이 공세를 집중하고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선 국토부 공무원, 양평군 공무원, 타당성조사 용역회사 관계자, 전문가 등 10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9명을 부른다. 특히 함윤식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부사장을 불러 배달 수수료율 인상 문제를 캐물을 예정이다. 교육위원회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 회장은 올해 태풍 카눈 북상 당시 해외에서 사외이사과 골프를 쳐 부정적탐금 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모금을 둘러싼 목적으로 4대 그룹 중 3개 사(삼성·SK·현대차) 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야당은

올해 국감증인 채택된 주요 기업인 ※9일 기준 자료: 국회 사무처

| 이름 | 직위 | 상임위 | 사유 | 이름 | 직위 | 상임위 | 사유 |
|-----|-----------|-----|--------|-----|------------|-----|--------|
| 정몽규 | HDC 회장 | 정무위 | 하도급 갑질 | 이국환 | 우아한형제들 대표 | 한노위 | 라이더 처우 |
| 김준기 | DB하이텍 회장 | 정무위 | 규제회피 | 이태우 | SME이케이칼 대표 | 산자위 | 중소기업피해 |
| 구창근 | CJ ENM 대표 | 한노위 | 근로자 처우 | 최정우 | 포스코 회장 | 교육위 | 사적골프 |
| 최윤 | OK금융그룹 회장 | 한노위 | 근로자 처우 | 현신규 | LG CNS 대표 | 복지위 | 국책사업실패 |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 국감 자료가 놓여 있다. 올해 국감은 791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달 8일까지 열린다. [연합뉴스]

농해수위의 12일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수산물 검역 체계 등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질의에 화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당후루 전문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김소향 달콤나라엘리스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청소년 건강권 문제를 따져 묻는다.

그러나 “증거 수집과 현안 대책 마련”이라는 증인 채택의 원래 취지와 달리 여야가 호통과 고향을 치는 등 정치 공세를 위해 ‘증인 별세’가 반복한

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혜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총책임자(GIO)는 당일 오후 2시부터 11시40분까지 9시간 넘게 자리를 지켰지만, 발언 시간은 모두 합쳐 3분에 그쳤다. 여야 의원이 돌아가며 “서비스 장애 재발 방지책을 밝혀라”라고 몰아세우면, 이 GIO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답변을 반복할 뿐이었다. 이종천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

책을 위한 자문 목적이 아니라면 국회에서 사기업 관계자를 부르는 것은 과한 처사”며 “특히 일부 국회의원이 기업 총수를 불러 혼내는 건 내가 이만큼 힘이 있다는 걸 과시하려는, 일종의 ‘완장질’”이라고 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과방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된 데 이어 올해는 복지위 증인으로 채택됐다. 네이버에서 개인의료정보가 유출된 사안을 따져 물겠다는 게 복지위 계획이다. 산자위는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 대표를, 농해수위는 김정우 네이버 쇼핑 이사를 증인으로 소환해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가짜상품 유통이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상품 유통에 대해 묻는다. 당초 산자위는 카카오 Vx의 문태식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9일 현재는 철회한 상태다. 하지만 현재 과방위가 증인 명단을 논의하고 있어 포털업계 관계자는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포털업계 관계자가 대거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은 최근 벌어진 여러 논란에서 비롯됐다. 네이버는 2021년 폐지한 ‘실감’(실시간 검색 서비스)을 부활시키려다 여론조작 논란을 빚자 일단 도입을 미뤘다. 검색광고 등으로 수익사업은 늘려가는 반면, 포털 내에 가짜뉴스가 퍼지는 것에는 미온적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또 다음은 최근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중전 온라인 응원전에서 중국 응원단이 더 많이 나와 조작 논란에 휩싸였다. **김효성·김대영 기자**

Woo's Auto Repair Service
자동차 정비

MUFFLER TUNE UP BRAKE BODY GLASS

엘리컷 BP가스 자동차 정비

신용과 친절로 최선을 다하는 엘리컷 전문 자동차 정비업소입니다.

서비스

- 스모그 체크
- 엔진 Diagnostics / 엔진튜닝
- ABS & Break 서비스
- A/C 서비스
- 컴퓨터 진단
- 머플러 / 타이어 및 휠 어라이먼트
- 타이밍 벨트 / Water Pump
- 익스프레스 오일체인지
- 트랜스미션 / 엑셀샤프트
- 자동차 바디 및 글래스
- 라지에이터

T. 410-313-8039 c.443-831-6530

8720 Baltimore Nat'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www.woosauto.com | yeonsikwoo@gmail.com

보험 에이전트 모십니다.

유니티 보험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보험/재정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유니티의 강점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유니티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888-756-7549

33년 경찰 경력 내세워 “안심구청장 누구입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9일 서울 발산역 인근에서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교훈 민주당 후보 정치 입문 한달, 사전투표 자신감

“안심구청장, 진짜 일꾼 누구입니까?”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사흘 남겨둔 지난 8일 오후 2시,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등촌사거리에서 유세 차량에 올라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강서를 반드시 만들겠다”면서 이렇게 외쳤다.

진 후보는 경찰청 차장 출신으로서의 자신의 강점으로 치안 행정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그는 “19년 강서 사람, 33년 행정 전문가”를 내세우며 민심을 파고들었다. 유세 차량에선 “짜다 같아엎어 주세요. 기호 1번 진교훈”이라는 가사의 트로트 노래가 흘러나왔다. 진 후보 캠프의 관계자들은 “차가에는 고속도로, 국민에게만 핵 오염수” “구민 혈세 40억! 선거비용 책임져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번 뽑아요. 진교훈, 진교훈, 진교훈”을 외쳤다. 정권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운 민주당의 선거운동 기조가 현장에서 이어졌다.

지난달 4일 전략공천을 받은 진 후보는 정치에 입문한 지 겨우 한 달 남짓이다. 그러나 진 후보는 보궐선거 결과에 자신감을 감추지 않았다. 오전 6시30분 등촌3동 성당에서 기자와 만난 진 후보는 “인지도가 약점 아니냐”는 질문에 “완전히 극복됐다. 돌아다녀 보면 확실히 달라진 걸 느낀다”고 말했다. 성당에 들어갈 때는 감색 정장을 입었던 진 후보였지만 미사를 마친 뒤엔 곧바로 ‘1번’이 새겨진 전투복으로 갈아입었다.

다음 행선지로 발걸음을 바쁘게 옮기던 진 후보는 지난 6·7일 이틀간 치러진 사전투표에 대해 “김태우 후보 재공천을 비롯해 국민의힘

에 대해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한 분들이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한 것 같다. 22.65%라는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를 신망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오후 7시30분, 진 후보는 까치산역 앞에서 유세를 진행했다. 그는 운동화까지 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으로 갈아신었다. 민주당 강선우(서울 강서갑) 의원이 진 후보 옆에서 “11일은 1번 찍는 날입니다”라며 목청을 높였다. 진성준(서울 강서을)·한정애(서울 강서병) 의원까지 강서구 현직 국회의원 3명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세 의원이 도보 유세에 나서자 “교훈이 행” “선우 누나” 연호가 곳곳에서 쏟아졌다.

진 후보는 보이는 음식점마다 거침없이 들어가 인사했다. 삼겹살 식당에선 “(소주) 한 잔만 달라”며 손님들과 술잔을 부딪쳤다. “정치에 관심 없어요”라며 손사래를 친 20대 커플에게 “그럼 악수!”라며 손을 건넸다. 입장을 거부당한 식당 앞에선 “그럼 밖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고깃집에서 경찰 후배를 만났을 땐 “경찰! 사랑합니다”를 외쳤다. 각각 경찰청과 종로경찰서에 근무한다는 경찰 후배 부부를 만나선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다. 진 후보는 33년을 경찰로 지냈다. 계급장 띠 지 얼마 안 된 ‘정치 신인’치고는 스킨십을 여색해하는 장면이 별로 없었다.

약 90분간 이어진 도보 유세에서 진 후보가 들른 장소만 70여 곳이다. 동행한 기자의 시계엔 금방 9000보가 채워졌다. 진 후보는 “다시 가겠다고 약속한 곳이 너무 많아 큰일이다. 음식점을 보면 진짜 먹고 싶어서 꼭 오겠다고 자꾸 약속했다”고 웃어 보였다. 일정을 마친 그는 가지고 다닌 멀티바타민을 기자에게 건넸다.

강보현 기자

낙후된 골목시장 누비며 “화곡을 마곡으로 만들 것”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가 지난 8일 서울 강서구 남부골목시장에서 유세하고 있다. [뉴시스]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 1심 유죄 선고받고 당선된 경험

“집권당 대표가 보증하는 김태우의 숙원! 화곡이 마곡이 되고, 빌라가 아파트가 됩니다!”

지난 8일 오후 3시, 서울 화곡동 남부골목시장을 구석구석 누빈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는 시장을 떠나기 전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외쳤다. 강서구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화곡동을 신도시급으로 발전한 마곡동처럼 만들겠다는 구호였다. “기호 2번 김태우를 뽑아주시면 여러분의 오래된 빌라, 오래된 주택을 모두 새 아파트로 돌려드리겠습니다”고 강조했다. 지원 유세를 나와 김 후보 곁을 지키던 김기현 대표와 박성민 사무부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도 “빌라를 아파트로! 구청장을 김태우로!”를 함께 외쳤다.

“윤석열 정부 심판”을 외치고 있는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반해 김 후보는 철저히 ‘강서구 발전론’을 내세우고 있다. ‘중앙정부(윤석열 대통령)-서울시(오세훈 서울시장)-강서구(김태우 후보)’를 하나로 엮는 ‘힘 있는 여당 구청장’이 강서구 발전을 뒷받침한다는 논리다. 김태우 후보를 동행 취재할 때도 가장 많이 나오는 구호는 “힘 있는”이었다. 시장 구석구석을 돌며 “재개발-재건축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2번입니다”라고 외친 김 대표는 유세차에 올라서도 “강서가 서울의 가장 잘사는 구가 될 수 있도록 김태우, 집권여당의 힘 있는 후보를 꼭 뽑아주세요”라고 외쳤다.

김 후보는 김 대표 등과 함께 떡집, 빵집, 방앗간, 청과점 등 가게를 돌면서도 재개발-재건축을 강조했다. 김 대표가 먼저 “주변이 빨리 재개발되면 시장이 싹 살아난다. 재개발-재건축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면 김 후보가 “기호 2

번”이라며 연신 고개를 숙이는 식이었다. 시장 상인들은 김 후보 일행에게 간식을 쥐여주면서 “나중에 구청장 돼서 값으로”라며 응원했다.

선거 초반 불리한 판세를 역전시키려는 김 후보는 막판 지지층 결집에도 힘을 쏟았다. 평일에 실시되는 보궐선거인 만큼 국민의힘은 보수 성향의 유권자를 최대한 투표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 경로당, 부녀회 등을 방문하는 일정을 늘렸다. 일요일인 8일 김 후보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김 대표와 함께 화곡동에 있는 ‘치유하는 교회’ 오전 10시 예배에 참석했다. 1시간30분 가량 진행된 예배 동안 김 후보와 김 대표는 별다른 발언 없이 조용히 기도에 집중했다고 한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선거가 촉박한 상황에서라도 예정된 차량 유세 일정을 조정하고 예배를 다 마쳤다”고 말했다.

애초 이번 보궐선거는 구청장이던 김 후보의 자격 상실로 치러지게 된 만큼 야권은 이 지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예배를 마친 김 후보를 잠시 만났다.

“출마 때부터 논란이 많았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때 이미 1심 유죄를 받은 게 널리 알려진 상태였지만 당선됐다. 강서구 주민에게 은혜를 받은 것이다. 이번에도 김태우는 열심히 일했는데 왜 저렇게 됐느냐”는 여론이 생겨서 윤 대통령께서 (사면·복권) 결단을 내렸다. 저는 두 번이나 (강서구 주민에게) 은혜를 입었다.”

“윤 대통령과의 소통을 내세우고 있다. “오늘(8일)도 김기현 대표와 같이 오지 않았나? 김 대표가 늘 (유세 현장에) 방문해서 제가 당선되면 윤 대통령과 확실히 소통된다는 걸 확실히 주고 있다.”

전민구 기자

신성재 변호사

교통사고 / 개인파산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Chris Shin Esq.,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종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셀러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Brown University BA Degree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공시 붙었는데 언제 임용될지 몰라” ... 전국에 2857명

(지방직 7·9급)

지방직 공무원 임용 현황 분석
7급 228명, 9급 2629명 임용 지연

지방직 7·9급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에 합격했지만 아직 정식 임용되지 못한 ‘예비 공무원’이 3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지방공무원 임용 대기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기준 임용

대기 중인 지방직 공무원이 7급 228명, 9급 2629명이다. 국가직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 등은 제외된 수치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9급 공채 합격자 중에선 부산광역시가 임용 대기 인원 851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서울시(488명), 경기도(407명), 대구광역시(307명) 순이었다.

7급 공무원은 서울시에 전체 임용 대기자의 68.9%(157명)가 몰려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채용 인원 산정 당시

예상했던 규모보다 결원이 크게 줄면서 이례적으로 적체 현상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전·세종·충남·강원·경북·제주는 7·9급 임용 대기자가 한 명도 없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한 이들이 장기간 일하지 못하는 배경은 일부 지자체가 결원·퇴직 규모 산정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부산시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결원·퇴직 등으로 신규 수요가 많은 것

로 예상해 지난해 9월 평년 대비 2배 정도 더 채용했다. 하지만 부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생각보다 빨리 종식하면서 지난해 7월 이후 휴직자가 대거 복귀, 빈자리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법정 임용 허용 기한(2년)인 2024년 9월까지 이들을 모두 임용할 계획이다.

여성이나 남성이 전체 합격자의 30%에 미달하면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성의 응시자를 추가로 뽑아야 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서울시 관계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선발 예정 인원 대비 초과 합격자가 발생하면서 임용 대기자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임용이 지연되면서 7급 임용 대기자의 14.9%(34명), 9급 임용 대기자의 24.8%(652명)는 생계 유지 등을 위해 지자체에서 실무수습 직원으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욱·문화철 기자

수원 전세사기 고소 53건 접수, ‘제2의 빌라왕’ 사태 우려

임대인 일가, 40~50채 건물 소유

경기도 수원·화성시 등지에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보유한 임대인 부부가 잠적해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내용의 고소장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 소유의 부동산 관련 법안만 10여 곳에 넘어 ‘제2의 빌라왕’ 사태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

온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정모(60대)씨 부부와 그 가족 등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이 9일 오후 기준 53건 접수됐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5일 전까진 6건이 접수됐는데, 7일엔 21건으로 늘었고, 8~9일에만 32건이 추가 접수됐다. 고소장에 명시된 피해 액수는 총 70여억원

에 이른다. 고소인 상당수는 20~3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소유의 한 오피스텔에 살고 있다는 A씨는 “올 6~8월에 계약이 만기가 된 사람들이 아직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집주인의 다른 건물이 경매에 나왔다는 말을 듣고 고소장을 냈다”고 말했다.

정씨 일가는 법인과 개인 명의로 40~50여 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고 한다. 중앙일보가 기업 정보 플랫폼을 통해 정씨가 대표적으로 이름을 올린 부동산 관련 법인을 조사한 결과 모두 18곳으로 확인됐다. 수원 7곳, 화성 6곳, 용인 4곳, 양평 1곳이다. 두 회사 이상이 같은 주소를 중복으로 두고 있거나 부인 김씨가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린 곳도 다수 있었다. 고소인들은 정씨의 아들 등 다른 가족이 연루됐다는 주

장도 하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씨는 피해자들이 모인 소셜미디어 단체 대화방에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전세가 하락으로 인해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치달았고, 재입대까지 어려워지면서 더 이상 방법을 찾지 못했다. 상황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는 임차인들의 연락에도 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아직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임차인들이 적지 않아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모란 기자

“미스터 초밥왕 보고 셰프 꿈 이젠 그 작가가 내 단골손님”

도쿄서 스시로 성공한 한국인 문경환

일본에서 ‘스시’로 미쉐린 별을 딴 첫 한국인 셰프 문경환(36·일본 활동명 쇼타·사진). 현지에서 그는 ‘초밥왕’ ‘덕업 일치의 상징’ ‘의지의 한국인’으로 통한다. 중학교 3학년 때 접한 일본 만화 ‘미스터 초밥왕’에 푹 빠져 요리사 꿈을 키운 그는.

2019년 11월 도쿄 아자부주반에 문연 가게 ‘스시야 쇼타’는 예약이 어려운

가게로 유명하다. ‘미쉐린 가이드 도쿄 2021’에 처음 이름을 올려, 3년째 ‘스타’를 유지하고 있다. 스시야(스시 전문점)만 3000개가 넘는 미식 격전지 도쿄에서도 흔치 않은 성공 신화를 쓰고 있는 셈이다.

미쉐린 별 획득 이후 처음 방한한 그를 지난 7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만났다.



-상호를 ‘미스터 초밥왕’ 주인공 이름에서 따왔다고 하는데.

“만화는 훗카이도 시골에서 자란 ‘쇼타’라는 소년이 도쿄 긴자의 한 스시야에서 견습 생활을 하며 성장해나가는 이야기다. 나는 부모님이 논산에서 딸기 농사를 하셨다. 막연히 농부를

꿈꾸다 중3 때 만화를 접하고 꿈이 바뀌었다.”

-초밥은 언제 처음 접했나.

“제대로 된 스시는 군 제대 후 서울에 올라와서 처음 먹었다. 만화 속 표현처럼 ‘우주를 날아다니고 박수가 저절로 나오는 맛’이었다. 서울 스시를 경험하니 일본 본고장 스시는 어떨지 너무 궁금했다. 14년 전 무작정 도쿄로 날아갔다.”

- ‘미스터 초밥왕’ 작가 데라사와 다이스케도 ‘스시야 쇼타’ 존재를 아나.

“우리 가게 단골 중 하나다. 본인 만화를 보고 꿈을 키웠다는 이야기에 기뻐하셨던 기억이 있다. 감정 표현이 많은 분은 아닌데, ‘맛있다’는 말은 꼭 해

주신다.”

-도쿄 긴자의 명가 ‘스시 카네사카’에서 경력을 시작했다.

“처음 1년은 손님 응대와 설거지만 했다. 내 손으로 만든 스시를 손님에게 내는 데까지 대략 6년 걸렸다.”

-일본인 입맛을 어떻게 사로잡았나.

“저렴하지만 손이 많이 가는 생선, 그래서 남들은 잘 다루지 않는 생선들로 승부를 봤다. 정어리가 대표적이다.”

‘스시야 쇼타’는 전체가 7석에 불과하다. 하루 세 차례 7명씩, 최대 21명 손님을 받는다. 가게의 오마카세 가격은 2만2100엔(약 20만9000원)이 기본이다.

내년 1월까지 예약이 마감됐다.

백종현 기자

“민생의 핵심은 물가, 우유값 낮춰라”

우유, 삼겹살, 감자, 양파... 최근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에 안건으로 오른 생필품이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 비서실장은 매일 아침 회의 때마다 생활물가 추이를 확인한 뒤 “당장 수입을 늘려서라도, 가격을 낮출 방안을 살펴보라”고 주문하고 있다.

최근 5% 안팎 오른 우유값과 관련해선 “정작 우유 수요는 줄고 있지 않

나”며 참모진을 질타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이 우유값·양파값에 민감히 반응하는 건 최근 물가 상승 조짐이 심상치 않아서다.

지난 5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동기 대비 3.7% 올랐다. 먹거리 지표인 외식 물가(4.9%)와 가공식품(5.8%) 상승률은 평균을 웃돌았고, ‘금값 사과’란 신조어까지 나온 과실 농산물 상승률은

24%에 달했다. 국제유가도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급등 조짐을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생의 핵심은 물가”라며 “고유가와 고금리 등 글로벌 변수가 국내 물가를 밀어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난방비·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신중론도 적지 않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공공요금에 대해선 서민 부담과 해당 기업의 건전성을 균형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한글씨 정성스럽게 제577돌 한글날인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예술문화원이 주최한 ‘제14회 광화문광장 휘호 대회’가 열렸다. 조선시대 과거시험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한글날 세상을 열다’란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 두루마기를 입은 외국인 참가자들이 붓글씨를 쓰고 있다. [뉴스1]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탐 프로듀서
- ▶ 질로우 프러미어 에이전트
-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센터빌 싱글홈

\$985,000

방5, 화5, 차고2, 4500sf.
굿로케이션, Faircrest 커뮤니티
Upgraded 된 럭셔리 홈

알렉산드리아 싱글홈

\$680,000

방4, 화2, 조용한 동네 리모델,업그레이드한 빅 섀론, 넓은 뒷마당

클럽턴 싱글홈

\$1,350,000

방6, 화장실4.5, 차고2
2003년산, 뉴키친 등등 업그레이드 많이함.

우드브릿지 타운홈

\$400,000

방3, 화장실2.55
새 창문, 새지붕
굿로케이션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

김경아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축만중, 후만중)

진료 내용

-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축만중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들랜드 치료
-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박스치료
- 통증치료**
근육 통증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원장 김우기 DPT

-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예약한자에 한하여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센터빌, 첼렌리 지역]

우리말 바꾸기

귀에 못이 박히다

질리도록 자주 들었다는 뜻으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다”는 말을 많이 쓴다.

문제가 없는 표현일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써도 되는 표현이다. 관용구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명은 이렇다.

비슷한 표현으로 ‘손에 못이 박히다’가 있다. 여기에서의 ‘못’은 굳은살을 가리킨다. 그래서 ‘못(굳은살)’이 ‘박히다’와 어울려 ‘손에 못이 박히다’ 형태로 쓰인다.

하지만 이 ‘못’은 ‘귀에 못이 박히다’에서 사용되는 ‘못’과는 의미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귀에 못이 박히다’는 표현을 그대로 관용구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론도 있다. 아무리 자주 듣는 얘기를 나타냈다고 해도 ‘귀에 못이 박히다’는 표현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못’ 역시 쇠가 아니라 굳은살을 나타내는 ‘못’이라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일본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기도 한다. ‘耳(みみ)にたこができる’로, 역시 ‘귀에 못이 박히다’는 뜻을 갖고 있다.

여기에서 ‘못’은 쇠못이 아니라 굳은살(たこ)이다. ‘귀에 못이 박히다’는 우리 표현도 이것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있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자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독자 컬럼

에세이라 쓰고 대필이라 읽는다



존림
CEO
J&B Essay Consulting

소위 에세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 상당한 이슈를 몰고 다닌다. 학교 과제, 논문 혹은 그 외 대회라는 영역에서 불미스러운 사례를 만드는 장본인이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에세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더욱 더 까칠하다.

어느 유명한 교수 혹은 장관의 박사 논문이 누군가의 의해 대필 되었다든지 어느 유명한 기업가의 자녀가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아 학교 에세이 과제를 했다든지 등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들이 생각보다 꽤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슈를 만들바엔 그냥 혼자 써버리면 되는데 꼭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완성이 되는 에세이, 도대체 우리는 왜 에세이 쓰기가 힘들까?

한국어로 수필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큰 맥락에서 보면 글의 한 종류이다. 어떠한 이들은 크게 페이지라고도 부른다.

엄밀히 말하면 에세이와 페이지는 다르다 (허나 이 글의 목적상 둘의 다른점은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 한국어로 수필이라고 불리는 이것, 어느 누군가는 페이지라고 칭하는 이것. 에세이는 학업 목적을 위해 쓰는 것이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는 주관적인 글 정도로 크게 이해하면 될 듯 싶다. 미국에서는 학교 과제라는 맥락 안에서 주로 쓰인다.

에세이란 주관적인 생각, 주장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 하는 증거 및 분석을 체계적인 틀 안에서 논리적으로 글로 풀어내는 활동이다. 다시 말해, 에세이는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A) 나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B)논리가 기반된 체계적인 틀 안에서 글로서 표현하는 작업이다. (A)는 예술적 감각이 필요하고 (B)는 과학적 이해 (예컨대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글의 구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에세이를 잘 쓰려면 예술적 그리고 과학적 이해와 재능이 필요하다는 소리다. 나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B)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지만 (A)는 가지고 태어나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수학적 혹은 음악적 재능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에세이 쓰기를 꺼려하거나 중도 포기한다. (A)가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에서의 에세이 교육은 많이 뒤쳐져 있다. (B)영역만 너무 치우쳐 교육이 되고 있다.

대부분 (A)영역에 대해선 관심을 갖지도, 딱히 평가를 받지도 않는다. 그저 남들과 비슷한 혹은 남들이 원하는 대담 위주로 글을 쓰면 된다. 그게 한국 일반 교육에서의 에세이 인거 같다.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논리적으로 말을 한들 에세이만 쓰라고 하면 유난히 약한 모습을 보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세이를 쓸 시간이 없어서?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쓸려나까 안써져서? 온갖 핑계를 대며 누가 대신 써주면 안될까 하며 대신 에세이를 써줄 사람을 알아보고 있다.

나는 이 글을 통해서 에세이를 쓰지 못하는 혹은 쓰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덩달아 대필을 하는 사람들을 딱히 비난 하는게 아니다.

서로의 입장이 있고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는 것이기에 내가 판단할 혹은 비난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누구나 쓸 수 있을거 같은 에세이라는 녀석은 생각보다 쉽지 않음을 인지 하고 에세이를 잘 쓰기 위해서 스스로가 필요한 조건 (예컨대: (A)영역)을 만족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도움을 적절히 받을 때 도움을 받는 사람도, 도움을 주는 사람도 서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제 가는 에세이를 대필이 아닌 에세이로 읽힐 날이 온다고 본다.

일터에서

시간의 부자



김학범
시험관 야기 박사

나이 70에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시간의 부자가 된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내게는 온종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 이 많은 시간을 어떻게 잘 사용해야 시간의 부자가 되는 걸까. 당연히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일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나는 40년 넘게 시험관 야기 박사로서 한 우물을 파는 직업이 있으니, 이거야말로 최고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일이다. 더군다나 이제 일하는 것을 고급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하니 즐거운 일이 됐다.

내일은 일요일이지만 아침 7시 반부터 열린 수정란 녹이는 작업을 하고, 8시부터는 난자 채취를 하고, 환자 남편의 정자를 처리해서 시험관 야기를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

9시 반에 수정란 이식을 위해 다른 환자 부부가 오면 엄마의 아기집에서 자란 수정란을 잘 지키기 위한 조언을 해주고 함께 명상 수행도 할 예정이다. 수정란이 아무리 잘 자라도 엄마의 아기집이 좋은 상태가 아니면 잘 자라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부부의 정성이 담긴 진짜 자식 농사는 수정란

이식 후에 시작된다. 이때 중요한 일은 항상 ‘태풍의 눈’을 찾는 명상을 해야 한다는 거다. 부모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엄마의 아기집에서 자라는 수정란에는 태풍 같은 위협이다.

수정란 이식이 끝나면 집에서 휴식시간을 즐긴다. 오후 3시쯤 다시 수정란 실험실에 가서 아침에 채취한 난자들 가운데 활성도가 좋은 것만 특수처리 후 보관해둔 환자 남편의 정자들을 합해준다. 체온 상태의 시험관에 15만 개의 정자들이 들어가면, 활성화가 되어 엄청 빠른 속도로 난자들을 향해서 돌격한다.

다음 날 아침 10시쯤 수정 상태를 확인하고, 수정된 난자들을 선별해 엄마의 아기집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는 특수 배양기에서 나흘 동안 키

운다. 잘 자란 수정란은 얼려 놓았다가, 엄마의 아기집이 최적화되었을 때 이식을 하게 된다.

내일 난자 채취를 하는 환자는 부부가 다 혈액 질환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전에 태어난 아이는 이미 혈액 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상태다. 이럴 경우에는 수정란이 사흘 동안 자란 16 세포 중에서 세포 하나를 떼어내 유전자 검사 실험실로 보내고, 유전자 검사 실험실 요원은 밤새 작업을 해서 다음 날 아침 8시에 내게 수정란의 염색체 이상 유무를 통보해준다. 나는 즉시 환자 부부에게 결과를 통보해주고, 정상적인 수정란들을 개별적으로 얼려야 한다.

유전자 검사 실험실 요원은 염색체가 정상으로 판명 난 세포들만 따로 혈액 질환 유전자를 검사하는데, 결과가 나오는 데는 14일이나 걸린다. 다음에 혈액 질환 유전자가 없는 수정란을 엄마의 아기집에 이식하게 된다.

검사 적혈구 빈혈증(Sickle cell anemia) 등 유전적 질환들도 이런 식으로 검사하게 된다. 수정란의 성별도 이식하기 전에 미리 알게 되고, 다운 증후군문제도 미리 알게 되니 환자들에게는 필요한 시술이다.

맛있는 용자의 딸인 **마이클 장** *딸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워싱턴중앙일보가 약속드립니다!

발행부수 · 광고효과 · 독자만족 1등 **Tel. 703-281-9660**

HONEST GRILL

KOREAN BARBECUE GUIDE

"The 100 Very Best Restaurants in Washington"
by WASHINGTONIAN



Starting **19.⁹⁹**
Lunch Dine-in Only

Lunch Combo Special

Monday - Friday 11:30 AM - 3:30 PM

Choice of
Pork or Beef

+

Choice of
Buckwheat Noodle
(Spicy or Cold)

*Lunch only | Dine-in only | No take out | Cannot be combined with any other promotion | While supplies last

Monday Dinner

Dry Age Experience

Dry Aged Ribeye*

~~79.⁹⁹~~ → 59.⁹⁹

*Cannot be combined with other promotions/discounts
*Participants must purchase guide(s) and/or a la-carte item(s) equivalent to their party size in order to be eligible
*While supplies last
*Excluding holidays

Tuesday Dinner

Signature Experience

Signature Beef Guide*

~~89.⁹⁹~~ → 69.⁹⁹

*Cannot be combined with any other promotion
*Signature Experience promotion is limited to only "Signature Beef Guide"
*Any substitution(s) in the guide will incur extra charge(s)
*Excluding holidays

Wednesday Dinner

Pork Madness

Signature Pork Guide*

~~74.⁹⁹~~ → 59.⁹⁹

*Cannot be combined with any other promotion
*Pork Madness promotion is limited to only "Signature Pork Guide"
*Any substitution(s) in the guide will incur extra charge(s)
*Excluding holidays

14215 H Centreville Square,
Centreville, VA 20121
www.honestgrillva.com
(703) 543-2320

RESERVE
YOUR
TABLE
NOW



30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서비스도 고객만족도 TOP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800.564.4429

최우수한국항공권 KOREAN AIR DELTA
소매, 도매 직판점

유심칩 판매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없!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한국유심 판매 \$45
유럽유심 판매 \$50

TALK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트래블USA 실시간상담!

번역 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민권

채용 공고 에이전트(엘리콧시티 지점) 사무직(센터빌지점), 가이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 ceo@toptravelusa.com
문의 :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탑여행사

가을만끽 특선

당일관광

단풍기차관광 캠퍼랜드

10/20 대형버스 출발 마감일박
10/27 대형버스 출발
10/28 마감

\$159

당일관광

2023 성극

SIGHT & SOUND THEATRE

12/20 **\$169**

Manor Buffet
아이쉬마켓

Wonderful TOUR

2024 Yearly Schedule

1월

신년 특선 코스타리카 \$1190+항공
1/9-1/13 4박5일

파타고니아 \$5890+항공
1/16-1/26 10박11일

신년 특선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1/27-2/8 12박13일

신비의 인도 \$2890+항공
1/30-2/11 12박13일

2월

코스타리카 \$1190+항공
2/6-2/10 4박5일

바하마 크루즈 \$5890+항공
2/8-2/16 8박9일

호주/뉴질랜드 \$3690+항공
2/14-2/25 11박12일

아프리카&두바이 \$9590+항공
2/22-3/6 13박14일

이집트 & 이스라엘 & 요르단 \$3980+항공
2/27-3/11 13박14일(시내산)

3월

이스라엘 요르단 \$2980+항공
3/1-3/11 10박 11일

남미 일주(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5,190+항공
3/16-3/28 12박13일

브라질/아르헨티나 \$2,990+항공
3/16-3/23 7박8일

페루 일주 \$2890+항공
3/22-3/28 6박7일

불방학특선 남프랑스 \$2890+항공
3/25-3/31 6박7일

4월

고졸격 고국일주 \$2990+항공
4/16-4/26 10박11일(1차)

정통 서유럽 \$3490+항공
4/24-5/4 10박11일

정통 동유럽 \$3290+항공
4/29-5/8 9박10일

5월

발칸&크로아티아 \$3990+항공
5/2-5/13 11박12일

스페인 & 포르투갈 \$3190+항공
5/7-5/17 10박11일

그리스/터키 \$2890+항공
5/14-5/24 10박11일

파노라미 서유럽 \$3890+항공
5/21-6/2 12박13일

메모리얼 특선 옐로스톤 \$1290+항공
5/24-5/27 3박 4일

6월

아이슬란드 일주 \$5690+항공
6/4-6/12 8박9일

잉글랜드/스코틀랜드/아일랜드 \$5890+항공
6/11-6/22 11박12일

스위스 알프스 일주 \$3990+항공
6/18-6/26 8박9일

북유럽 4개국 + 발틱 3개국 \$5990+항공
6/25-7/8 13박14일

북유럽 4개국 \$5290+항공
6/25-7/5 10박11일

독립기념일 특선 캐나다 록키 \$1690+항공
6/28-7/4 6박 7일

7월

독립기념일 특선 옐로스톤 \$1290+항공
7/1-7/4 3박 4일

여름방학 특선 서유럽 \$3490+항공
7/9-7/19 10박11일

8월

북유럽 4개국 + 발틱 3개국 \$5990+항공
8/6-8/19 13박14일

북유럽 4개국 \$5290+항공
8/6-8/16 10박11일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1690+항공
8/12-8/18 6박7일

알래스카 일주 \$1690+항공
8/15-8/21 6박7일

알래스카 크루즈 \$990+항공부터
8/23-8/30 7박8일

Wonderful TOUR

탑여행사의 전문 인솔자와 함께 떠나는 원더풀 투어 항공 여행

세라 김
원더풀투어 판매담당 703.941.2929

레나 고

11월 추수감사절특선

코스타리카

4박5일 11/22-11/26 마감일박 **\$1890**

2차출발 2024년 2월 6일

신호세 호텔 조식 후 비닷가로 이동, 카리나 열대우림 국립공원 트레킹, 보트 사파리 투어 (소형 보트로 강을 따라 이동하여 악어, 아구아나 새, 맹그로브 정글 등 탐험).

12월 크루즈여행

남부 카리브해

12박13일 마감일박 \$1,190 (인사이드) \$1,390 (오션뷰)

12월 크리스마스특선

파리일주

12/24~12/29 5박6일 **\$2,390**

이태리일주

12/24~12/30 6박7일 **\$2,290**

원시의 땅으로 파타고니아

10박11일 1/16-1/26 **\$5890**+항공

타지마할의 불멸의 사랑 신비의 인도

12박13일 1/30-2/11 **\$2890**+항공

광활한 대지의 감동 호주/뉴질랜드

11박12일 2/14-2/25 **\$3690**+항공

사파리에서 만나는 경이 아프리카/두바이

13박14일 2/22-3/6 **\$9590**+항공

성지그 이상의 감동속으로 **성지순례**

이집트/이스라엘/요르단 13박14일 2/27-3/11 **\$3980**+항공

이스라엘/요르단 10박11일 3/1-3/11 **\$2980**+항공

남미일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12박13일 3/16-3/28 **\$5190**+항공

불방학특선 남프랑스 6박7일 3/25-3/31 **\$2890**+항공

이집트/이스라엘/요르단 13박14일 2/27-3/11 **\$3980**+항공

이스라엘/요르단 10박11일 3/1-3/11 **\$2980**+항공

남미일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12박13일 3/16-3/28 **\$5190**+항공

불방학특선 남프랑스 6박7일 3/25-3/31 **\$2890**+항공

Korea 한국관광공사 VISIT KOREA YEAR 한국방문의 모든것!

탑여행사가 직접 모시고 떠납니다

2024
1차 4/16-4/26
2차 9/17-9/27
3차 10/15-10/25

\$2990 10박11일 제주2박 포함

서울/군산/전주/부산/순천/여수/광양/하동/진주
거제/부산/울산/경주/삼척/정동진/강릉/속초/제주

서남권 \$849+항공 | **제주 \$699**+항공
동해권 \$969+항공 | **전국일주 \$2299** 항공

특선 워싱턴최초 디럭스 28인승 리무진버스타워

특선 모든음식포함 여수해상 케이ابل카/외도+해군관 유람선/해상 케이ابل카 충주호 단양팔경유람선 서귀포유람선

특선 최고급 호텔 숙박 제주롯데호텔/송도메리엇 가레스호텔/여수소노호텔 경주라한/인터컨티넨탈 일원시아 서울노보텔엠베서티 등

특선 고향냄새 술술나는 여거리 전주 비빔밥, 남도 한정식, 회정식, 한우육회비빔밥, 안동찜닭, 물회, 해물죽배기와 옥동구이, 갈치조림 효탁지구이등

TMCI 고국건강검진

세브란스(기본검진) 한국국적 남 \$700/여 \$750 미국국적 남 \$910 / 여 \$975

경희대병원(특화검진) 남/여 \$810

삼성서울병원(기본검진) 남(100만원)/여(13만원)

한양대학교(기본검진) 남 \$550 / 여 \$620

서울성모병원 한신메디피아 차움검진센터 녹십아이메드 현대아산병원

일본 동경+한국 내륙일주 10박 11일 **\$3490**+항공

한국 내륙일주+베트남 다낭 10박 12일 **\$2990**+항공

일본 동경+한국 내륙일주+베트남 다낭 13박 15일 **\$3990**+항공

일/본/관/광
동경 3박 \$999-하
오사카 3박 \$999-하
후쿠오카 3박 \$999-하
일본원일주 8박 \$2690-하

탑여행사 미동부관광

미동부 나이아가라/토론토 천심/몬트리올/퀘벡 플래츠버그/뉴욕 5박6일 **\$1350**

대형버스 출발 10/16, 10/23
출발일 10/16, 10/23
출발일 매주 월요일

천심·뉴욕 나이아가라 3박4일 **\$899**

출발일 매주 월요일

가을 여행코스는 두글과 NY 뉴욕 1박2일 / **\$399**

탑여행사 당일관광

워싱턴디씨 \$100 | 마운트버논 & 알렉산드리아 \$150

루레이동굴 \$125 | 필라델피아 \$150

2023 12/20 성극 **Miracle of Christmas \$169** Manor Buffet 아이쉬마켓

탑여행사 미서부관광

알래스카 6박7일 **\$1490**+항공 매주월목 7박8일 **\$1790**+항공 매주일

서부4대캐년 5박6일 **\$990**+항공 매주일

8대캐년 그랜드서클 6박7일 **\$1300**+항공

미서부일주 8박9일 **\$1450**+항공 매주일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6일 **\$990**+항공 매주일

마운틴러시모어 3박4일 **\$1040**+항공

캐나다록키 6박7일 **\$970**+항공 매주일목

옐로스톤 3박4일 **\$890**+항공 매주일금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항공 여행은 출발 3주전 결재하는 워싱턴 출발 요일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현재지면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Law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교육 & 연예/문화 Sports

빙·난방 **제로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uesday, October 10, 2023 C

주립대 '상승' 사립대 '하락' 두드러져

US뉴스 '미국 전국 대학' 순위

US뉴스&월드리포트의 '베스트칼리지' 순위가 입시철을 앞두고 발표됐다. 미국의 대학 순위는 관공서가 아닌 언론기관들에 의해서 집계되고 있다. 가장 오래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순위는 바로 US뉴스의 대학랭킹이다. US뉴스가 지난 18일 발표한 2023-24년 '미국 전국 대학' 순위를 알아봤다.

대학 순위하면 일반적으로 아이비리그 8개 대학이 정상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US뉴스의 정보 취합 방법 덕분에 지상식과는 조금은 다른 결과를 보인다. 8개의 아이비리그 대학이 모두 정상에 있지도 않고 하버드가 1위 자리를 물러난지는 13년이나 됐다. 언론사가 집계하는 정보라서 그런지 어떤 대학 당국도 공식적으로 나서서 순위를 부정하지 않고 있다. 대학들은 오히려 정보 수집에 협조적이고 높은 순위에 오를 수 있도록 온갖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원래 대학 순위의 시작은 입시생에게 지원할 대학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었다고 전한다.

US뉴스는 대략 1500개에 달하는 대학의 정보를 취합해서 대학의 정보를 취합해서 대학의 특성을 아주 무시할 수 없어서 대략 4가지의 카테고리로 순위를 나눈다. 우선, 전국적인 명성을 갖고 전국에서 지원하는 '전국 대학(National University)', 학부 중심의 전국에서 지원하는 '리버럴 아트 칼리지(Liberal Arts College)', 지역 학생이 지원하는 종합 대학인 '리저널 대학(Regional University)', 지역 학생이 지원하는 단과 대학인 '리저널 칼리지'로 구분해 각각의 순위를 매긴다.

◆올해 집계 변화
US뉴스는 올해 큰 변화를 의도했다. 몇가지 지표 가중치를 바꾸고 5개의 산정 요소는 제외했고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는 등 방법론적 변화를 시도했다. 우선 '사회적 이동성'에 초점을 뒀다. 대학 교육을 통해 계층이 바뀐 정도를 반영했다. 올해 순위에는 1세대 졸업률, 성과, 고졸보다 연봉이 높은 대졸자의 비율 등 새 산정요소를 추가했다. 특히 전국대학 순위에서 사회적 이동성의 정의가 변경돼 펠그랜트 수혜자 졸업률 외에 1세대 졸업률이 포함된 것이다. 이는 대학이 사회의 균형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명문대학 순위를 삼켰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외에도 교수진 연구 성과, 주요 전공인 비즈니스, 엔지니어링, 컴퓨터 사이언스, 간호학에 대한 영역 순위도 매겨 이를 순위에 반영했다.

한편 빠진 산정요소로는 대출 받은 졸업생 비율, 고교 학습 순위, 동문 기부율, 최종 학위 교수진 및 학급 규모였다.

▶4년 '대학 순위'로 계속 장병희 기자

| 2023 ~ 2024 순위 | 대학명 | 소재지 | 공사립 | 전년 순위 | 순위 변화 | 평가 총점 | 1세대 학생 비율 | 졸업시 연봉 | 연방 융자 중간값 | ACT/SAT 중 상위 50%점수 | ACT 제출률 | SAT 제출률 |
|----------------|---------------|-----|-----|-------|-------|-------|-----------|--------|-----------|--------------------|---------|---------|
| 1 | 프린스턴 | NJ | 사립 | 1 | 0 | 100 | 43 | 10320 | 1500 1580 | 25 | 60 | |
| 2 | MIT | MA | 사립 | 2 | 0 | 99 | 44 | 14768 | 1520 1580 | 32 | 78 | |
| 3 | 하버드 | MA | 사립 | 3 | 0 | 98 | 54 | 14000 | 1490 1580 | 28 | 55 | |
| 3 | 스탠포드 | CA | 사립 | 3 | 0 | 98 | 49 | 12000 | 1500 1580 | 23 | 49 | |
| 5 | 예일 | CT | 사립 | 3 | -2 | 96 | 44 | 12975 | 1500 1580 | 29 | 59 | |
| 6 | 유엔 | PA | 사립 | 7 | 1 | 95 | 44 | 15715 | 1500 1570 | 23 | 48 | |
| 7 | 컬텍 | CA | 사립 | 9 | 2 | 93 | N/A | N/A | N/A N/A | 0 | 0 | |
| 7 | 듀크 | NC | 사립 | 10 | 3 | 93 | 37 | 13000 | 1490 1570 | 37 | 49 | |
| 9 | 브라운 | RI | 사립 | 13 | 4 | 92 | 43 | 11428 | 1490 1580 | 27 | 54 | |
| 9 | 존스홉킨스 | MD | 사립 | 7 | -2 | 92 | 35 | 10250 | 1520 1570 | 15 | 44 | |
| 9 | 노스웨스턴 | IL | 사립 | 10 | 1 | 92 | 36 | 15000 | 1490 1570 | 31 | 47 | |
| 12 | 컬럼비아 | NY | 사립 | 18 | 6 | 91 | 46 | 21500 | 1470 1570 | 28 | 43 | |
| 12 | 코넬 | NY | 사립 | 17 | 5 | 91 | 36 | 14000 | 1470 1570 | 14 | 37 | |
| 12 | 시카고대 | IL | 사립 | 6 | -6 | 91 | 34 | 15000 | 1500 1580 | 32 | 52 | |
| 15 | UC버클리 | CA | 공립 | 20 | 5 | 90 | 62 | 13000 | N/A | N/A | N/A | N/A |
| 15 | UCLA | CA | 공립 | 20 | 5 | 90 | 66 | 14000 | N/A | N/A | N/A | N/A |
| 17 | 라이스 | TX | 사립 | 15 | -2 | 89 | 38 | 11000 | 1490 1570 | 23 | 53 | |
| 18 | 다트머스 | NH | 사립 | 12 | -6 | 88 | 31 | 17500 | 1500 1580 | 24 | 42 | |
| 18 | 밴더빌트 | TN | 사립 | 13 | -5 | 88 | 36 | 14000 | 34 35 | 32 | 29 | |
| 20 | 노터데임 | IN | 사립 | 18 | -2 | 87 | 28 | 19000 | 1420 1550 | 31 | 36 | |
| 21 | 미시간 앤아버 | MI | 공립 | 25 | 4 | 86 | 43 | 19500 | 1350 1530 | 24 | 54 | |
| 22 | 조지타운 | DC | 사립 | 22 | 0 | 85 | 35 | 15500 | 1390 1560 | 36 | 72 | |
| 22 |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 | NC | 공립 | 29 | 7 | 85 | 47 | 14000 | 30 34 | 32 | 26 | |
| 24 | 케네디 멜론 | PA | 사립 | 22 | -2 | 84 | 31 | 21750 | 1490 1570 | 20 | 51 | |
| 24 | 에모리 | GA | 사립 | 22 | -2 | 84 | 42 | 18250 | 1430 1550 | 23 | 41 | |
| 24 | 버지니아주립 | VA | 공립 | 25 | 1 | 84 | 40 | 17500 | 1400 1540 | 17 | 54 | |
| 24 | 워싱턴세인트루이스 | MO | 사립 | 15 | -9 | 84 | 27 | 17500 | 33 35 | 33 | 27 | |
| 28 | UC세번티스 | CA | 공립 | 38 | 10 | 83 | 69 | 13000 | N/A | N/A | N/A | N/A |
| 28 | UC샌디에이고 | CA | 공립 | 34 | 6 | 83 | 64 | 15500 | N/A | N/A | N/A | N/A |
| 28 | 플로리다주립 | FL | 공립 | 29 | 1 | 83 | 62 | 15000 | 1300 1490 | 41 | 81 | |
| 28 | USC | CA | 사립 | 25 | -3 | 83 | 49 | 18000 | 1450 1550 | 16 | 34 | |
| 32 | 텍사스주립 오스틴 | TX | 공립 | 38 | 6 | 82 | 57 | 20500 | N/A | 18 | 48 | |
| 33 | 조지아텍 | GA | 공립 | 44 | 11 | 81 | 43 | 21672 | 1370 1550 | 38 | 74 | |
| 33 | UC어바인 | CA | 공립 | 34 | 1 | 81 | 75 | 15000 | N/A | N/A | N/A | N/A |
| 35 | NYU | NY | 사립 | 25 | -10 | 80 | 49 | 20500 | 1470 1570 | 11 | 26 | |
| 35 | UC샌버버러 | CA | 공립 | 32 | -3 | 80 | 67 | 13993 | N/A | N/A | N/A | N/A |
| 35 | UIUC | IL | 공립 | 41 | 6 | 80 | 54 | 19500 | 1340 1530 | 20 | 44 | |
| 35 | 워싱턴주립 매디슨 | WA | 공립 | 38 | 3 | 80 | 48 | 20484 | 28 33 | 38 | 18 | |
| 39 | 보스턴칼리지 | MA | 사립 | 36 | -3 | 79 | 37 | 19000 | 1435 1540 | 18 | 34 | |
| 40 | 릿지스 뉴브런스윅 | NJ | 공립 | 55 | 15 | 78 | 66 | 21500 | 1270 1480 | 6 | 50 | |
| 40 | 터프츠 | MA | 사립 | 32 | -8 | 78 | 39 | 16250 | 1450 1550 | 19 | 37 | |
| 40 | 워싱턴 주립 | WA | 공립 | 55 | 15 | 78 | 65 | 14615 | 1300 1520 | 7 | 17 | |
| 43 | 보스턴대 | MA | 사립 | 41 | -2 | 77 | 46 | 23250 | 1350 1500 | 12 | 23 | |
| 43 | 피오 메인캠퍼스 | IN | 공립 | 51 | 8 | 77 | 53 | 19500 | 1200 1470 | 29 | 67 | |
| 43 | 오하이오스테이트 | OH | 공립 | 49 | 6 | 77 | 63 | 19976 | 29 32 | 40 | 15 | |
| 46 | 메릴랜드 칼리지파크 | MD | 공립 | 55 | 9 | 76 | 54 | 19000 | 1360 1520 | 2 | 53 | |
| 47 | 리하이 | PA | 사립 | 51 | 4 | 75 | 40 | 21960 | 1340 1490 | 13 | 37 | |
| 47 | 텍사스 A&M | TX | 공립 | 67 | 20 | 75 | 62 | 17804 | 1150 1390 | 24 | 76 | |
| 47 | 조지아 주립 | GA | 공립 | 49 | 2 | 75 | 51 | 18500 | 1220 1420 | 48 | 68 | |
| 47 | 로체스터 | NY | 사립 | 36 | -11 | 75 | 46 | 21000 | 1390 1540 | 11 | 28 | |
| 47 | 버지니아 텍 | VA | 공립 | 62 | 15 | 75 | 48 | 21500 | 1220 1420 | 11 | 47 | |
| 47 | 웨이크 포리스트 | NC | 사립 | 29 | -18 | 75 | 38 | 21500 | 31 34 | 29 | 28 | |
| 53 | 케이스웨스턴리저브 | OH | 사립 | 44 | -9 | 74 | 40 | 24000 | 1410 1540 | 27 | 42 | |
| 53 | 플로리다주립 | FL | 공립 | 55 | 2 | 74 | 61 | 18000 | 1210 1370 | 32 | 68 | |
| 53 | 노이스타트 | MA | 사립 | 44 | -9 | 74 | 47 | 24250 | 1440 1550 | 11 | 33 | |
| 53 | 미네소타 주립 트윈시티스 | MN | 공립 | 62 | 9 | 74 | 51 | 19500 | 27 32 | 39 | 8 | |
| 53 | 윌리엄 앤드 메리 | VA | 공립 | 41 | -12 | 74 | 36 | 18500 | 1375 1520 | 18 | 52 | |
| 58 | 스톤브루SUNY | NY | 공립 | 77 | 19 | 73 | 69 | 18228 | 1320 1500 | 5 | 41 | |
| 58 | 케네디 주립 | CT | 공립 | 67 | 9 | 73 | 61 | 21500 | 1220 1440 | 6 | 44 | |
| 60 | 브랜디스 | MA | 사립 | 44 | -16 | 72 | 37 | 25648 | 1340 1520 | 17 | 39 | |
| 60 | 미시간스태이트 | MI | 공립 | 77 | 17 | 72 | 55 | 23250 | 1100 1340 | 14 | 51 | |
| 60 | 노스캐롤라이나 스테이트 | NC | 공립 | 72 | 12 | 72 | 52 | 20121 | 24 31 | 40 | 30 | |
| 60 | 런슬러 폴리텍 | NY | 사립 | 51 | -9 | 72 | 39 | 23750 | 1360 1520 | 15 | 52 | |
| 60 | 샌타클라라대 | CA | 사립 | 55 | -5 | 72 | 41 | 19162 | 1290 1480 | 17 | 34 | |
| 60 | 펜스텔리아 유니버시티파크 | PA | 공립 | 77 | 17 | 72 | 66 | 25000 | 1210 1390 | 7 | 38 | |
| 60 | UC머시드 | CA | 공립 | 97 | 37 | 72 | 81 | 16144 | N/A | N/A | N/A | N/A |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량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3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미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703)303-4556 / t.(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정성웅 보험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세계와 만나는 창
The Korea Daily
"미국의 중심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혼·파산
www.songlaw.org
송영수 변호사
법정 공인 중재관 (Mediator)
Young S. Song Licensed in MD / VA / DC
가정법 Family Law
이혼 / 양육 / 입양 Divorce Custody Adoption
합의이혼서 Separation Agreement
법정대리인 Guardianship
유언장 Wills
교통사고 Auto Accident
음주운전 DWI/DUI
파산 Bankruptcy
개인/비즈니스 파산(회생) Chapter 7&13 Chapter 11
채무조정협상 Debt Negotiation
주택차압방지 Foreclosure Defense
비즈니스 거래 Business Transaction
형사변호 Criminal Defense
고객들의 비밀보장을 철저히 지켜 드립니다.
Virginia Office
703-354-1033
10301 Democracy Lane, Ste. 105 Fairfax, VA 22030
Maryland Office (Main)
410-696-2256
3201 Rogers Avenue, Suite 301 Ellicott City, MD 21043
E-mail: YSSonglaw@cs.com
온라인 Zoom 상담 가능!
법정공인중재관 (Mediator)
첫 상담 무료 (30분)
· 이혼 상담 제외: MD Office에 한함
· 저녁 및 주말 예약 가능

10월이면 반복되는 ‘노벨상 앓이’ ... 100년을 이어온 ‘한탄’

‘폭발약을 발명한 스웨덴인 노벨 씨가 창설한 상금으로, 매년 물리학과 화학·의학·문학, 그리고 세계 평화에 노력한 인사에게 팔천 파운드씩 증여하는 다섯 개의 상이다. 세상에 명예가 한둘이 아니지만, 노벨상을 타는 것같이 명예로운 일은 없다. 서양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거니와, 동양사람으로는 겨우 인도의 시성이라는 타고르 박사 한 사람뿐이다. 조선인으로서 노벨상을 탈 만한 사람이 출생하기까지는 지식계급이 아직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겠다.’

올해 한국 수상자 나올 수 있을까

한국내 신문에 등장하는 최초의 노벨 과학상 관련 글(동아일보 1923년 9월 13일자 1면)이다. 1923년, 100년 전 일 제강점기 시절인 그때도 이 땅에선 노벨상을 부러워했다. 심지어 짧은 글 안에 노벨상을 탈 만한 지식계급이 없다는 한탄까지 들어간다. 한 세기가 지났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노벨 과학상 수상자는 나오지 않았다. 2000년 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나마 한국을 노벨상 수상 국가 명단에 올렸다.

10월 ‘노벨상 앓이’의 계절이 돌아왔다. 2일 생리학상을 시작으로, 3일 물리학상, 4일 화학상까지 과학 부문 노벨상 수상자 발표가 이어진다. 이어 5일에는 문학상, 6일 평화상, 9일 경제학상 순으로 올해 수상자들이 발표된다.

올해 한국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수 있을까. 노벨상 시즌이 다가오면 정부는 물론 학계 등 곳곳에서 노벨상을 둘러싼 행사가 이어진다. 지난달 24일에는 한국과학기술원 주최로 노벨상 수상자들과 토론하는 행사가 서울에서 열리기도 했다. 왜 우리는 이토록 노벨상 앓이를 할까. 노벨상은 무엇일까.

노벨상은 왜 최고의 상인가

노벨상, 특히 노벨 과학상의 권위는 수상자에게서 나온다. 지난 120여년 노

노벨상 명단이 곧 과학의 역사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큰 관심 한국은 평화상뿐 과학상 없어 “단기성과 매달리는 풍토 문제”

벨상 역사를 돌이켜 보면 세계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받을만한 사람이 받았다’는 평가다. 노벨상을 연구해온 임경순 포항공대 명예교수는 “노벨 과학상 수상자들의 리스트를 보면 전통 과학의 역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며 “물리학의 역사를 쓴다면 노벨상 수상자를 중심으로 쓰면 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외의 요소도 있다. “인류에 공헌한 사람을 위해 유산을 써달라”는 알프레드 노벨의 의미 있는 유언과 100년 넘게 이어오는 거액의 상금 등도 노벨상의 권위를 지켜오는 요소다.

노벨상은 누가 어떻게 뽑나

노벨상 선정 작업은 발표 1년여 전부터 시작한다. 노벨위원회는 그해 수상자 발표 한 달 전인 9월에 분야별로 전 세계 전문가 1000명에게 추천 의뢰서를 발송한다. 위원회는 이렇게 들어온 추천서를 300명 정도로 추린다. 이후 토론과 심사를 거쳐 7월까지 후보를 압축하고, 8월 말에 최종 후보 1명을 투표로 정한다.

이어 9월에 30명으로 구성된 분과별 전문가 집단의 평가를 거쳐 10월 왕립한림원에서 결정한다. 선정 과정은 비밀리에 진행되며, 수상자도 발표 직전에 통보받을 만큼 보안이 철저히 유지된다. 심사 과정은 규정에 따라 50년 동안 공개되지 않는다.

노벨상 앓이는 한국만의 현상인가

노벨상 수상 소식은 선진국 언론들도 주요 소식으로 다룬다. 가장 많은 수상자를 배출한 미국도 예외가 아니



노벨상 메달의 앞면. 노벨의 상반신 초상과 그의 출생 및 사망연도가 로마 숫자 표기법으로 새겨져 있다. (사진 노벨재단)

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27일 ‘2023년 노벨상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노벨상 시즌이 시



지난달 24일 한국과학기술원 주최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노벨상 수상자들과 함께 대화하는 행사가 열렸다. (연합뉴스)

작됐음을 알렸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달 24일 3개 부문 노벨과학상 수상이 유력한 자국 과학자를 소개하는 등 최근 들어 연일 노벨상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과학상 수상자를 아직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탓에 매년 ‘앓이’를 하는 셈이다. 임경순 명예교수는 “한국이 유독 노벨상에 집착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만큼 노벨상을 갈구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서구 중심, 남성 중심 논란도

노벨상은 공정한가 의견이 갈린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주

장의 근거는 서구 중심적 과 남성 중심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국가별 노벨상 수상 순위를 보면 1위 미국에 이어 영국·독일·프랑스·스웨덴·러시아(소련)·일본 순으로, 6위까지 서구 일색이다. ‘남성 중심적 노벨상’은 숫자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올 3월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노벨상 수상자가 전체의 3%에 지나지 않는다”며 “수 세기에 걸친 가부장적 인식, 차별, 해로운 관습이 과학과 기술 영역에서 거대한 성차별을 낳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괴란 한손 스웨덴 왕립과학한림원 사무총장은 “우리는 수상자들이 성별이나 인종 때문이 아닌, 가장 중요한 발견을 했다는 이유로 상을 받길 바란다”는 말로 노벨상의 공정성을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노벨상이 120여년간 ‘세계 최고의 상’이란 권위를 이어온 만큼 다른 상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가장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 유육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은 “노벨상이 서구 중심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할 수 있다”며 “동양인이라고 해서 필만한 사람이 되지 않고 서구인이 대신 수상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

노벨 과학상은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는 선구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가 인류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경우에 주어진다. [최초의 질문]의 저자 이정동 서울대 교수는 “정부가 2011년 기초과학연구원(IBS)을 설립하는 등 노벨상에 부합하는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를 위한 투자를 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단기 성과에 매달리는 평가 체제가 문제”라며 “올해 돌발한 일이지만 R&D 예산 삭감 등 부정적 요인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최준호 과학·미래 전문기자 논설위원

신호와 소음



김영훈의 과학 산책

과학은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하고 그 원리를 찾는 과정이다. 이렇게 찾아낸 원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예측을 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확실한 지식의 영역을 넓혀간다.

짐 사이먼스(85)는 버클리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MIT 교수를 거쳐 스토포니브룩 대학교에서 미분기하학에 크게 기여하며 수학자로서 성공적인 삶을 누리고 있었다.

40세가 된 1978년 무질서해 보이는 금융시장에서도 수학에서처럼 패턴과 원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믿고 도전해 나섰다. 학계를 떠나 롱아일랜드의 허름한 사무실에 투자회사를 차린 것

이다. 하지만 주식이나 선물 거래에서 패턴을 읽어내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려웠다. 1990년까지 그저 그런 성과를 내는 소규모 펀드를 운용하는 데 머물렀다.

그러다가 90년대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 수학적 모델링을 통한 알고리즘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인데, 컴퓨터 성능의 향상, 양질의 데이터 확보, 그리고 확률미분방정식과 기계학습의 기법을 적용하여 시장의 패턴을

읽어냈다.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도 그가 운영하는 펀드는 연 84%의 수익률을 보이며 수학적 방법의 힘을 증명했다. 이후에도 경이적인 수익률을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 미국 주식 거래의 30% 이상이 사이먼스의 방법을 따르는 퀀트 투자자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큰 부를 얻은 이후 사이먼스는 많은 기부를 통해 자폐아 치료, 학술 활동과 교육 사업 등을 지원해 왔다.

소음으로부터 신호를 분리하여 패

턴을 읽어내는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시장 예측에 요즘은 인공지능 사진, 휴대전화 사용패턴, 주유 횟수 등 온갖 데이터들에서 소음을 제거하고 패턴을 찾아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머지않은 장래에 사이먼스가 개발한 수학적 기법들이 금융을 넘어 빈부격차·기후위기·식량부족과 같은 인류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등과학원 수석부 교수

Centreville

정요한 안과 전문의

JOHN CHONG, M.D.

센터빌에 위치한 정요한 안과는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눈에 대한 모든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가족적인 안과입니다.

VIRGINIA
ADULT AND PEDIATRIC
OPHTHALMOLOGY

원장 정요한 Dr. John Chong

전공 / 경력

- 소아 안과 특별 연구원 수료
Pediatric Ophthalmology Fellowship at Children's National Medical Center
- 미국 안과 전문의 자격
Certified by the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 조지타운 대학병원에서 안과 레지던트 수료
Ophthalmology Residency at Georgetown University Hospital
- 조지 워싱턴 의과대학 (MD) 졸업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 Health Sciences

예약문의

571-210-5535

진료시간

8:30 AM-4:30 PM (월-금)

5900 Fort Drive, Suite 301, Centreville, VA 20121 www.vapoeyes.com/korea

시로 원하는 아바타 만들어, 숨진 애인과 대화도 나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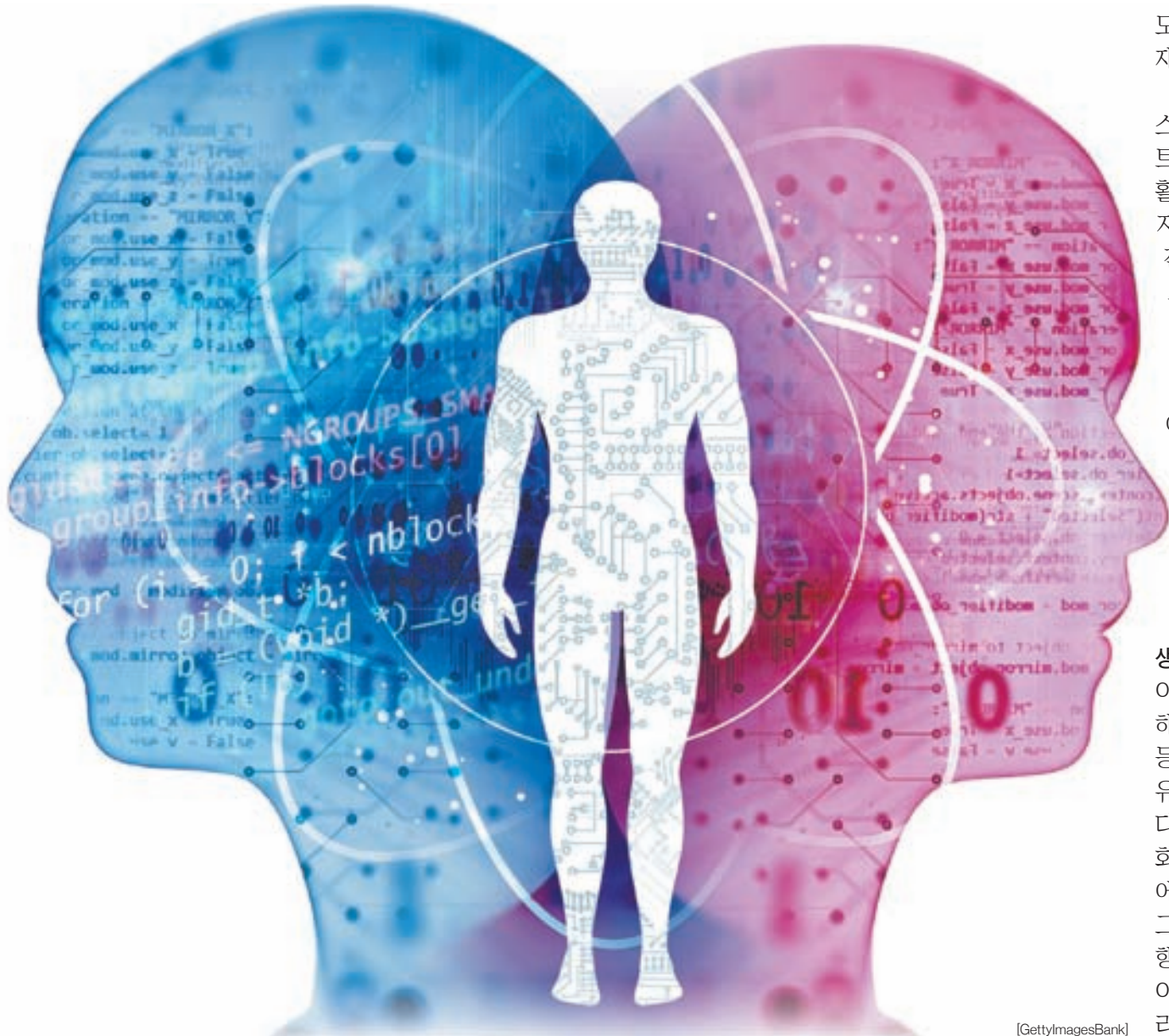
지난해 11월 출시됐던 챗GPT는 1950년대 중반 시작된 약 70년간의 인공지능 역사에서 처음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이란 것을 우리에게 던져 줬다. 기존의 AI는 '판별형 AI'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판별형 AI란 인간이 AI를 이용해 '판별' 즉, 정보를 바탕으로 어느 것이 맞는지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환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암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거나 회계정보를 바탕으로 부도가 발생할 것인지를 판별하는 것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바둑에서 알파고 다음 수를 결정하는 것도 바둑을 이기기 위해 필요한 위치를 판별하는 작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푸틴, 핵 사용 명령 등 가짜 동영상 판처
생성형 AI는 기존의 데이터와 학습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장, 그림, 음악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기존의 판별형 AI와는 구별된다. 우리가 챗GPT 등의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1년여 사용하며 이 새로운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가 높아짐에 따라, 생성형 AI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갖고 올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판별형 AI에 대한 우리의 평가와 목표는 맞음과 틀림에 중점을 두고 있다. 판별이 맞으면 정확도가 올라가는 것임으로 정확도를 올림으로 우리는 AI의 효능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AI 경쟁에서는 정확도를 올릴 수 있는 기술과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점점 유리해지는 게임이다. 하지만 생성형 AI에서는 새로운 것을 생성함으로써, 맞고 틀림보다는 성향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즉, 맞는 답이 없으므로 대량의 다른 성향의 AI를 구현할 수 있고, 이것을 나름의 시나리오에 더하여 특정 성향으로 만들어 많은 새로운 기회가 창출된다.

먼저 기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보자. 최근 동영상 사이트에는 아는 사람 또는 유명 연예인의 사진, 동영상에 이용한 성인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미국의 한 유명 인플루언서인 카린은 자신의 모습과 말투를 사용한 생성형 AI를 사용하여 가상의 여자친구 기능을 하는 챗봇을 만들어서 1분 대화에 1달러를 받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5일 만에 1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5개월이 지난 지금 가상 여자친구 서비스 사이트는 수십 개로 늘어났으며, 처음 카린으로 재미를 본 사이트에 가면 이제는 여자친구를 내 취향으로 검색하여 골라야 할 정도로 많은 인물



(GettyImagesBank)

진화하는 생성형 AI

가상 캐릭터 활용해 게임 등 제작
연예인·위인 아바타와 말동무도

메타버스서 교류

AI로 물건값 흥정, 정보 수집 적적
실제 생활과 같은 메타버스 세상

이 등장하고 있다. 앞으로 모바일 피싱에서는 실제 손자의 목소리, 말투, 행동으로 만들어진 생성된 AI 동영상을 이용한 피싱이 유행할 것이다. 요즘 생성형 AI 연구를 보면 3~5초 정도의 목소리 녹음만으로 같은 목소리 톤의 짧은 문장도 말할 수 있는 AI를 만들 수 있다.

최근 각국 정부는 AI를 통한 가짜 뉴스에 대해 심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지난 8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특집기사에서 AI가 갖고 올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당면한 실질적 위기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에서 유명 앵커가 뉴스 진행을 하며 트럼

프 전 대통령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린다는지, 푸틴 대통령이 최근의 전쟁 상황에 대하여 계엄령 또는 핵무기 사용의 명령에 대해 긴급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의 가짜 동영상은 이제 어렵지 않게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뉴스와 정보가 생성형 AI에 의하여 실제 사람의 말투와 모습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무엇을 믿고 믿지 말아야 할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당분간 자극적인 클릭을 유도하는 이런 동영상은 범람할 수밖에 없다.

이제 생성형 AI를 통해 만들 수 있는 조금 더 긍정적인 기회를 생각해 보자. 얼마 전 디즈니에서는 '피터 팬'에 나오는 킥버렐 요정의 AI를 선보였다. 홀로그램을 사용한 이 장난감은 마치 동화 속의 킥버렐이 진짜 나타난 것처럼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녀의 말투와 행동을 표현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투영한 아바타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은 향후 게임, 장난감 제작, 영상·콘텐츠 제작, 상담 등의 영역에서 게임 체인지가 될 것이다. 애인 모습과 행동을 혼란한 아바타,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 동화 속 주인공,

또는 존경하는 위인의 아바타를 사용해 단순한 말동무에서부터 정신적 조인까지도 들을 수도 있다.

미국의 스타트업 캐릭터 닷 AI는 자신이 원하는 캐릭터를 자신이 원하는 인물과 성격을 선택해 만든 후, 인터넷 상에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며칠 전 메타는 유명한 28명과 제휴해 그들의 캐릭터를 향후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그램 등에 장착해 누구나 그들과 대화하는 것과 같이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을 발표했다. 몇 초의 자료만 있으면 같은 말투를 만들 수 있지만 혹시 그 사람에 대한 연설문이나 평소 대화 등의 정보가 조금 더 있으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나름의 생각들도 구현하는 AI를 구현할 수 있다.

텔과이라는 기업은 평소 글이나 말한 것 등을 보내 주면 AI 클론을 만들어 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제 나의 클론이 만들어지거나 대신 인터넷에서 활동하며 전화를 대신 받을 수도 있다. 고인이 된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며 무엇보다

도 누구나 클론을 만들어서 영원히 존재하게 될 수도 있다.

최근 연구되는 AI의 방향은 메타버스의 개념에 생성형 AI를 통한 에이전트를 다양하게 생성해 각자 교류하며 활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지난달 스탠포드대학교와 구글의 연구진이 공동으로 발표한 생성형 에이전트를 통한 시뮬레이션에 관한 논문은 매우 흥미롭다. 그들은 '더 심즈' 시뮬레이션 게임에 25명의 가상의 캐릭터를 생성형 AI 통해 만들었다. 예를 들어 에이전트 중 한 명인 존리는 A약국의 주인으로 남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다. 그는 인근 대학교수인 에이 린과 음악을 공부하는 아들 에디와 살고 있으며 가족을 아주 사랑한다.

생성형 AI 시장, 2032년 1700조원 전망

이런 식으로 챗GPT의 프롬프트를 통해 25명의 가상 캐릭터의 성격, 관계 등이 생성된 후 25명의 에이전트는 자유롭게 더 심즈 게임의 규칙에 따라 다른 사람을 만나고 대화한다. 이때 대화는 생성된 AI에 따라 만들어지며 각 에이전트는 대화의 내용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새로운 계획이나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게임의 플레이는 에이전트의 마음에 내면의 소리로 어떤 행동이나 결정을 하게 만들며(예를 들어,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마음먹다) 그 이후는 에이전트의 관계와 성격에 의하여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된다.

초기 시도이지만 우리는 이제 다양한 환경에서 다른 성향을 가진 에이전트들을 우리 마음대로 생성하여 그들이 어떻게 대화하고, 교류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퍼뜨려가는가를 연구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각자의 아바타가 활동하며 대신 광고를 해 주고, 물건을 흥정하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실생활과 근접한 메타버스가 만들어질 것이다.

블룸버그 인텔리전트 리포트에 따르면 현재 생성형 AI 시장은 약 50조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매년 40% 넘는 성장을 해 2032년까지 약 17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에게 아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에이전트 창조의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생성형 AI의 활용에 대한 시도는 이제 막 시작된 단계이며, 커다란 가능성과 함께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어떤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도 진지하게 진행돼야 한다. 이준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THE FIRST OR NOTHING”

Tysons Office: 8000 Towers Crescent Drive, FL 13, Tysons, VA 22182
Phone: 703-278-2773
Kakao Channel: 제이앤비에이컨설팅
Email: pct@jbessay.com
Website: www.jbessay.com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8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메디메디를 위한 다양한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플랜
- / Part C (HM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저렴한 약 값을 위한 회사별 비교
- /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앤디 김

VA Lic# 639047

대입 들여다보기

나이 든 대학생, 학교에 잘 적응하려면 수업 덜 뻑뻑하게, 소속감 느끼게 행동

흔히 '대학생'이라고 하면 우리는 젊은 성인의 이미지를 떠올린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대학생 숫자가 늘고 있다.

소위 '배우는 성인'(adult learner) 또는 비전통적인 학생으로 알려진 이들은 관습적으로 우리가 알던 대학생의 틀에는 들어맞지 않는다.

'루미나 파운데이션'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대학생의 37%가 25세 이상이다.

성인 학생들은 대학으로 돌아갔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한편으로는 유리한 점도 많다. 대학들은 학생의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사실상 나이가 더 많은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 있어서 다양성을 증진시킨다.

일단 합격하면 나이가 많은 적든 남들과 똑같은 학업을 수행해야 하고, 재정적 부담도 다른 젊은 학생들과 똑같이 져야 한다. 그러나 이들의 대학 경험은 전통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가정과 학업의 의무를 병행할 경우엔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나이 많은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들은 많은 경우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의 미래 교육과 자신의 은퇴를 위해 돈을 저축하려고 애쓴다. 그래서 자신의 대학 교육을 위해서는 마음 편히 돈을 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재정 보조가 가능하지만 대학에 다니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전부 충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다. 이들은 또 다른 직업이 있거나, 육아를 해야 하거나, 연로한 부모님을 돌보면서 대학을 다닐 경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많은 대학들은 나이 많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봐주지는 않는다. 또한 이들은 경험이나 시각, 상황에 있어서 젊은 학생들이 겪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면을 가졌기 때문에 대학생으로서 안착하는 것 자체가 도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받는 혜택도 많다. 나이 많은 대학생들은 실제 세계에서 풍부하게 경험한 것들을 강의실로 가져온다. 이들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대학의 학업을 훌륭하게 수행하겠다는 동기 부여가 되어 있으며, 정해진 시간에 학위를 취득하고자 최선을 다한다.

이들은 종종 대학 동기와 교수들의 존경을 받는데, 그것은 이들이 강



의실에 가져오는 독특한 시각, 그리고 캠퍼스의 다양성에 기여한다는 점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이가 많다는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먼저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나이 많은 대학생이 되었다면 캠퍼스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거나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수다를 떨면서 친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

만약 수업이 온라인 방식이라면 토

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함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뭔가 말하면 반응을 잘 해주고, 질문도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잘 맞는 대학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직장을 다니다가 대학생이 된 경우가 간극을 어떻게 부드럽게 메울 수 있을까?

일을 하다가 학생이 된다면 풀타임으로 학업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그 직업을 떠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

로 융통성 있게 수업 스케줄을 짤 수 있는 대학을 찾아봐야 한다.

거주지역 내 커뮤니티 칼리지나 사립 대학, 공립 대학들을 리서치 해보라. 이들 대학이 야간과 주말 수업을 제공하는지, 또는 온라인 수업이 있어서 내가 유동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

강의실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 수 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무리해서 수업 스케줄을 짜지 말 것을 추천한다.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하는 대신 1~2개의 대학 수업을 듣는 것으로 시작한다. 만약 학위를 따기까지 헌신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 확인이 안전다면, 시험 삼아 수업 1개를 들으면서 크레딧을 취득한다.

다음은 나이 많은 학생으로서 어떻게 친구를 사귄 수 있을지 생각해본다. 이들은 처음에 대학 생활이 이상하게 느껴지고, 자신이 고립되었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기죽지 말고 자신의 오리지널 모습에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 학생들과 공통적인 관심사를 찾아서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빈센트 김 카운슬러 어드미션 마스터즈

▶ 1번 '대학 순위'에서 이어집니다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료 평가(20%), SAT/ACT점수(5%)에 대한 가중치는 변경하지 않았다.

◆ 변화에 따른 결과

상위 10개 전국대학은 약간의 변동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브라운대는 펠그랜트 졸업률, 졸업률 성과, 재정지원, SAT/ACT 성적, 교수 급여 및 학생수 등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 공동 13위에서 공동 9위가 됐다. 반면 시카고대는 1세대 졸업률 요소에서 부족해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6단계 하락해 코넬, 컬럼비아와 같은 공동 12위가 됐다.

뉴저지 주립인 럿거스뉴와크(Rutgers-Newark)와 UC머시드가 크게 도약했다. 공동 97위였던 UC머

시드는 다른 6개 학교와 함께 공동 60위를 차지했다. 럿거스도 30계단 이상 급등해 UC샌타크루즈, 일리노이 시카고, 우스터폴리텍(매사추세츠)와 함께 공동 82위를 기록했다.

웨이크 포레스트(노스캐롤라이나)와 툴레인 대학교(Tulane University 루이지애나)를 포함한 다른 학교들도 순위에서 떨어졌다. 웨이크 포레스트는 공동 29위에서 공동 47위로 떨어졌고, 툴레인은 공동 44위에서 공동 73위로 떨어졌다.

◆ 2023-2024 순위

아이비리그 프린스턴이 13년 연속으로 전국 대학 순위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2위에 올랐던 MIT가 자리를 지켰고 지난해 공동 3위였던 하버드는 스탠퍼드와 공동 3위를 유지했고 오히려 예일이 5위가 됐다. 이들을 이어서 유엔(6위), 컬텍, 듀크가

공동 7위, 브라운, 존스홉킨스, 노스웨스턴이 공동 9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 순위부터는 큰 변화가 있었다. 우선 코넬, 컬럼비아가 지난해에 비해서 상승했고 시카고대가 10위권 밖으로 나오면서 세학교가 공동 12위가 됐다.

큰 변화는 주립대학의 공동 선두 UC버클리(UCLA)가 이뤄졌다. 두 대학은 이번 가중치 변화와 산정요소 변경의 최고 수혜자로 보인다. 지난해 공동 20위였던 두 대학은 공동 15위가 됐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라이스(17위), 다트머스, 밴더빌트(공동 18), 노터데임(20)을 제친 것이다. 누가봐도 이들 대학은 변화에 따라 평가절하된 대학들이다. 이들 뒤를 미시간 앤아버(21), 조지타운,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공동 22)의 경우도 순위에

있어서 주립은 올라오고 사립은 내려간 결과다. 이런 현상은 공동 24위를 차지한 대학에서도 나타난다. 지난해에 비해서 사립(카네기 멜론, 예모리, 워싱턴세인트루이스)은 하락, 버지니아 주립은 상승했다. 이런 경향은 계속된다. 공동 28위인 UC데이비스, UC샌디에이고, 플로리다 주립은 상승, USC는 하락했다.

이런 그동안 사립대학들이 신경쓰지 않았던 '사회적 이동성'을 산정요소로 넣게 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사립대학들이 어떤 반응 보일지, 올해 입시부터 어떻게 변화를 줄 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고 이번 입시를 반영하는 2024/2025 대학 순위에서나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주립대학만으로는 스탠퍼드(3위), 컬텍(7)이 최상위권을 유지했

고 USC가 공동 28위, 샌타클라라대(60), 페퍼다인(76), 로올라메리마운트대(93), 샌디에이고대(98) 등이 100위 내에 들었다. UC계는 버클리(LA)(공동 15), 데이비스, 샌디에이고(공동 28), 어바인(33), 샌타바버러(35), 머시드(60), 리버사이드(76)로 이어졌다.

▶ 표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

US뉴스가 평가한 '평가 총점'의 순서대로 선정됐다. 평가 총점이 같은 경우 '공동 순위'다. 'SAT/ACT중위 50%'는 성적순으로 하위 25%, 상위 25%를 제외한 학생들의 성적이다. 만약 100명이라면, 26등부터 75등까지의 성적이다. SAT는 1600점, ACT는 36점이 만점이다. 순위변화는 전년 대비다. ACT/SAT 제출율은 신입생 중 대입지원서 제출한 지원자 비율이다.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기억 못하는 광고에 얼마를 쓰시겠어요?

YouTube

스몰 비즈니스, 유튜브 광고가 압도적인 5가지 이유

1. 건너뛰면 광고비 없다
2. 건너뛰어도 고객이 기억한다
3. 원하는 지역에서만 광고한다
4. 사업체를 눈부시게 차별화한다
5. 하루에 커피 한잔 값이면 한다

지금 전화주세요!
내 사업체의 미래를 바꾸세요~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문자마케팅 유튜브광고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제작 온라인 쇼핑물 이메일 마케팅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육이완치료
전기치료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아듀 항저우... 2026년 아이치·나고야서 만나요 8일 중국 항저우 올림픽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폐회식에서 무용수들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 무대 뒤편으로 'LOVE ASIA(사랑해요 아시아)' 조명이 환하게 불을 밝혔다. 다음 대회는 2026년 일본 아이치현과 나고야에서 열린다. 오른쪽 사진은 대한민국 선수단이 폐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42개로 종합 3위를 달성했다. [AP=연합뉴스, 뉴스]

“기권해도 돼” 엄마 외침에도... 안세영, 무릎 부상 딛고 2관왕

배드민턴 단식 천위페이 잡고 금 1세트 경기 중 무릎 잡고 쓰러져 2세트 29분 공방전, 3세트 21-8 승 전문가 “앞으로 10년 안세영 시대”

세계랭킹 1위 안세영(22·삼성생명)이 ‘배드민턴 여제’의 품격을 보여줬다. 부상을 딛고 맞수를 제압하며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안세영은 7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빈장체육관에서 열린 항저우 아시안 게임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3위 천위페이(25·중국)를 세트스코어 2-1(21-18, 17-21, 21-8)로 꺾었다. 지난 1일 여자 단체전 금메달에 이

어 개인전도 금빛으로 장식한 안세영은 지난 1994년 히로시마 대회 방수현 이후 29년 만에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2관왕에 올랐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7일 개인전 5종목(남녀 단식·남녀 복식·혼합 복식) 결승을 진행하기에 앞서 일정을 급히 변경했다. 당초 2번째로 열기로 했던 여자 단식 경기를 맨 마지막으로 돌렸다. 아시안게임 전체 일정 중 가장 마지막에 열리는 경기에서 중국 선수 천위페이가 안세영을 꺾고 홈 관중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 마무리하는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안세영이 통쾌한 승리를 거두면서 조직위의 구상을 뒤엎었다. 안세영은 지난 5일 열린 개인전 8강

경기 도중 무릎을 다쳤다. 4강전과 결승전을 치르는 동안 상태가 악화됐다. 천위페이와의 결승전 1세트 18-16으로 앞선 상황에서 갑자기 극심한 통증을 느낀 듯 무릎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괴로워하는 딸을 관중석에서 지켜보던 어머니 이현희씨가 “그만해, 기권해도 돼”라고 외칠 정도로 안쓰러운 장면이었다. 아픈 무릎을 붕대로 칭칭 동여맨 안세영은 투혼을 발휘한 끝에 21-18로 1세트를 가져왔다. 이어진 2세트를 17-21로 내준 뒤 3세트에 부상을 뛰어넘는 투혼을 발휘하며 기적 같은 21-8 승리를 거둬 경기를 마무리했다. 기적의 출발점은 2세트였다. 안세영

은 통증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뛰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차분한 방어와 구석을 찌르는 공격으로 랠리를 최대한 길게 끌고 갔다. 천위페이의 약점인 체력을 소진시키기 위한 승부수였다. 비록 2세트에선 접전 끝에 4점 차로 졌지만, 무려 29분 동안 공방전이 벌어졌다. 예상대로 천위페이는 3세트 들어 움직임이 눈에 띄게 둔해졌다. 안세영은 8일 인천공항에서 열린 귀국 기자회견에서 “1세트 도중 오른쪽 점프 동작을 할 때 무릎을 펴는 과정에서 강한 통증을 느꼈다”면서 “다친 뒤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힘을 빼고 스트로크 하나하나에 집중했다”며 “(기권하라는) 어머니의 외침을 못 들었지

만, (들었더라도) 계속 뛰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위페이는 5년 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 당시 아시안게임 데뷔전을 치른 안세영에게 1회전 탈락의 굴욕을 안겼다. 이후 도쿄올림픽 금메달도 목에 걸었다. 그런 천위페이를 맞아 무릎 부상을 안은 채 승리를 거둔 건 역설적으로 안세영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증거다. 내년 파리올림픽에서도 금메달에 도전하는 안세영의 가장 큰 적은 부상이다. 그는 “걷는 데 지장 없고 가볍게 뛸 수 있는 정도”라고 무릎 상태를 설명한 뒤 “경기 내내 매우 아팠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정신력 하나로 버텼다”고 했다. 송지훈 기자

해피엔딩 황선홍호 ‘파리 정벌’ 나선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23일간의 여정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했다. 황선홍(55) 감독이 이끄는 한국 24세 이하(U-24) 축구대표팀은 7일 중국 항저우 황룽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남자 축구 결승에서 정우영(24·슈투트가르트)·조영욱(24·김천 상무)의 연속 골에 힘입어 숙적 일본에 2-1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일본은 사토 게인(브레멘), 마츠오카 다이키(그레미우), 마츠무라 유타(가시마 엔트러스), 니시가와 준(사간 도스), 바바 하루야(콘사도레 삿포로)

등 독일·브라질과 일본 프로리그 출신 정에 멤버로 맞섰지만, 한 수 위 기량을 앞세운 한국에 무릎을 꿇었다. 2014년 인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 우승한 한국은 아시안게임 최초로 축구 3연패를 달성했다. 황선홍호는 아시안게임 개막전까지만 해도 각종 악재에 고전했다. 지난해 6월 U-23 아시안컵 8강에서는 일본에 0-3으로 완패하면서 탈락했다. 지난 6월 중국과의 원정 평가전에서도 황선홍호는 0-1로 졌다.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엔 에이스 이강인(21·파리생제르맹)이 부상을 당

한 데 이어 대표팀 합류가 늦어지면서 전술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그러나 황 감독은 지난 16일 항저우로 출국하며 “할 수 있다. ‘파부침주’(破釜沈舟·밤지을 술을 깨뜨리고 돌아갈 때 타고 갈 배를 가라앉힌다)의 각오”라고 밝혔다. 막상 대회가 시작되자 한국 대표팀은 “우승은 어려운 것”이라는 세간의 예상을 뒤엎었다. ‘팔색조 전술’(로테이션 시스템)을 앞세워 7전 전승에 27득점 3실점이라는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아시아 정상에 섰다. 이강인은 항저우에서 진정한 ‘골든 보이’로 거듭났다. 이강인은 2019년

U-20 월드컵에서 최우수선수로 뽑혔다. 하지만 당시 한국은 준우승에 그쳤다. 이강인은 “우승했으니 지금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뒀 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해 더욱 특별하다. 사실 병역은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회 전부터 질타를 많이 받았다. 그래도 감독님께서 선수들을 믿어주시고, 선수들도 감독님을 믿었다”고 덧붙였다. 이강인은 우승을 확정된 뒤 금메달을 든 자축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게재했다. 그러자 PSG 전·현직 동료들의 축하 인사가 잇따랐다. PSG 동료이자 세계적인 수퍼스타 킬리안 음바페는 ‘박수 이모티콘’을 남기며 가장 먼저

축하 인사를 건넸다. 공격수 정우영은 이번 대회를 통해 축구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 그는 8골을 몰아치며 득점왕에 올랐다. 정우영은 원래 ‘골잡이’가 아니었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2021~22시즌 5골, 2022~23시즌엔 1골(이상 프라이부르크)에 그쳤다. 슈투트가르트로 이적한 후 시즌엔 아직 골이 없다. 정우영은 “감독님과 동료들이 슈팅을 더 많이 때리라고 믿어준 덕분”이라며 마침 끝에 있던 황선홍 감독에게 장난스럽게 입술을 내밀어 뽀뽀하는 시늉을 했다. 황선홍 감독은 곧바로 내년 파리올림픽 준비에 돌입한다. 그는 “이게 끝이 아니고, 내일이면 또 (우승을) 갈망하게 될 것이다. 피주영 기자

① 워싱턴 중앙일보

직원 모집

워싱턴 중앙일보에서는 진취적인 마인드로 성실히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 **모집 분야: 광고 영업직 0명**
일반 사무직 0명
- 기본 MS office 프로그램
- ▶ **자격: 신입 및 경력 (풀/파트 타임)**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 **근무 혜택: 회사 내규에 따름**

이력서: infokddc@gmail.com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십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prosperlaw.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카툰 릴레이

식스센스

THE SIXTH SENSE

오늘의 주제 **가족**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양영순 · 메가썬킹 · 손준혁 ·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10월
구
인
광
고

소자본 비즈니스 하실분

시대에 맞추어 살론 몰에서
살론 비즈니스를 소자본으로 운영하실 분 찾습니다!

Edge
 넉넉한 장소안에 개인용 살론 부스를 마련, 1~2명이 작업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이 제공되며
 각 방의 개인 열쇠와 입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살론 공간은 원하는 대로 배치와 설치, 포인트 색도 바꿀 수 있습니다.

-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위치 (리치몬드 하이웨이 선상)
- 무료 주차 공간 및 고속도로 소비자 지역
-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잘 꾸민 욕실/복도/응접실 완비!
(고객들이 편하게 기다리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 주당 \$325(유포) / 청소는 각자 / 보증금 \$2,000 환불가능!

총 \$3,000 미만으로 자영업을 신속하게 개업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문의 **703-867-5919** www.EdgeSalonStudios.com

MART Companies 직원모집

모집부서 인사, 영업, 행정, 시설관리, 물류센터

위치 Herndon, VA
Upper Marlboro, MD

자격요건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베네핏 401K, 회사 리조트, 스폰서쉽
보험, 유급휴가 / 병가,
Smart Card, Life Insurance 등

지원방법 이메일

- 이력서 : aaron.kim@hmart.com
- 문 의 : 240-546-0600 ext 222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3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롯데플라자 스티어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티어링점(VA)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대형 슈퍼마켓 능력있는 매니저를 모집합니다

- 정육부 1명/ 그로서리 1명
- 경험과 능력에 따른 우대
- 은퇴연금/의료보험 제공
- 주말근무 가능하신 분
- 내셔널하버 MGM근처
(495 벨트웨이 EXIT 4A, 애넌데일 10분 거리)

이력서 : jumbo.food@gmail.com
전화 : 703-577-2425 Mr. 박

Jumbo International Supermarket

FOR SALE (사업체 판매)

Woo Tire Co.

트럭 중고품 타이어 Shop
DC 노스이스트 공장 지역
30년 동안 운영한 점포
단골 손님 500여 명
타이어 1본 판매 65% 마진
장비 10여 만불 보유

영업시간 : 9am ~ 4pm (5½day)
Rent/월 : \$2,000 (면적 3,000 sf.)

202-258-6384

코웨이 DC 지점 직원모집

- 정규직 (Full Time) 직원
- 콜센터 업무 (고객 응대)
- 초보자 가능
- 유급휴가 / 401K 지원
건강보험 (Dental, Vision 포함)
- 취업에 결격 사유 없으신 분

이메일 또는 전화로 면접 및 문의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hongyoonsin@coway-usa.com
703.992.0835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 라이선스 보유
- J-1(교환교수, 인턴)
-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모집

덴탈 어시스턴트 구합니다.

- 파트타임 (월/화/수/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넌데일 회계사무소 직원모집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Diamond Nails Spa 매매

(Vienna VA 소재)

- Sale Price: \$290,000
- Weekly's Sales: \$6,300 (평균)
- 단독건물 단독사용. (약 3,000 SQF, 1층, 2층)
- 원하시면 건물 매매 가능.
-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 파트너십으로 여러 다양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 Rent: \$7,880 (모든것 포함) (10년간 렌트비 동결)
- 노던 버지니아의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의 장소.

• 주 소 :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 연락처 : 571-421-086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일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3년 10월 10일 화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구인/구직

<사무직/세일즈마케팅>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hr@worldbankcard.net
▶703-333-3100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풀타임가능하신분
-영어와 컴퓨터사용가능하신분
-무경험자도 성실히함께하실분
▶이력서 topcpainfo@gmail.com

**스마트보험에서 역량있는
P&C Specialist 인재를 모집니다.**
*신입 환영/경력자 우대
*401K / 그룹건강보험 / PTO
*H1B/영주권스폰서가능
HR 담당자 : 703-639-0882
▶smartacct@solomonus.com

케어피플 홈헬스 오피스 풀타임 직원모집
센터빌 HR 부서/ 애난데일 Billing 부서
각 1명(컴퓨터, 영어 필수)
▶이력서 : carepeopleinfo@gmail.com

페어팩스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 Janammi0410@gmail.com

Fairfax 보험사무직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유경험 대우 베네핏 제공 \$4만 이상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여행사 오퍼레이션 담당 및 매니저 급구
703-543-2322
▶이메일: ceo@toptravelusa.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베네핏 제공
보험 에이전트 유경험 45k-50k
coverworldgr@gmail.com
▶571-232-0702

코웨이 DC 지점 정규직 직원 모집
콜센터 업무 (고객 응대). 초보자 가능
한국어 및 영어 가능자 유급휴가, 건강보험
(Dental, Vision 포함), 401K 지원
취업에 결격사유 없으신분
hongyoonsin@coway-usa.com
▶703-992-0835

WBS에서 직원 모집합니다.
Credit Card Terminals, POS 경험자.
업계 최고 대우, 유급휴가, 건강보험.
문의 및 resume:
▶ info@worldbankcard.net.

L & B Universal, Inc. Chantilly, VA
HELPER, TECHNICIAN 구함
▶703-678-1749

애난데일 부동산회사-리셉셔니스트 구함.
Megarealty@gmail.com
▶703-534-4989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경험필수
-3년이상 회계업무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타이슨스 코너 밀에 위치한 시계 및 주얼리
리퍼어 샵에서 영어 능통한 세일즈 하실분
구합니다.
파트타임 & 풀타임
fastfixusa@gmail.com
571-633-0766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구함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Annandale에 위치한 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구함.
703-946-8557

Silver Spring, MD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유, 무경험자 구함.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험자 우대
Benefit (건강보험/보너스/ 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성실히함께 하실분
luvacct1986@gmail.com

유 재산 공인회계사(Annandale, VA)에서
함께 일하실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employeehire13@gmail.com

JTBC 워싱턴 총국 채용공고
JTBC 워싱턴 총국에서 촬영감독 채용
- 근무조건: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 근무내용: JTBC 뉴스용 보도 촬영 및 기타
-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 미국 취업에 결격사유 없는 분
-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phil9@jtbco.kr
josephleejtbco@gmail.com

CUSTOMER SERVICE, 전산부 직원을
모집합니다. 유경험자 우대합니다.
703-712-7089

Personal Injury firm in Fairfax City is
seeking a full-time legal assistant.
Please email resume to:
Cyoona@davidmarkslaw.com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 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 저허 사무실과 동반 성장을 원하
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도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
703-256-5050

MD 게이더스버그 달라스타운구인
매장스탁, 매장 관리 풀타임,

파트타임 시간 조절 가능
buyandsave9661@gmail.com
443-812-1087(텍스트)

Seeking Full Time / P&C Licensed &
Experienced
-Assistant Manager
-\$70,000/yr
- Paid Vacation & Retirement Plan
Requested contact from Eligible
candidates only:
joshuaoh123@gmail.com
703-973-5900

공인회계 사무실 구인
Full & Part time 직원 구함
Benefit 있음.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 wjkim0111@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텍스 시즌,
토요일 근무 가능한 파트타임 인턴 모집.
무경험 ok. \$13-15/h. 간단한 이력서
cpaoffice1212@gmail.com

보험회사 직원 구인 (Annandale)
- Full / part time - 컴퓨터/영어필수
- 유급휴가, 은퇴연금, 월-금
연락처 gpark@withcornerstone.com
301-237-8782

애난데일/센터빌 회계사무실
CPA 또는 EA 자격 우대/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yiccompany.com
문의: (703)345-9594 Financial services

NEST Energy LED Sales(영업)사원 구함.
성실히함께하실분 환영. 최고의 우대
사상장만 높은 성장가도를 달리는 시장.
E-mail: nestenergy@yahoo.com
Mob. (703)855-3565
Ph. (703)712-7162

페어팩스 지역 AGM 사무직/풀타임
쾌적한 사무실 환경/주 5일 근무
- 이중언어(한국어/영어) 우대
- MS Office (Word, Excel 사용가능자)
- 각종혜택 401(k) PSP & Group Benefit
- Paid Holidays & Vacations
- 영문 이력서 / HR@agminstitute.org

<병원/치과/덴탈랩/한의원>

나투라치과
덴탈 어시스턴트 구합니다.
파트타임 월/화/수/금, 영어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MD 베데스다 한방병원
바디 /페이셜 마사지사
월드프 지역 도넛가게에서
낮 시간대 함께 일 할 여자분 구합니다.
▶301-609-0432

급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풀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x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Fairfax Medical Center 위치한 척추신경
병원에서 마사지 테라피스트 구인
파트타임/풀타임 가능 (월-토).
시간당 \$50-60 가능합니다.
이력서 : gofrcr@gmail.com

병원에서 일하실분
Catonsville/ Silver Springs
(영어/한국어가능) 경력자우대
Manager(Fulltime)
Receptionist(Fulltime)
*Vacation/Sick/Holidays
*Medical Insurance
*401(k) match *Bonuses
Career@nanoommedicalgroup.com
213-378-0144

페어팩스에 위치한 척추신경 병원
월목 오후 2:00PM-8:30PM / 화금 오후
11 AM-5 PM / 수요일은 옵션(10AM-
4PM) 한국어/영어 이중언어 요구됨
일 할 수 있는 신분/ 무경험, 학생도 환영
전화: 703-539-8822

닥터오피스 프론트일 하실 성실하신분
영어 한국어 모두 구사 가능하신
취업에 결격사유 없으신분
근무시간 월요일~금요일 9AM to 5PM
resume.slim@gastrohealth.com
703-642-0900

페어팩스 성형외과 리셉셔니스트 구함
이중언어, 풀/파트타임 월-금.
베네핏:건강보험, 401k, 유급휴가
초보 트레이닝, 유경험자우대.
이력서제출: anyosupa@yahoo.com
703-981-6491 문자요망

페어팩스에 있는 내과
금요일 Nurse Practitioner와
리셉셔니스트 풀/파트타임 구함
703-505-0204

메릴랜드 치기공 구인
세라믹파트 경력자 & 딜리버리 기사구인
240-477-5683

치과 직원 구함 경력직 풀/파트
어시스턴트 1명, 경력직 리셉션 1명
Resume email: govaepic@gmail.com
703-574-0528

닥터 오피스에서 오래 일하실분
락빌/콜롬비아/센터빌
파트타임, 풀타임, 이중언어
301-580-5777

Annandale에 위치한 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구함.
703-946-8557

센터빌, 첼트리 물리치료병원
Receptionist / 한국어, 영어 필요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치주 임플란트 전문 치과병원
풀/파트 어시스턴트 1명/리셉션 1명
경력직 우대/ 초보자 교육가능
이메일: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오피스 직원구함
센터빌 지역, Full/Partime /한/영 가능
Dental Assistant/Front desk
centrevilledentalcare@yahoo.com
703- 830- 9990

치과 어시스트 / 리셉셔니스트 구함
Bilingual (Fluent in English)
Full Time/Part Time available
Rockville, Gaithersburg Area
301-926-9692

<식당/제과/델리/식품>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콜드스톤(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매니저 구함 영어소통 가능하신분
연봉 5만(현직 이주, 업무교육후)
펜스테이트대학주변, 학군 최우수
배우자도 함께 취업시 고소득 (취업기회)
영주권스폰서 협의 가능. DON 문자주세요!
▶201-316-6754

식당 동업자 구함
한식 주방경험과 약간의 운영자금 가능하며
전적으로 맡아 운영해 주실분!!!
▶202-553-8551

H-Mart Herndon 직원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 -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구인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타일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세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혜택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센터빌 Honest Grill 구인
-호스트/호스텔스 월-일 저녁
(저녁 5:00PM 시작)
-Server 월-금 5일 점심
(점심 11:30AM-3:30PM)
시간당 \$20불 보장
▶703-517-6439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 구인
전산부 및 RECEIVING 직원을 모집.
경력자 우대.
accounting@kmarketusa.com
▶703-712-7089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TAXI
명인택시
공항 픽업 & 라이드
장거리 환영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703-470-5238
571-246-1942

한식 식당
동업자 구함
애난데일 중심지 한식당
한식 주방 경험자
전적으로 맡아
운영해 주실 분
문의
202-553-8551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SHADY GROVE
BARBER & BEAUTY
구인
게이더스버그
남/여 머리하시는 분
모십니다!
9049 Gaither Rd.
Gaithersburg, MD 20877
301-926-3638
301-538-4246(Soo)

시니어케어 용도 주택 렌트
-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 아름다운 조경의 큰 땅,
전체 리모델한 저택
-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 층 각자 풀키친과 세탁장
- 12베드룸, 6 풀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 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 Serious Inquiries Only
* Agent 환영
문의
703-244-3453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0

구인/구직광고와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0일 화요일 중앙일보

스프링필드 막창도둑 서버구합니다
443-953-1127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홀 맡아주실분 구합니다
영주권스폰도 해드립니다.
문의사항 (703-473-6022) 연락주세요.

챌트리 Cafe Moment에서
금토 오후 파트타임 구합니다.
703-376-8090

메릴랜드 락빌, 베이커리&버블티
같이 일하실분. 파트타임, 풀타임
703-717-2596

아침 캐시어 구합니다. 높은페이, 시간 조절.
443-621-4951

스프링필드 버지니아 막창도둑
코리안 bbq 서버 매니저 구합니다.
443-953-1127

Elkridge Deli 풀/파트타임 여자분 구함
410-979-9211

델리에서 점심시간 도와주실분
타이슨스 코너지역
703-867-9374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함께일할 홀 담당할
실분 찾습니다 hour pay \$12불 plus tip
시간 11시-8시반까지
703-473-6022

오피스델리 그릴샌드위치 싸실분 경험자 우
대. 풀타임 (07:00-15:00)
위치: 스프링필드 매트르옴 오피스단지
703-740-7344

케리아웃에서 함께 일하실 분 센터빌에서
가까운, 유/무 경험자, 파트/풀타임
703-955-6962

챌트리 소재 일식 레스토랑에서 함께 일하실
스시맨, 스시보조 파트타임 구함.
센터빌, 챌트리, 헌돈 거주하시는 분 환영.
703-980-3076

센터빌 중식당 서버구함
풀/파트 타임 시간조정 가능
703-300-7218

오피스 델리에서 일하실 분
베데스다 전철역 부근 7AM~3:30 PM
301-785-4706

챌트리 지역 식당 캐쉬어 구함 \$15 / Hour
수, 목, 금, 토, 일 (5일 11시-8시반)
703-341-7912

애난데일 누리치킨에서
주말에 일하실 직원 구함. 학생환영
703-989-9828

센터빌 지역, 베이커리에서 제빵사와
홀에서 일하실 분. 주말 알바, 주중 알바
풀타임, 파트타임 모두 가능
703-414-9000

락빌 정부건물안 카페, 월-금
그릴 샌드위치 하실분 6:30am-3:00pm
703-395-4380

볼티모어 한아름에서 가까운 캐리아웃에서
아침에 캐시어 보실분 구함. 시간조절가능
19불. 캐튼스빌에서 10분거리

443-621-4951

센터빌 지역, 베이커리
제빵사와 홀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주말 알바, 주중 알바, 풀타임, 파트타임
703-772-1800

엘리콧 시티 롯데인 일식당 Ikkyu에서
같이 일 하실분 구합니다. 영주권스폰 가능
410-203-9919

매나세스 코스코 앞 아이스크림 가게
주말 주중/ 풀, 파트타임 캐셔 구함
703-463-4004

센터빌 베이커리 카페에서
바리스타, 캐쉬어, 키친팀을 구합니다.
703-810-9318

일식당 파트타임 일요일 휴무 Oakton
571-505-4572

델리 그릴 / 콜드 샌드위치 유경험자 구함
Mon-Fri 7am-3pm 시간 조절 가능
WOW Deli, Gaithersburg, MD
301-990-3254 / 571-232-7717

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일식당에서
스시 또는 스시헬퍼 구함
540-735-5873 (메세지 요망)

<이·미용실/네일/마사지>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 301-926-3638 / 301-538-4246

챌트리에 있는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커미션을 원하는 미용사 구함.
571-215-6767 (메세지 남겨주세요)

애난데일 해와달(SUN'S HAIR)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나분과(커미션 가능)
리셉션리스트(풀, 파트타임 가능)
헬퍼 하실분 구합니다.
703-750-2424
703-717-8256 (메세지 남겨주세요)

마사지, 지압하실 분을 구합니다.
571-237-3411

챌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커미션이나
부스렌트 원하는 미용사 구합니다.
정확한 위치와 자세한 내용 전화/문자 요망
571-215-6757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렌트 한.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 등등
활용 가능. 문자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301-852-9298

챌트리에 있는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커미션 개인 비즈니스 원하는 미용사 구함.
(메세지 남겨주세요)
571-215-6767

Stafford에 있는 이발소
경력있는 이발사 매니저를 구합니다
571-278-3701

알렉산드리아 지역 이발사 구합니다.
703-408-1119

중앙일보 광고 및 구독
Tel. 703-281-9660

애난데일 해와달 미용실
헤어디자이너/리셉션리스트(파트타임 가능)
703-750-2424 메세지 남겨주세요!
703-717-8256

샌스바버(롤톤)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 분
703-781-8458

<세탁/일터레이션>

카운터보면서 바느질하실분.
파트타임, 풀타임, 엘리콧시티.
410-750-0483

알렉산드리아 지역 세탁소 픽업스톨에서
파트타임 하실 분
연락처: 703-300-4959

엘리콧시티 픽업스토어
바느질하는 분. 9-6 목요일.
410-926-3200

Alteration 하실분 Lorton VA
703-599-5331

버지니아 패어팩스 지역 세탁소
올터레이션 & 캐쉬어, 재킷 프레스 구함
301-404-0701

셔츠, 바지 다리실분 주3일
Upper marlboro (largo) MD
703-850-3714

세탁소 카운터, Stafford VA 파트 or 풀타임
703-618-9872

<정비/바디샵>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 240-246-4477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일하실 분
폴스처지 지역
703-577-5866

자동차 정비 / 헬퍼 경험자 구함.
유경험자에 한함/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
703-887-5355

챌트리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함께 성실히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조지아 한인타운 돌루스에 위치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정비사(경력자) 구함
678-417-1567 문자요망
678-557-1567

Chantilly va. (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 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
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건축/전기/플러밍/냉난방>

EV Electric Co.
차, 베네핏, 전기기술자, 무경험 가능
973-997-5805/ 정

Mill Work Installer 구합니다
캐비닛 & Pennel (wood work)
헬퍼 및 기술자 구함 (몽고인 환영)
571-233-7982

리모델링 과 토치수평 잘하시는 목수 구함.
443-542-1200

유경험 플러밍, 파트타임, 하이페이
703-625-0082

가구와 캐비닛 공장에서 일할 분
Stain & Paint Finish Worker, 안정된 수입,
성실한 분. www.hdplusinc.com
703-859-2499

집수리에 관한 모든 일 (리모델링/수리/택)
20년 경력의 핸디맨이 작은일도 확실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상담 환영)
571-531-1019

<기타 구인/구직>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 443-828-7777

탐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콧시티, 메릴랜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 703-256-0606

맥클린한국학교 교사모집
(유치부, 초등부) 토요일 / 9:30-12:30
autumn379@gmail.com
▶ 571-235-8997 /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창고서 함께 박스 배달할 분을 구함.
신분상관없음.
571-242-3736

에버그린 헬스 케어 매니지먼트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홈헬스 HR/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
com

빌딩 청소 하실분 파트타임 남여 1명
장소 칼레지파크 MD 경험자 우대
703-725-1233

메릴랜드에서 입주하셔서 아이 셋과
가사일 도와주실분 구함. 운전 필수
연락처 301-257-1787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공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밋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등
차 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어시스트 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 분.
경험자 우대. 속식 하실분.
410-961-3012

고고투유에서 책임감 강한
딜리버리 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고정급 있음
연락처: 703-505-5211

에쉬번 지역 9개월 아기
일주일에 2일 봐 주실분.
571-438-1402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챌트리 지역 밤에 청소하실 부부팀 원함
443-966-5196

가구장사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571-274-5264

수퍼마켓(스털링, 버지니아)
웨어하우스에서 Seafood 및 Supply
구매하실분 모집. 초보자도 가능합니다.
마이클 임 703-665-2162

인쇄달력회사/마케팅을 함께할 직원구함
571-242-3736

Part time Tysons Corner/Great Falls, VA
애들 등교, 학교 도와주고 간단한 식사
도와주실분 전화주세요. 운전 필수.
917-886-1884

빌딩 청소 및 잡일 월-토 (7AM-12PM)
위치: Oxon Hill, MD
240-903-0777

부동산 렌트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타운하우스 (Manassas Park) \$2,100
방3, 화장실3, 리모델 부엌, 나무마루,
Fenced Back Yard, 교통편리
▶ 703-477-3114

타운하우스 비엔나 \$3,400. 방3, 화장. 1/2
차고 2. Walkout Basement, End Unit.
Updated Kitchen, Fenced Backyard. 나
무마루. Deck. 매트르역 바로 앞. 즉시 입주!
▶ 703-477-3114

시니어케어 용도 주택 렌트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아름다운 조경의 큰 땅,
전체 리모델한 저택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 층 각자 풀키친과 세탁장
-12베드룸, 6 풀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 Serious Inquiries Only
* Agent 환영
▶ 703-244-3453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글로리아 워싱턴 선교단

단원 모집

《매년 지역 선교 예술제 공연》

주요사역

울동으로 찬송가 & 복음성가 워싱턴 공연을 사모하는 모든 분 환영합니다!

단원 희망자, 영적/물적 후원 원하시는 분 문의 문자 주시면 연락드립니다.

서재진 원장
619-873-7323

Crabs 10월부터 알베기 판매

식당 동업자 구함

주방장 경험과 약간의 운영자금 가능한 자

Crabs wholesale MD·VA
202-553-8551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시?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달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junk9292.com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3년 10월 10일 화요일

구인 / 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1

1. 센터빌 싱글홈 \$2,600/mo
가라지방 4 화 3. 소핑몰, 교통 편리
2. 페어팩스 타운홈 \$3,000. 방 3 화 3
차고. 페어레이크 쇼핑몰에서 1분 거리
202-743-8886

Maryland Clarksburg 즉시 입주가능
End unit 벽돌집 Townhouse rent
월 \$3,000 방 3, 화장실 2, 반화장실 2
차고 2 넓은 Deck, 부엌 updated
Hardwood floor, 걸어서 Harris Teeter
연락처 Mrs. Cha
301-775-9215

에쉬번 방 4개 화 3개 벽돌 타운홈
학군 좋음 2015년 집. 쇼핑몰에서 1분거리.
267 에서 1분거리
202-743-8886

벤든 메트로 옆 타운 홈 \$2,850
방 3, 화 2 1/2, 차고 2, 새 부엌,
새 냉장고, 전체 새 페인트
703-489-6926

게인스빌 타운홈, 방 3, 화 4, 1952sqft,
2차고, 2018년, 엔드유닛 창 많은 타운홈
703-762-6759

센터빌 H마트 2~3분거리, 타운 홈
방 4, 화장실 4, 차고 2
571-882-4473

매나사스 코스코 근처 방 3, 화 2, \$1900 New
paint, dishwasher, range,
air conditioner, 즉시 입주 가능
646-419-0022

Fairfax, 방 3+다락방, 화장실 2
Oakton HS, \$2500
703-585-4183

센터빌 타운홈 \$2,950
방 3, 화 2.5 쇼핑몰&한국마켓 도보 3분
925-900-3918

Centreville Town Home
6401 McCoy RD, Centreville, VA 20121
Rent - \$2,400, 방 4, 화장실 3
Basement, 지하출입문 별도
571-245-1495

센터빌 3층, 엔드유닛 타운홈 \$2,700
방 3, 화 3.5, 차고 1개, 덕
많이 업데이트된 밝고 환한 집
703-489-6926

〈콘도 렌트〉

콘도(Alexandria) \$2,600 / 즉시 입주 가능.
방 2, 화 2, Elevator, 5층, 최고급콘도,
나무마루, 리모델 부엌 & 화장실,
Alexandria 다운타운 근처, Amenities 좋음.
▶703-477-3114

2005년 새콘도(Fairfax) \$2,100 / m
방 2, 화장실 1, Metro 역 걸어감. 탁트인
부엌, 넓은 리빙룸. SS Appliances & Granite
Counter Tops, Washer & Dryer
▶703-477-3114

콘도(Annandale) \$2,100/m
방 2, 화 2, 넓은 리빙룸, 숲이 보이는 넓은 발코
니, Washer & Dryer. H-Mart 가까운 동네.
▶703-477-3114

애난데일 H마트 입구 콘도.
방 1, 화 1. 파킹 2. 12월 초 입주
\$1500
(703)268-8669(처음은 문자)

10월 1일/초순경 ANNANDALE의 콘도
같이 입주할 분(남녀독신 불문).
비흡연자/비음주자/비마약자 선호.
직장인/자영업자/은퇴자 환영.
본인: 전문직 중사자임.
571-390-3989(문자로만 연락바람)

헤이마켓 콘도 차고 1, 방 3, 화 2/1, 2215sq
703-489-6926

애난데일 방 2, 화 1, 렌트 \$1600, 전기요금 별도
703-403-8918

Falls Church Condo 렌트
방 2, Metro/66도로 모두 갖추어진 깨끗한
집, 렌트 (\$1550+ condo fee)
703-336-3283

콘도 (단기렌트) 방 2, 화장실 2개, 가구일체
사용가능 수영장, 탁구, 테니스, 골프 18홀
301-466-1888

〈방렌트〉

설악가든 근처, 잠만 주무실 분
방 1, 화 1, 금연자
(571)243-6295

실버스프링, 넓고 조용한 싱글홈 아래층
원룸스타일 취사가능. 인터넷 출입문 별도
240-543-6427

지하방 깨끗한 집 즉시 입주가능
볼티모어 UMBC 가까운 곳
443-240-7606

즉시 입주, 애난데일 H-Mart 근처 콘도,
아주 조용하고, 깨끗하고, 편리한 동네,
독신남녀 환영. 완전 취사가능. 가구완비.
이름 & 이사날짜, 문자로만
571-251-0354

페어팩스 비엔나 전철 근처
원룸식 방 렌트, 직장인 남자 환영
703-419-0337

버크 싱글홈 반지하 전체 별도 출입문,
방, 거실, 욕실, 키친, 세탁실, 인터넷, 유모,
금연 남자직장인 및 학생 환영
571-216-4775

Fairfax NOVA, GM n Burke H-Mart
10분거리, 유모, 취사, 인터넷, 방 1개 \$600
방 2개 \$1000, 여자분 환영
571-214-0188(문자 바람)

Burke H-Mart 10분거리
유모, 취사, 인터넷, \$600 여자분 환영
703-678-7833(문자 바람)

타운홈 지하방. 화장실, 샤워룸, 리빙룸,
키친 세탁룸, 단독 아파트 처럼 사용가능
페어랙 Walmart 근처
문의 : 571 217-2224(Mr Kim)

원룸 스타일. 욕실, 키친, 침대, 책상, 옷장.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571-232-6052

방세 동음, 개인집 방 1개 욕실 샤워 별도
엘리베이터 롯데 8분
301-326-5303/702-622-8853

애난데일 예촌 앞 방세 놓습니다.
2층 방 2개, 워크아웃 1개
772-529-8675

버크 월마트 도보로 5분.
깨끗하고 환한 타운하우스 1층. 방 1, 화 1,
(냉장고, 세탁기, 전자렌지, 싱크, 옷장, 식탁)
워크아웃, 주차 가능. 여성분(학생 환영)
202-505-0678

495,395 5분 거리 교통 편리한
스프링필드 지하방 세 놓습니다
703-898-2696 메시지 부탁합니다

애난데일 싱글 아래층. 노바, GMU, 495, 6분
침대 가구 취사가능, 여자분 환영.
571-205-0903

넓고 조용한 단독주택 아래층. 출입문 별도
간단한 취사가능, 넓은 방, 거실 쓰실 분
실버스프링 한아름, 롯데 10분거리
240-543-6427

Annandale 방렌트, Townhouse
밝고 조용한 뒷층방, 마루, 유모함,
교통편리함(private bathroom)
여자분 환영. 문자보내주세요.
문의: 571-345-8879

센터빌 싱글지하방 2, 거실, 조용, 주방, 세탁,
출입문 별도, 주차, 즉시 입주, 남학생, 직장인 환영
703-336-7631

단독주택 2층방/주차가능/인터넷/
가구완비/냉장고별도/여자분 환영/
MD Burtonsville, 29번과 198번 만나는 지점
240-413-2728

BURKE Townhouse. 깨끗하고 환한 1층.
방 1, 욕실 1, 간단한 취사, 주차가능
냉장고, 전자렌지, 인덕션, 옷장, 식탁
(학생환영), 도보로 Walmart 5분 거리
202-505-0678

버크 스테이션, 방 1, 화 1, 간단한 취사,
주차가능, Walmart 근접. (여자분, 학생 환영)
202-505-0678

버크 베이스먼트 전체, 워크아웃 별도 출입
방 2, 욕실, 주방, 거실, GMU,
NOVA 10분, 2인사용 가능

703-887-8968(문자)

조지메이슨대학 근처 렌트
웨어팩스 Hmart 도 가까운. 반지하 지하실
출입문 별도, 부엌에 싱크 새로 만들.
세탁실 있음. 조용하고 안전한 개인주택
703-389-4615

지하전체 간단취사가능. 주차, 인터넷, 유모.
GMU 근처. 타운하우스
408-691-4775

애난데일 조용한 싱글홈 워크아웃 지하 큰방.
풀 배스, 세탁실, 간편취사. 출입문 별도.
주차편리. 문자 연락 요망.
703-853-9955

메릴랜드 그린벨트 나사 근처
조용하며 교통편리, 작은 방 \$350
301-379-9660

싱글하우스 방 렌트 스프링필드
495/395 5분거리
703-750-2795

페어팩스 몰 근처 싱글홈 1층 출입문 별도,
방 2, 큰 거실, 큰 부엌, 화장실
571-525-4220 mr. 권

395,495 2분거리, 백클릭 근처 타운하우스
1, 2층 전부 렌트 가능. 아님 2층 화장실 딸린
방하고 리모델링한 지하 각각 렌트 가능.
취사가능.
703-403-8918 (Lee)

페어팩스 쾌적한 숲속 환경 타운하우스,
밝은 채광, 2층, 노바 5분, 조지메이슨 5분
남학생 환영. 문자만 가능.
571-554-4224

페어팩스 지역 도보 3분거리 GMU 대학교 근
처 밝고 넓은 거실 방 1 워크아웃, 여자분 환영
347-421-7894

페어팩스 지역 조지메이슨 대학교
걸어서 3분거리 옷장 방 1개 화장실
주차편리 조용한 여자분 환영
347-421-7894

센터빌 브라더로드 조용한 집
싱글홈 방 1 렌트 욕실 인터넷
703-909-1609

센터빌 CVS 근처, 지하 전체 렌트, 새 카펫, 화
장실, 키친, 간단식사, 출입문 별도 유모. 문자
571-243-7027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화장실, 샤워,
인터넷. 출입문 따로 되어 있음
출퇴근하시는 직장인 남자분 한분 원함.
703-405-9005

방 1개 렌트, 옥트/비엔나 지역 인터넷, 1파
킹, 세탁기 & 건조기, 부엌 사용가능, 비엔나 메
트로 5분, 교통편리(메트로 버스)
남자/유학생, 직장인 환영. (문자요망)
703-593-7569

지하 방 2 넓은 공간에 세탁기 있는
New condition (Lorton VA)
703-501-8044

아난데일 서울순대에서 5분거리.
여자분 환영. 차 없으신분
703-622-2033

Fairfax Brigade Ln 큰 방 1, 큰 옷장,
별도 큰 욕실, 책상 침대, 침구, 세탁,
유틸리티 포함. 여자분 환영 \$850/m
703-919-2661

MD 저먼타운 싱글홈 욕실 딸린 큰 방 1 하고
반지하 방 1 출입문 별도, 인터넷, 가구완비
301-538-1438

애난데일 한인타운 중심가/조용한 아파트, 버
스 교통편리, 널찍한 주차장, 가게/식점도
보거리, 깨끗이 리모델링된 아파트,
비흡연자, 즉시 룸메이트로 들어올 분.
571-781-2938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침대 2개와 티 테이블 놓을 수 있는 사이즈)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 등등 활용 가능. 펄퍼 구합니다.
301-852-9298 (문자)

페어팩스 지역 오피스 룸
방 1, \$500, \$900, 와이파이, 이,
화장실, 부엌 있고 충분한 주차장.

703-966-9937

〈싱글/타운/콘도 매매〉

콘도 (Fairfax) \$395,000
방 1 * 큰 Den. 화장실 1. Metro 역 걸어감.
SS Appliances, Granite Counter Tops.
Laminate Floors. New Carpet. New Paint.
New Washer & Dryer. 편리한 1층 (출입문
거리 & 건물)
▶703-477-3114

Centreville \$499,900 타운하우스 방 4 화
3 1/2 Brick Front. 나무마루. New paint.
Updated for Washier, Stove, HV/AC,
Water Heater. Open Floor plan. 교통편리
▶703-477-3114

Alexandria 콘도. 방 2 화 2 호수가 보이는 편
안한 동네, 밝고 환한 콘도 Washer & Dryer.
넓은 부엌, Counter Tops. 1층. 넓은 Patio.
Costco & Walmart 가까움. \$229,000
▶703-477-3114

Centreville 콘도 방 2 화 2 Fire Place.
Washer & Dryer. Tops Floor. Three Ceiling
Fans. 넓고 편안한 Balcony. 교통편리. Lotte
Mart 가까움. \$299,000
▶703-477-3114

콘도 애난데일 \$400,000
방 2 화장실 2. 1 Car Garage, Top Floor.
밝고 깨끗한 집. New Carpet, Updated
Bathroom. 새 페인트. 나무마루, New HVAC.
SS Appliances, Granite Countertops. 숲이
보이는 Balcony. 1,116 sf 우리 어메리칸은
행군 처차 3대 파킹 할 수 있음.
▶703-813-8949

Lorton 타운하우스. 1 Car Garage 1999년
산 방 3 화 2 1/2 총 2,252 sf 2 Level Bump-
out. 9 Feet Ceiling. Walk-in Closet. Vatted
Ceiling 있는 안방. 넓은 Recreation Room.
3 Level. Bay Window. \$549,000
▶703-477-3114

콘도 센터빌 \$325,000
방 2, 화 2, 1038 sf 잘 관리되고 Update 된 집.
SS Appliance, Granite Counter Tops
탁트인 구조, New Window & Dryer. 숲과
파킹장이 보이는 넓은 발코니. Lotte Mart 근처
▶703-813-8949

센터빌 콘도 전체 렌트, 1층, 전체 마루,
방 1, 화 1, 폴사이드 세탁기, H-Mart 근처
▶703-813-8949

Centrevill 타운하우스 \$559,900
방 3, 화 3 1/2 1,452 SF
Finished Walkout Basement.
Updated Kitchen, Hardwood Floors.
탁트인 부엌과 리빙룸. Deck
▶703-813-8949

Haymarket, 럭셔리 타운홈 세일
\$620,000. 2car, 방 3, 화 3.5,
Walkout Basement, 마켓에 아직 안나온 집.
571-567-5797

센터빌 2층 타운홈 \$434,900
방 3, 화 2.5, 센터빌 하이, 리버티 미술 학군
703-489-6926

〈부동산/상업용 매매〉

Vienna VA / Diamond Nails Spa 매매
. 주소 :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 Sale Price : \$290,000
. Weekly's sales : \$6300. (평균)
. 단독 건물 단독사용, (약 3000SQF
. 원하시면 건물 매매도 가능합니다.
.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 파트너십 / 여러 다양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 Rent: \$7880 (모든 것 포함)
(10년 렌트 인상 없습니다)
. 노던 버지니아에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
고에 장소입니다
▶ 571-421-0863

For Sale (사업체 판매) Woo Tire Co.
- 트럭 중고품 타이어 Shop
- DC 노스이스트 공장 지역
- 30년 동안 운영한 점포
- 단골 손님 500여명
- 타이어 1분 판매 65% 마진
- 장비 10여 만불 보유
* 영업시간: 오전 9시 - 오후 4시 (5 1/2 day)
* Rent/월: \$2,000 (면적 3,000 sf.)
▶ 문의 전화: 202-258-6384

DC. Liquor Store 매매 : \$260,000
연매상 : \$780,000. 6일. 용자. 부부운영
571-242-3736

볼티모어 델리 매매
시간 오전 7시 - 오후 3시 / 주매상 4천
443-766-4813 (오후 3시 이후 전화바람)

페어팩스 픽업 세탁소 매매
주매상 \$4,000, 렌트 \$2,700(캠포함)
좋은 지역 & 매상 해마다 오르는 중
571-314-1433

애난데일 마트 안 한중식 8만불 메세지주세요.
703 424 6451

버지니아에 있는 미용실 찾는 분 연락주세요.
(오후 6시 후 문자주세요)
571-277-7758

볼티모어 머니먼트 근처에 컨비니언 스토어
남자 혼자 운영 월-토 9-5
순수입 월 \$3,600 / 매매 6만 / 스탁 8천
443-472-8820

상업용 건물/정비소, 중고딜러차 등등
할수 있는 곳 건물 팝니다. 문자요망
703-946-9901

센터빌 지역 크라운 브릿지 덴탈랩 매매
Serious buyer 분들 연락바람.
703-582-8689

센터빌 지역 크라운 브릿지 덴탈랩 매매.
Serious buyer 분들 연락바람.
703-608-0522

세탁소 매매 Upper marlboro, 좋은 장소
703-850-3714

마켓내 상업용인 한식·중식 식당하실분!
703-638-8876

랜드버에 있는 깨끗한 델리, 장비포함 7만 주
인이 나이가 있어 이젠 정리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비전이 있는 곳입니다
(산림) 240-381-1615

기타

치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re - 40년 경력
▶▶ 703-569-8000

버크레이크에서 멀세레이크까지...
일요일 아침 8시 버크레이크 헬터 C에서
모여서 멀세레이크까지 오솔길 6.5 마일
(2.5 시간 소요) 걷는 운동 모임.
숲속길 걷기를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703-939-5223

명인택시
공항 픽업 & 라이드 장거리 환영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703-470-5238 / 571-246-1942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단/장기 기간도 주인이 직접 한국식으로 돌
봐 드립니다.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
노바대학교 벨트웨이 중간지점 (예촌 2분거
리), MD 타주 분들도 환영! 직접 방문 확인!
▶571-278-8811

고춧가루 팝니다. 보통맛 / 매운맛
직접 농사지는 태양초 고춧가루
맛있고 건강에 좋은 무공해 100%
빛깔 좋은 태양초, 좋은 가격 / 신용품질 보장
▶703-470-5238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요정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 면허
기타 교통공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남성골프채 DRIVE
1) 일제 KAMUI ASIRI 고반발 Gold 10도 / R
\$ 600
2) FXG 0811x+PROTO 10.5도 / R
\$170
301-717-7960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8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문을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트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 · 시공 및 건물 ·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 · 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 주택,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 ☛ 욕, 마루, 캐비닛 샌딩 보수
- ☛ 플로잉, 핸디맨 서비스



703)965-3011

유리 /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중앙유리

사위도어/자동문/식탁유리/거울장식
특수 유리 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중

T. 703-894-7200

8002-A Haute Ct, Springfield, VA 22150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무료견적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Door to Door Service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VA/DC/MD ↔ NY 정기운행
- 쓰레기 처리가능
- 타주이사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 | | | |
|----------------|-----------------|------------------|--------------------|
| KOREA(SEOUL) | KOREA(BUSAN) | USA(LOS ANGELES) | USA(SAN FRANCISCO) |
| 02-2083-2083 | 051-469-4191 | 310-767-5699 | 510-887-2424 |
| USA(SAN DIEGO) | USA(NEW JERSEY) | USA(TEXAS) | USA(ATLANTA) |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저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20년 전문!!

신속

안전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사위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 VA/MD 지역 EV충전소 설치업체
- 충전기 설치시 카운티 허가, 인스펙션 도와드립니다
- 지역 전기회사에서 리베이트 받도록 도와드립니다

- 전기마스터 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

www.nestenergyservices.com

703-855-356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 백금 (Platinum)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K14, K18, Setting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각종 보석감정수리상담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용자

마이클 장

맞춤 용자의 길인
질인과의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박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301-275-1494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냉동
- 집 안팎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l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러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음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택,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플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빅스톤

◆플러밍 ◆페인트
◆목수 ◆전기 ◆수도

직접 타일 창문 화장실
시공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종합업소안내 가격표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 | 3 Months | 6 Months | 1 Year |
|------|----------|----------|---------|
| 1BOX | \$300 | \$550 | \$1,000 |
| 2BOX | \$600 | \$1,100 | \$2,000 |
| 4BOX | \$1,200 | \$2,000 | \$3,600 |

BBG 블라인드
비지니아 VA/MD/DC

- 전제품 한국산 블라인드
- 친환경 원단, 하이 퀄리티
- 한국산 전통 블라인드
- 한국산 줄없는 블라인드
- 한국산 버티컬 블라인드
- 한국산 오동나무 블라인드

무료 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Luxury Vinyl Tile)
- VCT(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Laminate)

703-395-0050

지붕 / 사이딩

루핑, 사이딩이 필요하십니까?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Before During After

무료 견적 & 인스펙션

영업직 직원 구함 경험자 우대

주거용 및 상업용 모든 유형의 지붕을 설치합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Roofing Siding Window Gutter Cabinet

MY ROOFERS
마이 루퍼스

전화번호. 703-760-3161, Cell. 703-944-9200
E-mail. Contact@myroofersusa.com
www.myroofersusa.com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Nancy: I'm back! How's the rice?
낸시: 나왔어! 밥 어떻게 됐어?
David: It's good. So what did Carol have to say?
데이비드: 잘 됐어. 그레 캐롤이 뭐라고 그래?
Nancy: She gave me the chocolate cake recipe.
낸시: 초콜릿 케이크 레시피를 알려줬어.
David: And-?
데이비드: 그리고?
Nancy: We dished the dirt.

낸시: 다른 사람들 얘기했어.
David: Of course you did.
데이비드: 물론 그랬겠지.
Nancy: Francine is breaking up with George.
낸시: 프란신이 조지와 헤어진대.
David: I'm just going to cry.
데이비드: 안됐다.
Nancy: And Heather and Brian are calling off their wedding.

dish the dirt: (구어체) 뒤에서 남의 얘기를 하다

(Nancy comes home from her friend Carol's house ...)
(낸시가 친구 캐롤네에 갔다 돌아온다...)

낸시: 헤더하고 브라이언은 결혼식을 취소한다. (레베카가 매트와 헤어졌다는 얘기가 들었어?)
David: It's amazing how a chocolate cake recipe can make you gain weight around your ears.
데이비드: 초콜릿 케이크 레시피가 귀를 호강시키네. 대단하다.
기억할만한 표현
▶ break up (with someone): (누구와) 헤어지다.
"Did you hear that Rebecca broke up with Matt."
▶ call off: 없던 일로 하다.
"The game was called off because of rain."
(비가 와서 경기가 취소됐다.)
▶ gain weight: 체중이 늘다. 살찌다.
"I always gain weight when I go on vacation."
(휴가만 가면 살이 쪼.)

날말퀴즈

| | | | | | | | | |
|----|----|----|----|--|----|----|----|----|
| 1 | 2 | | 3 | | 4 | | 5 | 6 |
| 7 | | | 8 | | | | 9 | |
| | | 10 | | | 11 | | | |
| 12 | 13 | | | | | | 14 | |
| | | | | | | | | |
| 15 | | | 16 | | 17 | 18 | | 19 |
| | | 20 | | | | | | |
| 21 | 22 | | 23 | | 24 | | 25 | |
| 26 | | | | | 27 | | | |

가로열쇠

(1)한 입으로 두 말을 함. 한 가지 일에 대하여 말을 이뤘다저했다 바꿈 (4)금실 좋은 부부를 상징하는 새를 수놓은 이불과 베개. 부부가 함께 덮는 이불과 베는 베개 (7)소매 부분이 없이 어깨 위로 걸쳐서 둘러 입는 외투 (8)진흙으로 구워 숯불을 담아 두께 만든 그릇 (9)사람이 살고 있는 곳. 도로명 ~ (11)남자들이 한복을 입을 때에 바짓가랑이 끝을 묶는 끈 (12)비가 섞여 내리는 눈 (14)거울을 달아 세운 가구 (15)코의 밑과 윗입술 사이의 우묵하게 골이 파인 부분 (17)바람 앞의 등불. 매우 위태로운 처지 (20)상반신은 여자의 몸, 하반신은 물고기 (21)이미 한 번 한 것을 다시 청함. 앙코르 (23)여름에 산수 좋은 곳을 찾아 발(족)을 씻으며 노는 모임 (25)목적이나 뜻이 서로 같은 사람 (26)천 개의 산과 만 개의 내. 많은 산과 여러 갈래의 많은 시내 그는 인생의 ~를 넘어 온 백전노장으로 보인다. □□만□ (27)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고 군대를 강하게 함

세로 열쇠

(1)한 번 그물을 쳐서 고기를 다 잡음. 어떤 무리를 한꺼번에 모조리 다 잡음 (2)먹은 음식물을 토함 (3)어떤 일을 은근히 약속하는 투의 말. ~을 주다 (4)예전에, 나이가 많고 덕망이 높은 벼슬아치를 이르던 말 (5)술을 끊음 (6)작은바늘을 큰 몽둥이라고 함. 작은 일을 크게 부풀려서 말함 (10)참기름을 짜는 곡물 (13)눈으로 보아 어렵잡아 헤아림 (14)빛을 깜박거리려 위험을 경고하거나 비상임을 나타내는 등. 경찰은 ~을 번쩍이며 용의 차량을 뒤쫓았다 (15)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 있음. 목숨의 길고 짧음은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음 (16)한 마리의 물고기가 물을 흐림. 한 사람의 잘못으로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됨 (18)나라 사이에서 무력을 사용하여 싸움 (19)그림 속의 떡.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이용할 수 없거나 차지할 수 없음 (22)풀과 나무가 무성한 푸른 산 (24)어떤 대상이나 과정으로 돌려보내거나 넘김. 징계 위원회에 ~하다 (25)쓰다 남아 작게 된 토막

스도쿠

| | | | | | | | | |
|---|---|---|---|---|---|---|---|---|
| | | 4 | | 1 | | | 3 | |
| 2 | | | | 9 | | | 6 | |
| | 3 | 6 | 7 | 4 | | 8 | | 9 |
| 9 | | | 6 | | | | | |
| | 8 | 1 | 4 | | | | | 3 |
| | | | 2 | | 9 | 4 | | |
| | | | 9 | | | 7 | 4 | |
| | | | | | | | 9 | 5 |
| | 2 | | 5 | | 4 | | 8 | |



자료제공 = 올드북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 | | | | | | | | |
|---|---|---|---|---|---|---|---|---|
| 1 | 8 | 9 | 4 | 2 | 5 | 6 | 2 | 3 |
| 5 | 6 | 3 | 8 | 2 | 1 | 7 | 9 | 4 |
| 2 | 4 | 7 | 3 | 6 | 9 | 5 | 1 | 8 |
| 9 | 1 | 4 | 6 | 8 | 2 | 3 | 5 | 7 |
| 3 | 2 | 6 | 7 | 5 | 4 | 1 | 8 | 9 |
| 8 | 7 | 5 | 1 | 3 | 9 | 2 | 4 | 6 |
| 6 | 5 | 8 | 2 | 4 | 7 | 9 | 3 | 1 |
| 4 | 9 | 1 | 5 | 6 | 3 | 8 | 7 | 2 |
| 7 | 3 | 2 | 9 | 1 | 8 | 4 | 6 | 5 |

① 워싱턴 중앙일보

정기구독 신청 1년 (\$120) 및 가판대 무료배포

1년 정기 구독료 \$120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유일한 종합일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발행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매일 배포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도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게재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 | | |
|------------------------------------------|-----------------------------------------------------------------------------------------------------------------------------------------------------------------------------|-------------------------------------------------------------------------------------------------------------------------------------------------|
| 성명 (Name) | 영문 (Eng) | 한글 (Kor) |
| 주소 (Address) | | |
| 연락처 (Phone #) | Home | Cell |
| 구독료 (Subscription Fee) | 1년 선납 \$120 | 지불 방법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
| 카드 정보 (Card Info) | 카드 종류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_____ EXP. DATE: / month year | 카드 뒷면 3자리 CVS: _____ |
| 신청서 보내실 곳 |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
| 20 ____ 년 ____ 월 ____ 일 서명 (sign): _____ | | |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3일 후부터 배달되며 3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멜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4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